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무 및 손익현황 분석

2026년 10월

연구책임자 이승태 (휴코어)
공동연구자 이재윤·송찬호 (휴코어)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1.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정의 및 재정지원 현황 분석 ····· p01

2.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 및 손익현황 분석 ····· p32

3.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중앙 공공기관의 재무위험 관리제도 비교 ·· p121

4.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p129

Part I. 지방출자 · 출연기관의 정의 및 재정지원 현황 분석

1.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념 및 현황

1.1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정의 및 운영 특성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적용됨

○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구분 및 운영 특성

-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은 재원 제공 방식과 법인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지분 보유 여부와 운영 성격에 차이가 있음

[지방출자기관과 지방출연기관의 정의 및 운영 특성 비교]

구분	출자기관	출연기관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법인 형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지분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에 따른 지분 10% 이상을 보유	출연에 따른 주주 지분은 형성되지 않음
운영 성격	공공목적 달성과 사업의 수익성을 함께 고려	비영리 목적의 공익사업 수행에 중점

※「지방출자출연법」을 바탕으로 작성

1.2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능 및 사업 유형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

-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구분	주요 내용
주민 복리 증진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함
지역경제 발전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의 활성화·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함

-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한 사업 수행
  -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며, 분야별 전문성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책사업과 공공서비스를 수행함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사업 유형 세분화

- 기존 유형 분류 및 세분화 필요성
  - 분석에 활용한 클린아이 기관현황 자료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기업지원, 문화·복지·관광, 식품·유통 등 10 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기존 분류에는 여러 사업 분야가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되어 있어, 세부 사업별 재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구분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유형 분류 방향
  - 본 연구에서는 기관별 주요 사업 분야와 기능을 기준으로 기존 분류를 세분화·재구성하여 22 개 유형으로 구분함
  - 문화·복지·관광 분야의 구분과 테크노파크의 별도 분류 등을 통해 사업 성격의 차이를 반영하고,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함

[기존 분류와 본 연구의 유형 분류 비교]

구분	기존 분류	본 연구
유형 수	10개	22개
분류 방식	문화·복지·관광 등 여러 사업 분야를 통합하여 구분	기관의 주요 사업 분야와 기능에 따라 세분화·재구성
유형의 활용	통합 유형별 기관 현황 파악	세부 사업 분야별 기관 현황 및 재무특성 분석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형별 주요 사업**

- 22개 사업 유형의 주요 내용
  - 유형별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이후 기관 수 현황과 재무분석에 동일한 유형 구분을 적용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형별 주요 사업]

유형	주요 사업
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관련 시설 운영 및 산업 진흥
개발투자	지역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개발사업
관광	관광자원 개발·홍보 및 관광시설 운영
국제교류	국제교류·협력 및 지역의 국제화 지원
기업지원	창업·기업 육성 및 경영·판로 지원
기타	다른 세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목적 사업
문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행사 운영
박람회	특정 박람회·행사의 기획 및 개최·운영
복지	사회복지 서비스·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참여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스포츠	체육 진흥 및 스포츠시설·대회 운영
식품유통	농수축산물 유통·판매 및 지역 먹거리 공급
신용보증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및 금융 접근성 지원
에너지환경	에너지 사업, 환경 보전 및 관련 시설·정책 지원
여성청소년	여성·가족 지원 및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
연구	지역 정책·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의료	공공의료 서비스 및 지역 보건의료 지원
일자리	취업·고용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장학	장학금 지급 및 지역 인재 육성
종합지원	여러 정책 분야의 지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종합 지원사업
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평생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기반 조성

※ 주요 사업은 유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개별 기관의 사업 범위는 설립 목적과 실제 수행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3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전체 현황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전체 규모

- 지방출자·출연기관별 기관 수 및 구성비
  - ‘26 년 1 월 1 일 공시 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총 884 개이며, 출자기관 102 개와 출연기관 782 개로 구성됨
  - 출연기관은 전체의 88.5%로 출자기관 11.5%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관 수는 출자기관의 약 7.7 배임

구분	기관 수	구성비
출자기관	102	11.5%
출연기관	782	88.5%
전체	8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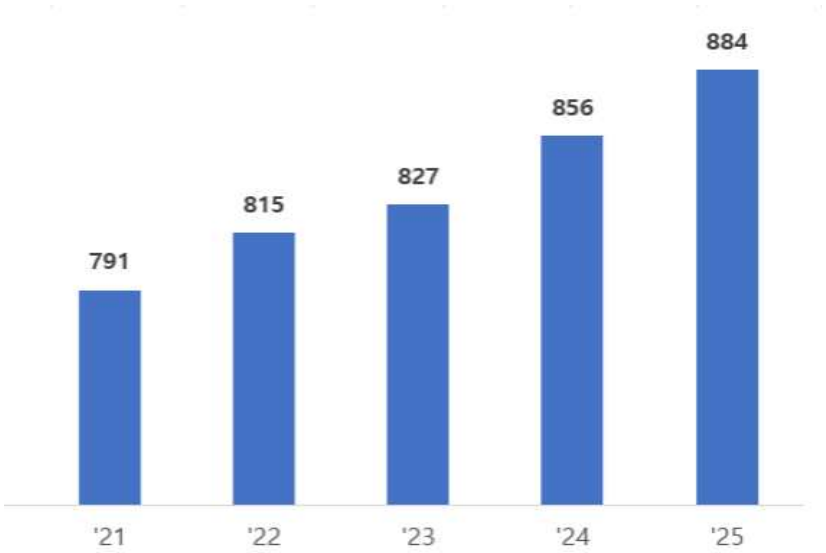
※ 출처: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자료를 기초로 작성('26.01.01.기준)

○ 최근 5년간 기관 수 변화

- 연도별 기관 수 추이
  지방출자·출연기관 수는 ‘21 년 791 개에서 ‘25 년 884 개로 93 개 증가하였으며, 기간 중 증감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확대됨

[지방출자·출연기관 수 5년 추이]

(단위:개)



1.4 재무분석 대상기관 선정

○ 재무분석 대상 선정 기준

- 기관 현황과 재무분석 대상의 구분
  - 기관 현황은 '26 년 1 월 1 일 공시 기준 884 개 기관이며, 재무분석은 이 중 '25 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모두 공시된 864 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함
  - 이후 지역별·유형별 현황에는 전체 기관과 분석대상을 함께 제시하며, 재정지원 및 재무·손익 분석에는 선정된 864 개 기관의 자료를 적용함

○ 재무분석 대상 선정 결과

- 지방출자·출연기관별 분석대상 현황
  - 전체 884 개 중 864 개를 재무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 비율은 97.7%임
  - 분석 제외기관은 출자기관 10 개와 출연기관 10 개로 총 20 개임

[지방출자·출연별 재무분석 대상 선정 현황]

구분	현황 기관 수(A)	분석 대상(B)	분석 제외(A－B)	선정 비율(B/A)
출자기관	102	92	10	90.2%
출연기관	782	772	10	98.7%
전체	884	864	20	97.7%

- 분석 제외기관의 자료 확인 현황
  - 분석 제외기관 20 개는 일부 공시 4 개, 미공시 4 개, 신규 지정·지정 해제·해산 등 기관 지정 관련 사유 12 개로 구분됨

[재무분석 제외기관의 자료 확인 현황]

구분	기관 수	내용
일부 공시	4	재무상태표만 존재하여 손익계산서 미확보
미공시	4	결산서, 감사보고서 미공시로 재무제표 미확보
기관 지정 관련 사유	12	신규 지정 4개, 지정 해제 1개, 기관 해산 7개
전체	20	

※ 재무분석 제외기관 20개의 기관명 및 제외 사유는 다음 페이지에 제시

[재무분석 제외기관 세부내역]

구분		기관 수	내용
일부 공시		4	강릉농산물도매시장,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노원환경재단, 충주드림파크개발주식회사
미공시		4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대산그린컴플렉스주식회사, 영남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기관 지정 관련 사유	신규 지정	4	부천시정연구원, 서초복지돌봄재단,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화신산업개발
	지정 해제 (매각)	1	진도청정푸드밸리
	기관 해산	7	시흥매화산단개발, 김포빅데이터,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전체		20	

[자료 확인 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기관 통합 내역]

시점	통합 전 기관	통합 후 기관
2023년	문화엑스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도시공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024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포천시교육재단	재단법인 포천시청소년재단
2025년	재단법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
	재단법인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의정부도시교육재단

※ 통합 시점 전후에는 자산·부채의 승계와 사업 범위 변경 등이 재무수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증감에는 기관 통합에 따른 영향이 포함될 수 있음

1.5 지역별 기관 현황

○ 지역별 기관 분포

- 시·도별 출자·출연기관 현황
  - 지역별 기관 수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의 기관을 포함하여 집계함
  - 전체 현황은 경기 158 개, 강원 88 개, 전남 87 개 순이며, 분석대상도 경기 155 개, 강원 86 개, 전남 81 개 순으로 많음
  - 분석대상은 모든 지역에서 출연기관 수가 출자기관 수보다 많으며, 지역별 출자·출연 구성에는 차이가 있음

[지역별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단위: 개)

지역	전체 기준			분석 대상 기준		
	출자기관	출연기관	전체 합계	출자기관	출연기관	전체 합계
서울	6	64	70	5	61	66
부산	2	29	31	2	29	31
대구	1	21	22	1	21	22
인천	4	24	28	4	24	28
광주	1	17	18	1	17	18
대전	1	18	19	1	18	19
울산	1	13	14	1	12	13
세종	3	6	9	3	6	9
경기	15	143	158	13	142	155
강원	11	77	88	9	77	86
충북	10	37	47	9	37	46
충남	9	58	67	8	58	66
전북	8	54	62	8	54	62
전남	9	78	87	7	74	81
경북	6	68	74	6	67	73
경남	14	62	76	13	62	75
제주	1	13	14	1	13	14
전체	102	782	884	92	772	864

※ 전체 현황은 클린아이('26.01.01.) 공시 기준이며, 분석대상은 이 중 '25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모두 확보된 기관임

1.6 유형별 기관 현황

○ 사업 유형별 기관 분포

- 22개 유형별 기관 규모
  - 주요 사업 분야에 따라 전체 기관을 22 개 유형으로 세분화함. 분석대상은 출자기관 8 개 유형, 출연기관 21 개 유형으로 구성
  - 분석대상 중 출자기관은 개발투자 43 개와 식품유통 23 개가 전체 출자기관의 71.7%를 차지함. 출연기관은 장학 177 개와 문화 135 개가 전체 출연기관의 40.4%를 차지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사업 분야별 유형]

(단위: 개)

유형	전체 기준			분석 대상 기준		
	출자기관	출연기관	전체 합계	출자기관	출연기관	전체 합계
MICE	4	2	6	4	2	6
개발투자	48	0	48	43	0	43
관광	7	59	66	7	58	65
국제교류	0	4	4	0	4	4
기업지원	0	70	70	0	70	70
기타	2	12	14	2	11	13
문화	0	136	136	0	135	135
박람회	0	5	5	0	2	2
복지	1	69	70	1	68	69
소상공인	0	11	11	0	10	10
스포츠	0	12	12	0	12	12
식품유통	26	20	46	23	20	43
신용보증	0	17	17	0	17	17
에너지환경	8	8	16	7	7	14
여성청소년	0	48	48	0	48	48
연구	0	72	72	0	71	71
의료	0	31	31	0	31	31
일자리	6	2	8	5	2	7
장학	0	177	177	0	177	177
종합지원	0	5	5	0	5	5
테크노파크	0	18	18	0	18	18
평생교육	0	4	4	0	4	4
전체	102	782	884	92	772	864

※ 전체 현황은 클린아이('26.01.01.) 공시 기준이며, 분석대상은 이 중 '25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모두 확보된 기관임

2.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지원 현황

2.1 재정지원 방식과 회계적 구분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정지원 방식

- 재정지원의 주요 유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출자금·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원을 제공함. 본 연구에서는 출연금·보조금의 수익 인식액과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 잔액을 분석하고, 출자기관의 자본금 변동을 별도로 제시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정지원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출자금	기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본금
출연금	기관의 설립·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하는 재원
보조금	특정 사업 등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재정지원의 역할 및 분석 필요성
  - 출자금·출연금·보조금은 기관의 재원 조성과 운영·사업 수행을 지원하며,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지원 방식과 활용 구조에 차이가 있음
  - 재정지원 규모와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기관별 재원 조달 특성을 파악하고, 이후 재무 및 손익현황 분석에서 수익구조와 경영성과를 해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2.2 분석 항목 및 집계 기준

○ 재정지원 현황의 분석 기준

- 분석 대상 및 자료
  - 재무분석 대상 864개 기관의 '21~'25년 결산자료를 활용하며, 연도별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분석에 포함된 기관 수를 함께 제시함
  - 재정지원 관련 계정과 주석을 확인하여 출자·출연별, 사업 유형별 및 지역별로 집계함

- 재무제표별 분석 항목
  - **재정지원 수익**은 출연금·보조금 중 해당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으로,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비용과 대응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됨
  - **자본 출연금 잔액**은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계상된 누적 출연 금액으로, 당기수익과 구분됨. 출연금 잔액은 증가하더라도 손실 발생 등에 따라 자본총계의 증가폭은 달라질 수 있음
  - **자본금**은 주주의 출자 등을 통해 형성된 자본 항목으로, 출자기관을 기준으로 결산일 잔액과 연도별 증감액을 분석함. 자본금 변동은 당기수익과 구분되며, 주주의 출자나 무상증자·감자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증감액을 지자체의 신규 출자액으로 해석하지 않음
  - 재정지원 수익은 해당 연도의 수익 인식액, 자본 출연금은 결산일 누적 잔액으로 측정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합산하지 않음

[재정지원 분석 항목 및 집계 기준]

자료 구분	분석 항목	집계 기준
손익계산서	출연금수익	출연금수익과 영업외수익의 출연금을 합산
	보조금수익	보조금수익과 영업외수익의 보조금·지원금을 합산
재무상태표	출연금	결산일 현재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 잔액
	자본금	출자기관의 결산일 자본금 및 연도별 증감액

※ 국가·지자체 지원은 구분 없이 집계하며, 위탁·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대행사업수익은 재정지원 수익 집계에서 제외함

3. 재정지원 수익 현황

3.1 재정지원 수익의 규모 및 변화

○ 재정지원 수익의 분석 범위

- 손익계산서상 수익 인식액의 구분
  - 재정지원 수익은 출연금·보조금 중 해당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으로, 당해연도 사업·운영비용과 함께 당기손익에 반영됨. 실제 현금 수령액이나 재무상태표의 자본 출연금 잔액과는 구분됨
  - 기관별 수익 인식 위치의 차이를 반영하여, 출연금 관련 수익은 매출액에 포함된 출연금수익과 영업외수익의 출연금을 합산하고, 보조금 관련 수익은 보조금수익과 영업외수익의 보조금·지원금을 합산함

○ 재정지원 수익의 규모 및 증가 추이

- 5개년 재정지원 수익 변화
  - 재정지원 수익은 ’21 년 32,706 억원에서 ’25 년 53,317 억원으로 20,611 억원 증가하였으며, 기간 증감률은 63.0%임
  - 출연금 관련 수익은 같은 기간 17,293 억원에서 26,118 억원으로 51.0%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관련 수익은 15,413 억원에서 27,198 억원으로 76.5% 증가하여 출연금 관련 수익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5 년 재정지원 수익은 전년 대비 11,038 억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6.1%임. 이 중 보조금 관련 수익 증가액이 8,316 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75.3%를 차지하여 최근 지원 수익 확대를 주도함

[연도별 재정지원 수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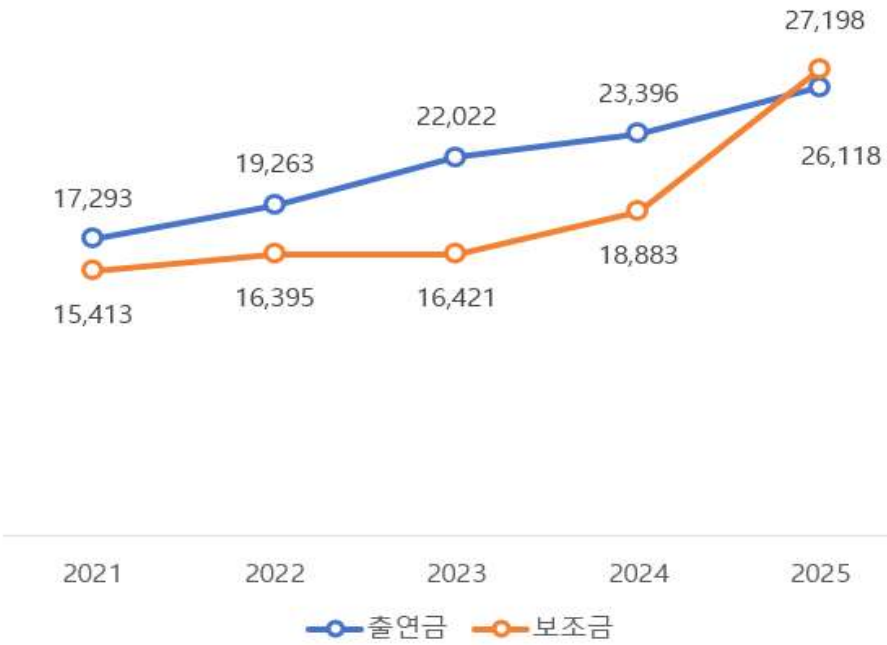
(단위: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간 증감률
출연금 관련 수익	17,293	19,263	22,022	23,396	26,118	51.0%
보조금 관련 수익	15,413	16,395	16,421	18,883	27,198	76.5%
전체	32,706	35,658	38,442	42,279	53,317	63.0%

※ 분석대상 864개 기관의 연도별 확보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함

※ 출연금 관련 수익은 출연금수익과 영업외 출연금, 보조금 관련 수익은 보조금수익과 영업외 보조금·지원금의 합계임

[출연금·보조금 관련 재정지원 수익 추이]



○ 재정지원 수익의 구성 변화

- 보조금 관련 수익 비중의 확대
  - 출연금 관련 수익의 비중은 ’21 년 52.9%에서 ’23 년 57.3%로 높아졌으나, 이후 보조금 관련 수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25 년에는 49.0%로 낮아짐
  - 보조금 관련 수익의 비중은 ’24 년 44.7%에서 ’25 년 51.0%로 6.3%p 상승하여 출연금 관련 수익 비중을 상회함. 출연금 관련 수익도 증가했으나, 보조금 관련 수익이 전년 대비 44.0% 증가하면서 지원 수익의 구성이 변화함

[연도별 재정지원 수익 구성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관련 수익	52.9%	54.0%	57.3%	55.3%	49.0%
보조금 관련 수익	47.1%	46.0%	42.7%	44.7%	51.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구성비는 각 항목의 수익을 전체 재정지원 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함

3.2 지방출자·출연기관별 재정지원 수익 현황

○ 지방출자·출연기관별 재정지원 수익

- 연도별 규모 및 변화
  - 출자기관 92 개와 출연기관 772 개를 구분하여 출연금·보조금 관련 수익을 집계함. ’25 년 출자기관은 116 억원, 출연기관은 53,201 억원으로, 출연기관이 전체 재정지원 수익의 99.8%를 차지함
  - 출연기관의 재정지원 수익은 ’21 년 대비 20,552 억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62.9%임. 출자기관의 증감률은 104.3%이나 증가액은 59 억원으로, 높은 증감률에는 기준연도의 작은 집계 규모가 반영됨

[지방출자·출연기관별 재정지원 수익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간 증감률
출자기관	57	62	69	59	116	104.3%
출연기관	32,649	35,596	38,374	42,220	53,201	62.9%
전체	32,706	35,658	38,442	42,279	53,317	63.0%

※ 재정지원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출연금수익·보조금수익과 영업외수익의 출연금·보조금·지원금을 합산함

○ 지방출자·출연기관별 지원 수익의 구성

- 출연금·보조금 구성의 차이
  - ’25 년 출자기관에서 집계된 재정지원 수익 116 억원은 모두 보조금 관련 수익임
  - 출연기관은 출연금 관련 수익이 26,118 억원, 보조금 관련 수익이 27,083 억원으로, 각각 49.1%, 50.9%를 차지함. 출연금 관련 수익의 비중은 ’24 년 55.4%에서 낮아졌으며, ’25 년에는 보조금 관련 수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지방출자·출연기관별 재정지원 수익 구성, ‘25년]

(단위:억원)

구분	출연금 관련 수익	보조금 관련 수익	전체	출연금 비중	보조금 비중
출자기관	0	116	116	0.0%	100.0%
출연기관	26,118	27,083	53,201	49.1%	50.9%
전체	26,118	27,198	53,317	49.0%	51.0%

※ 비중은 각 기관 구분의 재정지원 수익 합계 대비 해당 항목의 비율임

- 보조금 비중 확대의 의미
  - 보조금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원으로, 비중 확대는 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정책사업이 지원 수익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장학 유형에 포함된 인재평생교육기관은 대학지원·RISE 관련 사업도 수행하고 있어, 보조금 증가는 기존 장학사업뿐 아니라 정책사업 수행 범위의 확대를 반영함
  - 보조사업은 지원받은 재원을 해당 사업의 비용으로 집행하므로, 보조금 수익 증가가 기관에 남는 이익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지원 수익 확대에는 기관 자체의 운영 재원 증가와 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재원의 증가가 함께 반영됨

○ 총수익 대비 재정지원 수익 비중

- 수익 증가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여
  - 기관 전체 총수익에서 재정지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년 26.9%에서 '25 년 31.3%로 상승함. 이는 지원 수익이 다른 수익보다 빠르게 확대된 결과임
  - 출연기관의 총수익 대비 재정지원 수익 비중은 '21 년 31.9%에서 '25 년 36.2%로 4.3%p 상승함. 같은 기간 총수익 증가액의 46.1%가 출연금·보조금 관련 수익 증가에서 발생하여, 재정지원이 출연기관의 수익 확대를 뒷받침한 주요 재원으로 나타남
  - '25 년에도 출연기관 총수익 증가액의 41.1%가 재정지원 수익 증가에서 발생함. 앞서 확인한 보조금 확대와 연결하면, 최근 수익 증가는 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재원의 확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임
  - 반면 출자기관은 '25 년 해당 비중이 0.5%로, 지원 수익이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출연기관은 지원 재원과 사업비용의 대응 관계가, 출자기관은 사업수익과 원가·운영비의 관계가 손익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

[총수익 대비 재정지원 수익 비중]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자기관	0.3%	0.3%	0.3%	0.2%	0.5%
출연기관	31.9%	32.4%	34.0%	35.1%	36.2%
전체	26.9%	26.9%	27.8%	28.4%	31.3%

※ 총수익은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의 합계이며, 비중은 재정지원 수익을 총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함

3.3 사업 유형별 재정지원 수익 현황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재정지원 수익

- 지원 규모 및 주요 증가 요인
  - '25 년 출자기관의 재정지원 수익은 일자리 88 억원, 식품유통 19 억원, MICE 5 억원 순으로 나타남. 일자리 유형이 출자기관 전체 재정지원 수익의 75.9%를 차지함
  - 일자리 유형의 재정지원 수익은 '24 년 29 억원에서 '25 년 88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총수익 대비 비중은 26.6%임. 다른 출자기관 유형의 비중이 1.0% 미만인 것과 달리, 일자리 유형은 보조금이 사업 수행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됨
  - 대표적으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보조금수익은 '24 년 5 억원에서 '25 년 54 억원으로 증가함. 해당 기관의 보조금사업 확대가 일자리 유형의 지원 수익 증가에 크게 반영되어, 출자기관 전반의 지원 확대보다는 특정 유형과 기관에 집중된 변화로 나타남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재정지원 수익 현황]

(단위:억원)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5년 총수익 대비 비중
개발투자	0	3	1	0	0	0.0%
에너지환경	0	0	0	0	0	0.0%
MICE	10	12	6	10	5	0.2%
관광	2	1	4	3	3	0.8%
식품유통	45	41	31	16	19	0.5%
복지	0	1	1	0	0	0.0%
기타	0	0	2	1	1	0.6%
일자리	0	4	24	29	88	26.6%
전체	57	62	69	59	116	0.5%

※ 총수익은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의 합계이며, 비중은 해당 유형의 재정지원 수익을 총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함

※ 금액은 억원 단위로 반올림하므로 1억원 미만의 금액이 0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세부 금액의 합계와 전체 금액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출연기관 유형별 재정지원 수익

- 지원 규모와 증가가 집중된 유형
  - '25 년 출연기관의 재정지원 수익은 문화 14,889 억원, 기업지원 8,018 억원, 장학 6,559 억원 순으로 나타남. 세 유형이 출연기관 전체 재정지원 수익의 55.4%를 차지함

- ’21 년 대비 증가액은 장학 5,225 억원, 문화 4,742 억원, 연구 2,765 억원 순임. 특히 ’25 년 전년 대비 증가액은 장학 4,492 억원, 연구 2,106 억원으로, 두 유형이 출연기관 전체 증가액의 60.1%를 차지함
- 지원 규모와 총수익 대비 비중의 순위는 다르게 나타남. 문화는 지원 금액이 가장 크지만 비중은 65.2%이며, MICE·기타·국제교류·소상공인은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이는 지원 수익의 절대 규모와 기관의 수익 구조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재정지원 수익 현황]

(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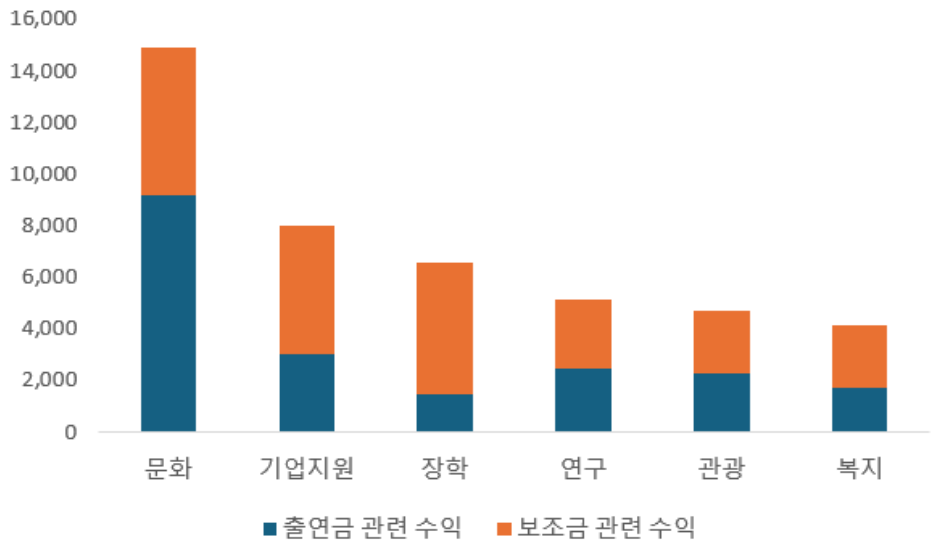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5년 총수익 대비 비중
신용보증	325	562	664	878	948	12.6%
테크노파크	211	224	281	246	281	1.3%
장학	1,334	1,653	1,760	2,066	6,559	48.5%
기업지원	5,522	6,549	6,774	7,456	8,018	37.8%
문화	10,147	10,877	12,633	13,581	14,889	65.2%
의료	3,284	2,169	770	1,112	1,228	6.4%
연구	2,367	2,616	2,822	3,026	5,132	47.0%
복지	2,374	2,624	3,216	3,830	4,120	66.4%
스포츠	363	525	599	572	635	56.4%
관광	2,428	3,177	3,810	4,151	4,717	71.0%
여성청소년	1,809	2,115	2,309	2,606	2,862	63.0%
식품유통	499	408	515	605	653	10.8%
기타	308	373	384	179	558	81.5%
일자리	517	516	598	547	635	35.3%
평생교육	306	307	307	317	415	47.9%
에너지환경	134	138	157	261	545	48.4%
박람회	57	0	72	0	20	15.4%
소상공인	410	463	394	429	535	78.4%
종합지원	97	104	101	105	161	41.2%
국제교류	90	99	123	164	177	79.7%
MICE	68	94	85	87	115	96.3%
전체	32,649	35,596	38,374	42,220	53,201	36.2%

○ 주요 유형의 지원 수익 구성

- 사업 특성과 지원 방식에 따른 차이

  - 문화는 출연금 관련 수익이 9,155 억원으로 유형 내 재정지원 수익의 61.5%를 차지함. 문화시설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등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재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들이 유형 전체의 구성에 반영됨
  - 기업지원은 보조금 관련 수익의 비중이 62.4%이나, 같은 유형 안에서도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음. '25 년 서울경제진흥원은 출연금 관련 수익이 600 억원인 반면, 부산경제진흥원은 보조금 관련 수익이 1,264 억원으로 집계됨. 유형별 재원 구성에는 사업 분야뿐 아니라 기관별 지원 방식과 수익 분류의 차이도 반영됨
  - 장학은 보조금 관련 수익의 비중이 77.7%로 높음. 경북·전남의 인재평생교육기관 등 대학지원·평생교육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의 지원 수익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비중을 장학금 지급 사업만의 재원 특성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2025년 주요 출연기관 유형의 재정지원 수익 구성]



(단위:억원)

유형	출연금 관련 수익	보조금 관련 수익	전체	보조금 비중
문화	9,155	5,734	14,889	38.5%
기업지원	3,015	5,003	8,018	62.4%
장학	1,465	5,094	6,559	77.7%
연구	2,438	2,694	5,132	52.5%
관광	2,273	2,444	4,717	51.8%
복지	1,714	2,406	4,120	58.4%

※ '25년 재정지원 수익 규모 상위 6개 출연기관 유형을 제시함

○ **사업 확대와 수익 인식 방식이 지원 수익에 미치는 영향**

- 연구 유형의 주요 기관 사례
  - 연구 유형의 ’25 년 재정지원 수익 증가액 2,106 억원 중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의 증가액이 1,897 억원으로 90.1%를 차지함. 해당 기관의 대학지원·RISE 관련 사업 확대가 반영되어, 연구 유형 전체의 증가를 기존 연구사업에 대한 운영지원 확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은 보조금을 수령할 때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사업비를 지출할 때 보조금수익과 연구사업비를 인식함. 이에 따라 ’25 년 보조금수익 1,989 억원은 사업비 집행과 연결된 금액으로, 기관에 남는 이익이나 미사용 재원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음
  - 이처럼 유형별 지원 수익의 증가는 기관 운영재원 확대, 신규 정책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에 따른 수익 인식이 함께 반영된 결과임. 특히 일부 대규모 기관의 사업 범위가 확대된 경우, 해당 변화가 유형 전체의 증가를 주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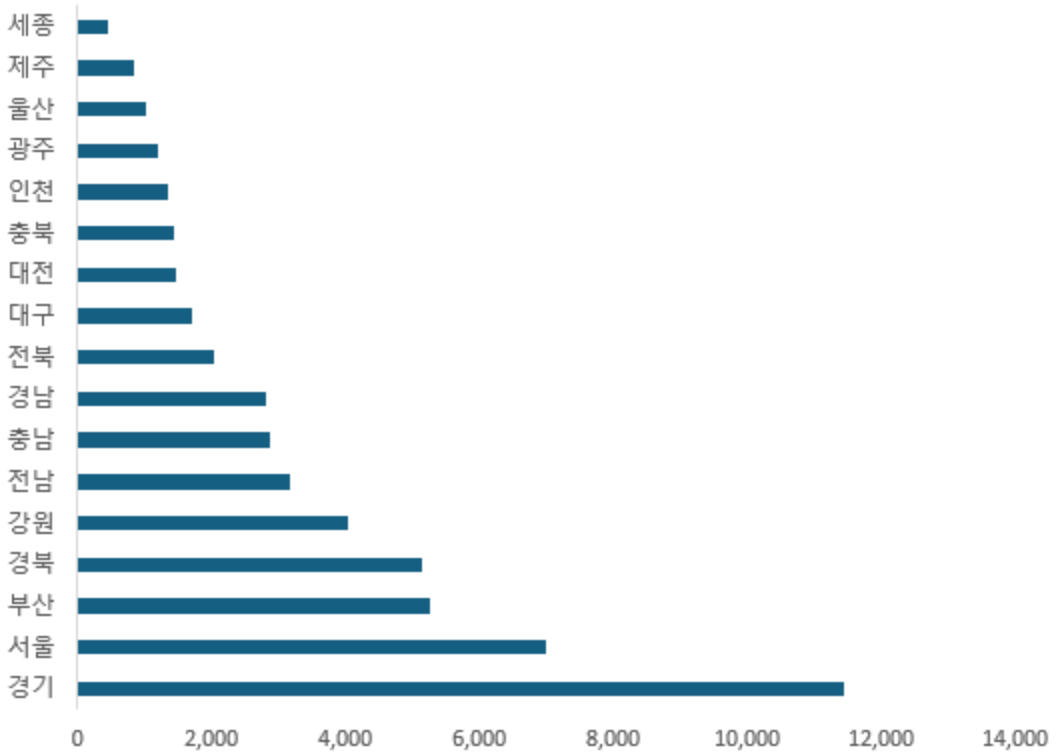
3.4 지역별 재정지원 수익 현황

○ 지역별 재정지원 수익의 규모 및 구성

- 지원 규모와 총수익 대비 비중
  - ’25 년 재정지원 수익은 경기 11,453 억원, 서울 6,995 억원, 부산 5,273 억원, 경북 5,135 억원 순으로 나타남. 경기와 서울이 전체 재정지원 수익의 34.6%를 차지함
  - 총수익 대비 재정지원 수익 비중은 부산 57.2%, 광주 45.0%, 서울 43.7% 순으로 높음. 경기는 지원 규모가 가장 크지만 총수익 대비 비중은 31.8%로, 지역별 지원 금액의 규모와 수익구조에서 차이가 나타남
  - 부산은 연구와 기업지원 유형이 지역 재정지원 수익의 각각 41.4%, 26.7%를 차지함. 대학지원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전체의 지원 수익과 총수익 대비 비중을 함께 높임

[2025년 지역별 재정지원 수익 규모]

(단위:억원)



[지역별 재정지원 수익 현황]

(단위:억원)

지역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5년 총수익 대비 비중
서울	5,308	5,397	6,442	6,576	6,995	43.7%
부산	2,517	2,813	2,541	3,157	5,273	57.2%
대구	670	941	1,650	1,602	1,711	27.0%
인천	899	1,072	1,199	1,225	1,356	17.0%
광주	770	1,130	1,236	1,208	1,208	45.0%
대전	576	786	896	1,107	1,474	32.4%
울산	827	871	966	957	1,035	29.3%
세종	224	351	412	404	467	21.4%
경기	9,407	9,647	9,206	10,097	11,453	31.8%
강원	2,689	3,203	3,384	3,793	4,051	33.9%
충북	914	969	991	1,160	1,435	15.5%
충남	1,666	1,999	2,156	2,516	2,862	22.2%
전북	1,262	1,388	1,535	1,807	2,029	22.7%
전남	1,309	1,365	1,633	1,843	3,182	36.8%
경북	1,327	1,321	1,485	1,801	5,135	36.0%
경남	1,724	1,950	2,006	2,275	2,810	22.0%
제주	618	455	706	752	839	25.5%
전체	32,706	35,658	38,442	42,279	53,317	31.3%

※ 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액을 의미하지 않음

○ **주요 지역의 지원 수익 형성 요인**

- 경기·서울의 기관 분포와 사업 구성
  - 경기는 분석대상 기관이 155 개로 가장 많으며, 문화·여성청소년·기업지원 유형에 각각 26 개·24 개·13 개 기관이 분포함. 해당 유형의 지원 수익은 각각 3,516 억원, 1,835 억원, 1,351 억원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문화·청소년·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역 전체 규모를 형성함
  - 서울은 분석대상 기관이 66 개로 경기보다 적지만, 문화 유형의 지원 수익이 3,118 억원으로 지역 전체의 44.6%를 차지함. 복지 879 억원, 관광 658 억원 등도 포함되어, 문화기관과 주요 공공서비스 수행기관의 지원 규모가 지역 합계에 크게 반영됨
  - 이에 따라 경기의 큰 지원 규모는 많은 기관 수와 여러 사업 분야의 분포가, 서울은 문화 유형을 중심으로 한 지원 수익의 집중이 주요 특징임. 기관 수만으로 지역별 지원 규모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움

○ **지역별 재정지원 수익 증가의 주요 요인**

- 증가가 집중된 유형 및 기관
  - 경북은 '21 년 대비 3,807 억원 증가하여 지역 중 가장 큰 증가액을 나타냄. 장학 유형이 2,748 억원 증가하였으며,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의 증가액이 2,759 억원으로 지역 전체 증가를 주도함
  - 부산은 같은 기간 2,756 억원 증가하였으며, 연구 유형이 1,831 억원, 기업지원 유형이 815 억원 증가함.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과 부산경제진흥원의 사업 확대가 두 유형의 증가에 크게 반영됨
  - 전남은 1,873 억원 증가하였으며, 장학 유형의 증가액이 1,346 억원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증가액이 1,257 억원으로, 경북과 마찬가지로 대학지원 등을 함께 수행하는 인재평생교육기관의 변화가 지역 전체 증가에 크게 기여함

[주요 지역의 재정지원 수익 증가 요인]

(단위:억원)

지역	지역 증가액	증가 유형	유형 증가액	주요 증가 기관	기관 증가액
경북	3,807	장학	2,748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2,759
부산	2,756	연구	1,831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1,800
		기업지원	815	부산경제진흥원	695
전남	1,873	장학	1,346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1,257

3.5 재정지원 수익과 손익구조의 연계 분석

○ 재정지원 수익 확대와 손익 변화

- 재정지원 규모와 손익구조의 관계
  - 재정지원 수익은 ’21 년 3 조 2,706 억원에서 ’25 년 5 조 3,317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당기순손익은 3,843 억원의 이익에서 1 조 626 억원의 손실로 전환됨. 지원 수익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용도 증가하여, 지원 규모 증가가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음
  - 공공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의 지원 수익은 관련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재원임. 특히 사업비 집행에 따라 보조금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사업 확대와 함께 수익과 비용이 증가하므로, 지원 수익 증가가 기관에 남는 이익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은 ’25 년 보조금수익 1,989 억원과 수탁사업비 1,985 억원을 계상함. 보조금을 선수금으로 수령한 뒤 사업비 집행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구조로, 지원 수익 확대에는 정책사업 수행 규모의 증가가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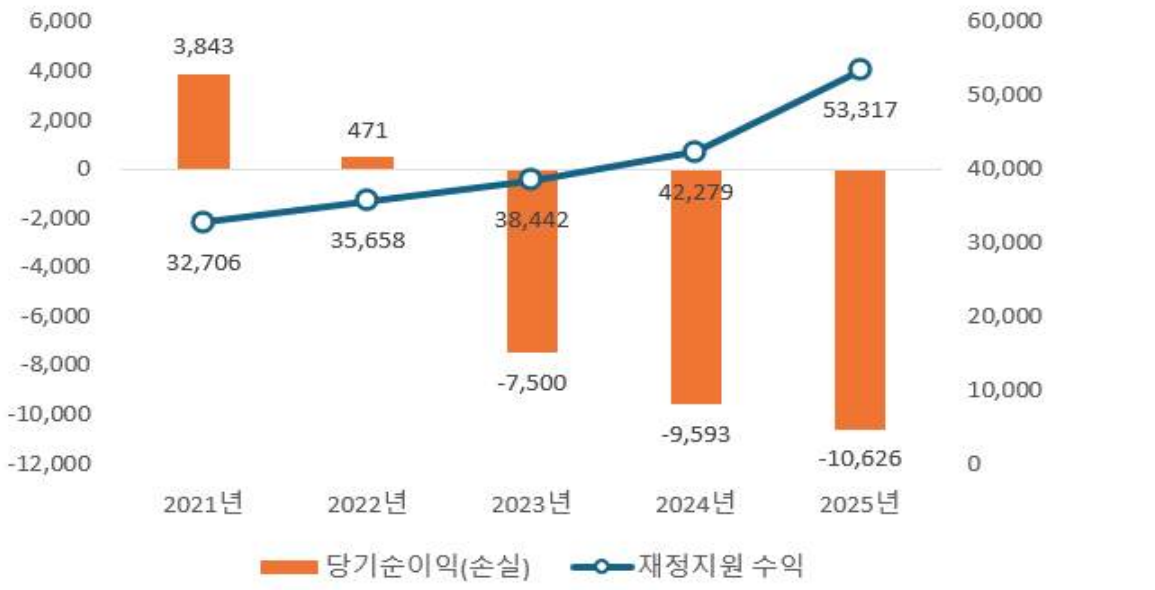
[재정지원 수익과 당기순손익의 연도별 비교]

(단위: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정지원 수익	32,706	35,658	38,442	42,279	53,317
당기순손익	3,843	471	-7,500	-9,593	-10,626

[재정지원 수익 및 당기순손익 추이]

(단위:억원)



○ **주요 유형의 재정지원 수익과 손익구조**

- 높은 지원 비중과 비용 충당 구조
  - '25 년 출연기관 복지·장학의 재정지원 수익 비중은 각각 66.4%, 48.5%이며, 당기순이익은 각각 64 억원, 334 억원임. 지원 수익이 포함된 총수익으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이므로, 높은 지원 비중 자체를 재무건전성 취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지원 비중보다 수익·비용의 차이가 결정하는 손익
  - 문화의 재정지원 수익 비중은 65.2%로 복지의 66.4%와 유사하나, 당기순손실은 105 억원으로 나타남. 문화는 총수익 2 조 2,834 억원에 비해 총비용이 2 조 2,939 억원으로 커 손실이 발생함. 지원 비중이 유사하더라도 사업별 수익과 비용의 구성에 따라 손익은 다르게 나타남

- 손실 집중 유형과 자본 출연금의 구분
  - 신용보증·의료·테크노파크의 재정지원 수익 비중은 각각 12.6%, 6.4%, 1.3%이나, 세 유형의 당기순손실 합계는 1 조 667 억원으로 출연기관 전체 당기순손실의 98.4%에 해당함. 손익계산서상 지원 비중이 낮은 유형에서도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지원 비중과 손익 간에 일률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음
  -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이 주요 재원을 구성함. '25 년 당기순손실 7,472 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출연금 잔액은 전년 대비 1 조 1,135 억원 증가하였고, 자본총계도 3,564 억원 증가함. 자본으로 수령한 출연금은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손실 발생과 자본 확충이 동시에 나타남

[2025년 주요 유형별 재정지원 수익과 당기순손익 비교]

(단위:억원)

기관 구분	유형	재정지원 수익	당기순손익	총수익 대비 지원 수익 비중
출자	일자리	88	7	26.6%
출연	문화	14,889	-105	65.2%
출연	복지	4,120	64	66.4%
출연	장학	6,559	334	48.5%
출연	신용보증	948	-7,472	12.6%
출연	의료	1,228	-1,690	6.4%
출연	테크노파크	281	-1,504	1.3%

※ 지원 수익과 손익구조의 차이가 나타나는 주요 유형을 선정하였으며, 장학은 분석대상 전체 장학기관 기준임

4. 출연금 잔액 현황

4.1 출연금 잔액의 규모 및 변화

○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의 의미

- 출연금수익과 출연금 잔액의 구분
  - 출연금수익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손익에 반영되는 반면,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은 수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을 형성함. 이에 따라 출연기관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본으로 계상되는 출연금의 증가 등에 의해 자본총계가 증가할 수 있음
  - 출연금 잔액은 결산일 현재 자본에 계상된 금액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수령액이나 사용 가능한 현금 잔액을 의미하지 않음. 연도별 잔액 증감에는 출연금 추가 수령뿐 아니라 반환·계정 대체·집계 범위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음

○ 출연금 잔액의 지속적인 증가

- 5개년 잔액 변화와 주요 증가 요인
  - 출연기관의 출연금 잔액은 ’21 년 11 조 7,004 억원에서 ’25 년 16 조 5,749 억원으로 4 조 8,745 억원 증가함. 기간 증가율은 41.7%이며, 분석 기간 동안 매년 잔액이 증가함
  - ’25 년 출연금 잔액은 전년 대비 1 조 1,832 억원 증가함. 이 중 신용보증재단의 증가액이 1 조 1,135 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94.1%를 차지하여, 최근 잔액 증가는 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나타남

○ 출연금 잔액과 자본총계의 관계

- 누적 손익 등이 반영된 자본 형성 구조
  - 출연금 잔액은 ’21 년부터 ’25 년까지 4 조 8,745 억원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자본총계 증가액은 1 조 5,533 억원임. 출연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당기순손실 누적과 기타 자본 항목의 변동이 함께 반영되어, 출연금 잔액과 자본총계의 증가 규모에 차이가 나타남
  - ’25 년에는 당기순손실 1 조 838 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2,545 억원 증가함. 출연금 잔액 증가가 손실에 따른 자본 감소를 보완하는 구조로, 당기순손실의 발생과 자본규모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남

[출연금 잔액 추이]

(단위:억원)



[출연기관의 출연금 잔액 및 자본 변화]

(단위: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잔액	117,004	128,352	142,347	153,917	165,749
전년 대비 증감액	—	11,348	13,995	11,570	11,832
전년 대비 증감률	—	9.70%	10.90%	8.10%	7.70%
자본총계	135,759	146,377	147,230	148,746	151,292
당기순이익(손실)	3,245	-660	-8,447	-10,842	-10,838

※ 출연금 잔액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 집계액이며, 자본총계와 당기순손익은 분석대상 출연기관 전체 기준임

※ 출연금 잔액의 증감은 당해연도 신규 출연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과거연도 공시·집계 범위의 변화가 포함될 수 있음

4.2 기관 구분 및 사업 유형별 출연금 잔액 현황

○ 지방출자·출연기관별 출연금 잔액

- 출연기관에 집계된 자본 출연금
  -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 잔액은 출연기관에서 ’21 년 11 조 7,004 억원, ’25 년 16 조 5,749 억원으로 집계됨. 손익계산서의 재정지원 수익과 별도로 자본을 형성하는 출연 재원이 존재함
  - 출자기관은 해당 출연금 계정의 집계액이 없어 미집계로 표시함. 출자기관의 자본금은 5 절에서 별도로 분석하며, 아래 표의 기관 구분 간 차이는 전체 재정지원이나 자본 규모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음

[지방출자·출연기관별 출연금 잔액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자기관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출연기관	117,004	128,352	142,347	153,917	165,749
전체	117,004	128,352	142,347	153,917	165,749

※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 잔액이며, 손익계산서의 출연금 관련 수익과 합산하지 않음
※ 미집계는 해당 계정의 집계액이 없음을 의미하며, 출자금 등 자본 지원이 없다는 의미는 아님

○ 유형별 출연금 잔액 변화

- ’21 년부터 ’25 년까지 전체 출연금 잔액은 4 조 8,745 억원 증가하였으며, 신용보증의 증가액이 4 조 810 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3.7%를 차지함. 테크노파크와 장학도 각각 3,814 억원, 1,602 억원 증가함
- ’25 년에는 신용보증과 테크노파크의 잔액이 전년 대비 각각 1 조 1,135 억원, 1,286 억원 증가한 반면, 문화는 681 억원, 연구는 142 억원 감소함. 전체 잔액의 증가가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님

○ 출연금 잔액의 유형별 분포

- 신용보증·테크노파크에 집중된 자본 출연금
  - ’25 년 출연금 잔액은 신용보증 10 조 6,204 억원, 테크노파크 3 조 2,943 억원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84.0%를 차지함. 다음으로 기업지원 8,627 억원, 장학 6,136 억원 순이며,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은 일부 유형에 집중되어 있음
  - 재정지원 수익은 문화·기업지원·장학 순으로 규모가 크지만, 자본의 출연금 잔액은 신용보증·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형성됨. 당해연도 사업비·운영비를 충당하는 지원과 자본을 형성하는 지원의 유형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남

○ 수익과 자본으로 구분되는 지원 구조

- 출연금 잔액 규모와 지원 수준의 차이
  - 문화는 '25 년 재정지원 수익이 1 조 4,889 억원으로 출연기관 중 가장 크지만, 자본의 출연금 잔액은 2,690 억원임. 반면 신용보증은 재정지원 수익이 948 억원이나 출연금 잔액은 10 조 6,204 억원으로, 손익계산서의 지원 수익만으로는 자본을 통한 재원 확충 규모가 드러나지 않음
  - 따라서 출연금 잔액이 적다는 사실을 재정지원 부족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지원이 수익 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방식과 자본 내 계정 분류의 차이가 유형별 잔액에 반영됨

[출연기관 유형별 출연금 잔액 현황]

(단위:억원)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용보증	65,394	74,468	86,405	95,070	106,204
테크노파크	29,129	29,409	29,120	31,657	32,943
장학	4,534	5,315	5,722	6,049	6,136
기업지원	7,470	7,800	8,547	8,524	8,627
문화	1,884	2,607	3,596	3,371	2,690
의료	0	0	0	0	0
연구	2,860	2,892	2,866	3,016	2,874
복지	990	1,064	1,245	1,293	1,320
스포츠	3,096	3,096	3,096	3,098	3,111
관광	434	417	453	461	476
여성·청소년	152	141	156	164	170
식품유통	347	366	358	358	360
기타	392	392	392	393	393
일자리	54	117	117	186	161
평생교육	8	8	8	8	8
에너지·환경	101	102	103	106	106
박람회	127	127	127	127	127
소상공인	2	2	2	2	2
종합지원	2	2	2	3	3
국제교류	22	23	28	27	31
MICE	5	5	5	5	8
전체	117,004	128,352	142,347	153,917	165,749

4.3 지역별 출연금 잔액 현황

○ 지역별 출연금 잔액의 변화

- 주요 기관의 잔액 증가
  - ’21 년 대비 잔액은 경기 8,089 억원, 경북 7,926 억원, 서울 5,730 억원 증가함. 경기와 서울은 신용보증재단의 잔액 증가가 각각 지역 전체 증가액의 95.3%, 96.6%를 차지함

- 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별 잔액
  - ’25 년 출연금 잔액은 경기 3 조 1,275 억원, 서울 2 조 1,639 억원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함. 각 지역 잔액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 74.9%, 서울 94.6%로, 지역별 규모는 주요 기관의 자본 출연금에 크게 영향을 받음
  - 경북의 출연금 잔액 증가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자료가 ’23 년부터 집계된 영향이 포함되어, 전체 증가액을 해당 기간의 신규 출연액으로 해석하지 않음

[지역별 출연금 잔액 현황]

(단위:억원)

지역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서울	15,910	17,754	18,948	20,089	21,639
부산	6,296	7,142	7,857	8,755	9,799
대구	5,691	6,523	7,040	7,844	8,827
인천	5,665	6,209	7,378	7,868	7,714
광주	5,968	6,395	6,809	7,271	7,798
대전	4,258	4,556	5,055	5,625	6,182
울산	4,069	2,933	3,056	3,214	3,418
세종	606	944	1,173	1,349	1,444
경기	23,186	25,950	28,094	29,669	31,275
강원	5,686	6,137	6,476	6,707	6,999
충북	7,092	7,599	8,244	8,739	9,299
충남	6,988	7,768	8,753	10,403	11,357
전북	5,085	5,493	6,048	6,531	7,126
전남	6,940	7,840	8,399	9,004	9,507
경북	3,390	4,039	8,880	9,881	11,316
경남	7,207	7,791	6,670	7,299	8,092
제주	2,967	3,278	3,466	3,669	3,958
전체	117,004	128,352	142,347	153,917	165,749

※ 지역은 분석대상 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만을 의미하지 않음

4.4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구성과 자본 변화

○ 보증 재원을 형성하는 출연금

- 정부·지자체 및 금융기관의 출연 구조
  -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정부·지자체와 금융기관 등이 보증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구조임.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은 당해연도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보증 공급과 손실 부담을 뒷받침하는 자본 기반을 형성함
  - 금융기관은 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소상공인에 대출을 공급하고, 재단은 보증 범위 내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함. 금융기관 출연금은 이러한 보증제도의 재원을 금융기관도 분담하는 장치이며, 법정출연과 협약에 따른 출연 등으로 조성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재원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정부·지자체 출연금	지역 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 확충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부 대출과 연계된 보증 재원 분담 및 협약보증 지원

○ 출연금 잔액 증가와 자본 확충

- 당기순손실과 자본 증가의 동시 발생
  - 출연금 잔액은 ’21 년 6 조 5,394 억원에서 ’25 년 10 조 6,204 억원으로 증가함. ’25 년에는 출연기관 전체 출연금 잔액의 64.1%를 차지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전체 자본 출연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침
  - ’25 년 당기순손실은 7,472 억원이나, 출연금 잔액이 전년 대비 1 조 1,135 억원 증가하면서 자본총계도 3,564 억원 증가함. 출연금 잔액 증가가 손실에 따른 자본 감소를 보완하여, 당기순손실 발생에도 자본규모는 확대됨
  -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은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수익과 달리 자본을 직접 확충하는 재원임.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의 당기순손실은 손익상 비용 부담을 나타내지만, 이를 자본규모 축소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음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잔액 및 자본 변화]

(단위: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잔액	65,394	74,468	86,405	95,070	106,204
전년 대비 증감액	—	9,074	11,936	8,665	11,135
당기순이익(손실)	-1,756	-2,539	-6,052	-8,131	-7,472
자본총계	50,402	56,967	59,307	59,866	63,430

5. 출자기관 자본금 현황

5.1 자본금 규모 및 유형별 현황

○ 분석 범위 및 자본금의 의미

- 출자기관 92 개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본금의 규모와 변화를 분석함. 자본금에는 지방자치단체 외 다른 주주의 출자분도 포함되므로, 자본금 전체나 증감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으로 해석하지 않음
- 자본금은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자본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당해연도 비용을 충당하는 재정지원 수익과 구분됨. 또한 누적 손익 등이 반영된 자본총계와 달리, 자본금 증감만으로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전체 규모 및 유형별 변화

- 자본금 규모의 확대
  - 자본금 집계액은 '21 년 1 조 6,829 억원에서 '25 년 2 조 912 억원으로 증가함. 다만 과거 연도에는 일부 기관의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5 개년 집계액의 변화에는 자료 확인 범위의 차이가 반영됨
  - '25 년 자본금은 전년 대비 1,723 억원 증가하여 9.0%의 증가율을 보임. MICE 가 1,172 억원, 개발투자가 527 억원 증가하여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함

- MICE 중심의 자본금 구성
  - '25 년 MICE 의 자본금은 1 조 3,383 억원으로 전체의 64.0%를 차지함. 개발투자 2,996 억원, 에너지·환경 1,702 억원 순으로, 기관 수가 가장 많은 개발투자보다 MICE 에 자본금이 집중된 구조임
  - 관광·에너지·환경·일자리·기타·복지는 전년과 자본금 규모가 동일하여, 전체 자본금 증가는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보다 일부 유형의 자본금 확대에 집중됨

[출자기관 유형별 자본금 현황]

(단위:억원)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년 대비 증감액
MICE	11,269	11,638	11,698	12,211	13,383	1,172
관광	1,198	1,198	1,198	1,213	1,213	0
식품유통	1,408	1,318	1,424	1,424	1,449	24
에너지·환경	1,289	1,352	1,652	1,702	1,702	0
개발투자	1,496	1,506	1,506	2,469	2,996	527
일자리	15	15	15	15	15	0
기타	55	55	55	55	55	0
복지	100	100	100	100	100	0
전체	16,829	17,182	17,648	19,188	20,912	1,723

5.2 주요 기관의 자본금 증감 현황

○ 일부 기관에 집중된 자본금 증가

- ’25 년 자본금 증가는 킨텍스, 강원중도개발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집중됨. 세 기관의 증가액은 총 1,788 억원으로, 다른 기관의 증가·감소와 자료 확인 범위 변화를 반영한 전체 증가액 1,723 억원을 상회함
- 킨텍스는 976 억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196 억원 증가하여 MICE 유형의 자본금 확대를 이끌었으며, 강원중도개발공사는 617 억원 증가하여 개발투자 유형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자본금 감소 및 자료 확인 범위 변화

- 김해테크노밸리의 자본금은 ’24 년 100 억원에서 ’25 년 10 억원으로 90 억원 감소함. 자본금 감소에는 유상감자나 결손 보전 등 서로 다른 거래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감소액을 출자금 회수나 현금 유출로 단정하지 않음
- 제 2 생극산업단지는 ’24 년 자본금이 공란이고 ’25 년에는 5,000 만원이 확인됨. 이는 전년도 금액과 비교할 수 없는 자료로, 실제 자본금 증가가 확인된 기관과 구분함

[출자기관 주요 자본금 변동 현황]

(단위:억원)

유형	기관명	2024년	2025년	증감액	증감률
MICE	킨텍스	6,534	7,510	976	14.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197	2,393	196	8.9%
개발투자	강원중도개발공사	517	1,133	617	119.3%
	김해테크노밸리	100	10	-90	-90.0%
식품유통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60	76	16	26.3%
	경북통상	33	41	8	25.7%
개발투자	제2생극산업단지	-	1	-	-

○ 자본금 확대와 손익 개선의 구분

- ’25 년 자본금 증가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출자기관 전반의 자본 확충보다 개별 기관의 자본금 변동이 전체 규모 확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남
- 자본금 증가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증가와는 구분되며, 손실이 발생한 기관도 자본금 확충으로 자본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음. 따라서 자본금 확대는 수익성 개선보다 무상증자 등도 가능하므로 자본금 계정의 규모 변화로 해석함

Part Ⅱ.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 및 손익현황 분석

1. 재무 및 손익현황 분석 체계

1.1 분석 개요 및 지표 구성 체계

○ 재무 및 손익현황의 분석 목적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자산·부채·자본 및 수익·비용·손익의 변화를 살펴보고, 재무구조와 경영성과의 특성을 파악함
- 출자·출연 구분과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현황을 비교하고, 주요 지표의 변화와 관련 재무항목을 함께 검토함

○ 분석 범위 및 지표 구성

- 분석 대상 및 기간
  - Part Ⅰ에서 선정한 864개 기관을 대상으로 '21~'25년 결산자료를 활용

- 재무지표 구성 체계
  - 재무현황을 **수익성·성장성·수지비율·재무건전성·활동성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전체 16개 지표 중 수익성, 수지균형 및 재무안정성을 중심으로 8개 핵심지표를 선정함

[재무 및 손익현황 분석 지표 구성]

구분	주요 지표	분석 목적
수익성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자본·자산 대비 이익 창출 수준 파악
성장성지표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사업 규모와 경영성과의 변화 파악
수지비율	총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영업수지비율	수익과 비용의 대응 관계 및 수지균형 파악
재무건전성지표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단기 지급능력, 자본구조 및 이자 부담 대응능력 파악
활동성지표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을 활용한 매출 창출 수준 파악

1.2 재무지표의 산식 및 적용 기준

○ 재무지표의 산정 기준

- 기관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재무지표를 산정하며, 금액 항목의 범위와 산식을 통일하여 연도별·유형별 비교의 일관성을 확보함

[재무지표별 산식 및 적용 기준]

구분	지표	산식
수익성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 100$
	매출액순이익률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 100$
	자기자본순이익률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 100$
	총자산순이익률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 * 100$
성장성지표	매출성장률	$\frac{\text{금년매출} - \text{전년매출}}{\text{전년매출}} * 100$
	총자산성장률	$\frac{\text{금년총자산} - \text{전년총자산}}{\text{전년총자산}} * 100$
	영업이익성장률	$\frac{\text{금년영업이익} - \text{전년영업이익}}{\text{전년영업이익}} * 100$
수지비율	총수지비율	$\frac{\text{총수익}}{\text{총비용}} * 100$
	경상수지비율	$\frac{(\text{영업수익} + \text{영업외수익})}{(\text{영업비용} + \text{영업외비용})} * 100$
	영업수지비율	$\frac{\text{영업수익}}{\text{영업비용}} * 100$
재무건전성 지표	유동비율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 100$
	자기자본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 100$
	부채비율	$\frac{\text{부채총계}}{\text{자기자본}} * 100$
	이자보상배율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활동성지표	총자본회전율	$\frac{\text{매출액}}{\text{총자본}}$
	자기자본회전율	$\frac{\text{매출액}}{\text{자기자본}}$

※ 영업수익은 매출액,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임. 총수익은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의 합계이며, 총비용은 영업비용·영업외비용·법인세의 합계임.

※ 노란색 음영은 본 분석에서 선정한 8개 핵심지표를 의미함

1.3 핵심지표 선정 및 분석 방향

○ 핵심지표 선정 취지

- 수익성·수지균형·재무안정성의 종합 검토
  - 기관의 이익 창출 수준, 수익을 통한 비용 충당 수준 및 채무 부담 대응능력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8개 핵심지표를 선정함
  - 부채비율 중심의 분석을 보완하고, 손익 악화와 유동성 부족 등 서로 다른 재무위험 요인을 함께 확인함

[핵심지표 선정 및 활용 목적]

구분	핵심지표	선정 이유 및 활용 목적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통해 주된 사업활동의 수익성과 비용 부담을 파악
	매출액순이익률	영업외손익 등을 포함한 최종 이익 수준을 확인하고, 영업성과와 최종 손익의 차이를 검토
	총자산순이익률	보유 자산 대비 이익 창출 수준을 통해 자산 규모와 경영성과의 관계를 파악
수지균형	총수지비율	총수익으로 총비용을 충당하는 정도를 확인하여 기관 전체의 수지균형을 파악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의 대응 관계를 통해 주된 사업활동의 수지구조를 파악
재무안정성	유동비율	단기 채무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규모를 확인하여 단기 지급능력을 파악
	부채비율	자기자본 대비 부채 부담을 확인하여 자본구조와 재무안정성을 파악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하여 이자 부담 대응능력을 파악

○ 핵심지표의 분석 방향

- 지표 간 연계 분석
  -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비교하여 영업외손익이 최종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총수지비율과 영업수지비율을 통해 전체 수지와 영업 수지의 차이를 확인함
  -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자보상배율을 함께 검토하여 부채 부담, 단기 지급능력 및 이자 부담 대응능력을 구분하여 파악함

- 사업 특성을 고려한 해석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익률만으로 재무건전성을 판단하지 않고, 지표 악화 시 수익·비용 및 자산·부채의 변동을 함께 검토하여 주요 원인을 분석함

1.4 재무자료 집계 및 비교 기준

○ 재무자료의 집계 기준

- 합산 금액을 활용한 전체 및 유형별 분석
  - 전체 및 유형별 재무지표는 개별 기관 지표의 단순평균 대신, 해당 기관들의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합산한 후 산정함
  - 예를 들어 전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합계액을 매출액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는 기관별 영업이익률에 각 기관의 매출액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한 가중평균과 동일함

[재무지표 집계 방식 비교]

구분	개별 기관 지표의 단순평균	합산 금액 기준
산정 방식	기관별 지표를 산정한 후 산술평균	분자·분모 금액을 각각 합산한 후 비율 산정
주요 의미	기관별 지표 수준의 평균	전체 또는 유형의 합산 재무구조
특징	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 적용	해당 지표의 분모 금액이 큰 기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
유의사항	분모가 작은 기관의 극단값이 평균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개별 기관의 차이와 취약성이 합산 결과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활용	기관별 분포를 설명하는 보조 분석	전체 및 유형별 재무현황의 기본 분석

○ 비교 및 해석 기준

- 분석 대상의 변화와 기관 규모 차이
  - 연도별 자료 확보 여부와 신규 설립 등에 따라 분석에 포함되는 기관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 추이와 함께 연도별 분석 기관 수를 제시함
  - 합산 금액과 지표의 변화가 특정 대규모 기관의 영향을 받는 경우, 주요 기관의 변동을 함께 확인하여 해석함

- 특이값 및 산출 불가 지표의 처리
  - 분모가 0 이거나 산식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표를 0 으로 처리하지 않고 산출 불가로 구분함
  - 자본잠식 기관의 부채비율은 음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표 값과 함께 자본상태를 별도로 확인함
  - 전기 영업이익이 음수이거나 흑자·적자 전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가율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손익 금액과 전환 여부를 함께 제시함

2. 재무 및 손익 규모 현황

2.1 자산 현황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자산 규모 및 변화

- 분석대상 864 개 기관 중 연도별 재무자료가 확보된 기관의 자산을 집계함. ’25 년 자산총계는 265,153 억원으로, ’21 년 집계액 대비 22,718 억원 증가함
- 출자기관의 자산은 ’21 년 70,090 억원에서 ’25 년 69,602 억원으로 0.7% 감소한 반면, 출연기관은 같은 기간 172,345 억원에서 195,551 억원으로 13.5% 증가함
- ’25 년 전체 자산은 전년 대비 3,094 억원 증가함. 출자기관은 441 억원 감소하고 출연기관은 3,536 억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자산에서 출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73.8%임

[지방출자·출연기관 자산 규모 추이]



(단위: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률
전체	242,435	259,999	261,561	262,059	265,153	9.4%
출자기관	70,090	73,794	71,935	70,043	69,602	-0.7%
출연기관	172,345	186,205	189,625	192,016	195,551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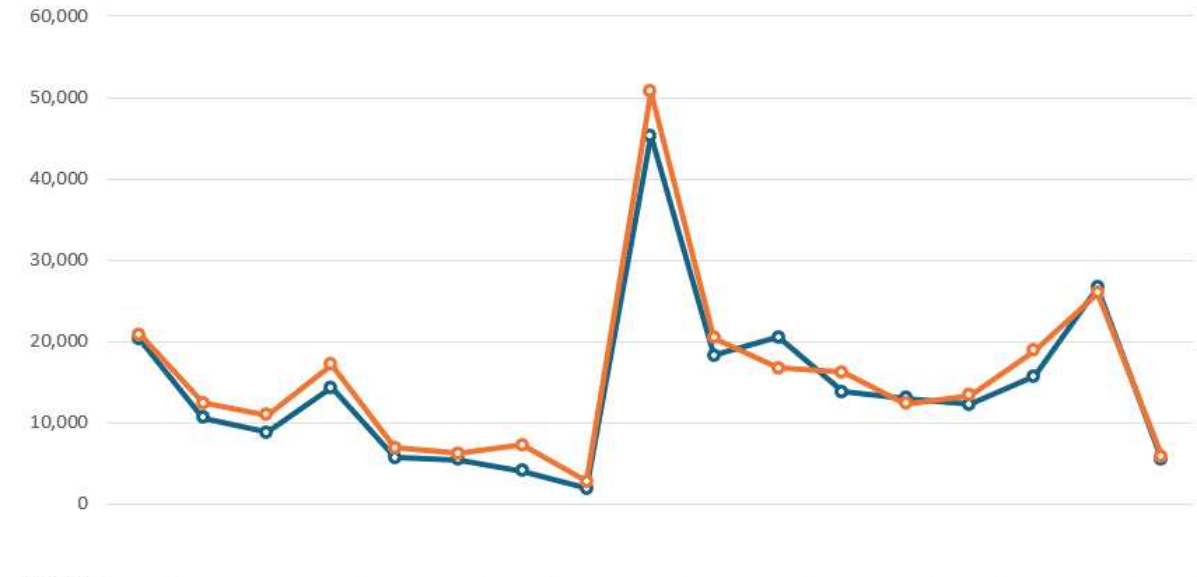
※ 증감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자산의 증감률로, [(2025년 자산 ÷ 2021년 자산) - 1] × 100으로 산출함

○ 지역별 자산 현황

- 지역별 자산 규모 및 주요 구성
  - '25 년 기관 소재지 기준 자산 규모는 경기 50,700 억원, 경남 25,961 억원, 서울 20,905 억원 순으로 나타남.
  - 경기는 분석대상 기관이 155 개이며, 신용보증·MICE·개발투자 유형이 지역 전체 자산의 각각 33.5%, 10.5%, 10.2%를 차지함. 경기신용보증재단·킨텍스 등 자산 규모가 큰 기관이 포함됨
  - 경남은 개발투자 유형의 자산이 13,534 억원으로 지역 전체의 52.1%를 차지함. 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이 11,529 억원으로 지역 전체의 55.2%를 차지함

[지역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자산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1	20,258	10,646	8,818	14,337	5,681	5,503	4,117	1,956	45,350	18,324	20,499	13,792	13,070	12,292	15,702	26,636	5,454
2025	20,905	12,412	10,949	17,131	6,894	6,241	7,233	2,790	50,700	20,425	16,773	16,216	12,305	13,390	18,910	25,961	5,919
증감	647	1,766	2,131	2,794	1,213	738	3,117	834	5,350	2,100	-3,726	2,424	-765	1,098	3,207	-675	465

- 지역별 자산 변동의 주요 특징
  - '21 년 대비 자산 증가액은 경기 5,350 억원, 경북 3,207 억원, 울산 3,117 억원 순임. 자산 증가액이 가장 큰 경기는 신용보증과 MICE 유형의 자산이 각각 4,642 억원, 2,552 억원 증가함
  - 경북은 신용보증·테크노파크 유형이 각각 1,680 억원, 1,180 억원 증가함. 울산은 울산복합도시개발의 '25 년 자산 2,971 억원이 지역 전체 자산 증가에 크게 반영됨
  - 충북은 개발투자 유형의 자산이 5,084 억원 감소하여, 신용보증·테크노파크 유형의 증가에도 지역 전체 자산은 3,726 억원 감소함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 주요 유형의 자산 구성 및 변화
  - ’25 년 출자기관의 자산은 개발투자 38,902 억원, 에너지환경 13,019 억원, MICE 11,019 억원 순으로 나타남. 세 유형은 출자기관 전체 자산의 90.4%를 차지함
  - 개발투자 유형의 자산은 ’21 년 대비 6,295 억원 감소한 반면, MICE 와 에너지환경은 각각 3,277 억원, 2,091 억원 증가함. 출자기관 전체 자산은 감소하였으나 유형별 변화 방향에는 차이가 나타남
  - 일자리 유형의 자산은 ’21 년 대비 146.5% 증가하였으나 증가액은 50 억원임. 높은 증감률에는 기준연도의 작은 자산 규모가 반영되어 있으며, 출자기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임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단위:억원)

유형	2021년	2025년	증감액	증감률
개발투자	45,196	38,902	-6,295	-13.9%
에너지환경	10,928	13,019	2,091	19.1%
MICE	7,742	11,019	3,277	42.3%
관광	3,670	3,813	144	3.9%
식품유통	2,336	2,583	247	10.6%
복지	101	97	-4	-3.6%
기타	83	85	2	2.7%
일자리	34	84	50	146.5%
전체	70,090	69,602	-488	-0.7%

※ 증감액 및 증감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기준임

※ 증감률은 [(2025년 자산 ÷ 2021년 자산) - 1] × 100으로 산출함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 주요 유형의 자산 규모 및 증감
  - ’25 년 출연기관의 자산은 신용보증 79,470 억원, 테크노파크 28,849 억원, 장학 23,899 억원, 기업지원 19,863 억원 순으로 나타남. 네 유형은 출연기관 전체 자산의 77.8%를 차지함
  - 신용보증 유형의 자산은 ’21 년 대비 17,868 억원 증가하여 출연기관의 자산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함. 반면 의료 유형은 같은 기간 2,336 억원 감소하였으며, 일자리·스포츠·소상공인 등에서도 자산 감소가 나타남

• 자산의 증감만으로 재무건전성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후 부채·자본 및 손익 변화를 함께 살펴 유형별 재무상태를 검토함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단위:억원)

유형	2021년	2025년	증감액	증감률
신용보증	61,603	79,470	17,868	29.0%
테크노파크	27,820	28,849	1,028	3.7%
장학	20,298	23,899	3,601	17.7%
기업지원	19,132	19,863	731	3.8%
문화	11,271	12,086	815	7.2%
의료	10,559	8,224	-2,336	-22.1%
연구	7,066	7,004	-62	-0.9%
복지	4,556	5,168	612	13.4%
스포츠	2,870	2,720	-149	-5.2%
관광	1,735	2,231	496	28.6%
여성청소년	816	1,338	522	63.9%
식품유통	1,028	1,154	126	12.2%
기타	630	977	347	55.1%
일자리	1,276	965	-310	-24.3%
평생교육	716	755	39	5.5%
에너지환경	290	270	-20	-6.8%
박람회	250	174	-77	-30.6%
소상공인	252	147	-105	-41.7%
종합지원	98	135	38	38.6%
국제교류	53	86	33	62.6%
MICE	26	34	9	33.9%
전체	172,345	195,551	23,206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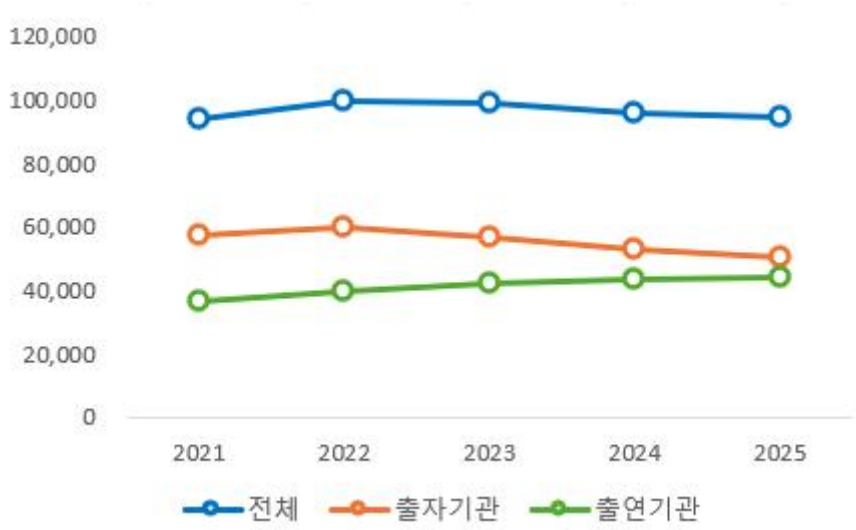
※ 증감률은 [(2025년 자산 ÷ 2021년 자산) - 1] × 100으로 산출함

2.2 부채 현황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부채 규모 및 변화

- 분석대상 864 개 기관 중 연도별 재무자료가 확보된 기관의 부채를 집계함. ’25 년 부채총계는 9 조 4,499 억원으로, ’21 년 대비 591 억원 증가함
- 전체 부채는 ’22 년 9 조 9,527 억원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여 ’25 년에는 전년 대비 1,426 억원 감소함. ’21 년 대비 출자기관의 부채는 12.4% 감소한 반면 출연기관은 21.0% 증가하여, 기관 구분별 변화 방향에 차이가 나타남
- ’25 년 출자기관의 부채는 5 조 239 억원으로 전체의 53.2%, 출연기관은 4 조 4,260 억원으로 46.8%를 차지함. 부채에는 차입금 외에도 선수금·선수수익과 보증사업 관련 준비금 등이 포함되어, 전체 규모의 변화가 차입 부담의 변화와 일치하지는 않음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 규모 추이]



(단위: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간 증감률
전체	93,908	99,527	98,958	95,925	94,499	0.6%
출자기관	57,322	59,699	56,563	52,656	50,239	-12.4%
출연기관	36,586	39,828	42,395	43,269	44,260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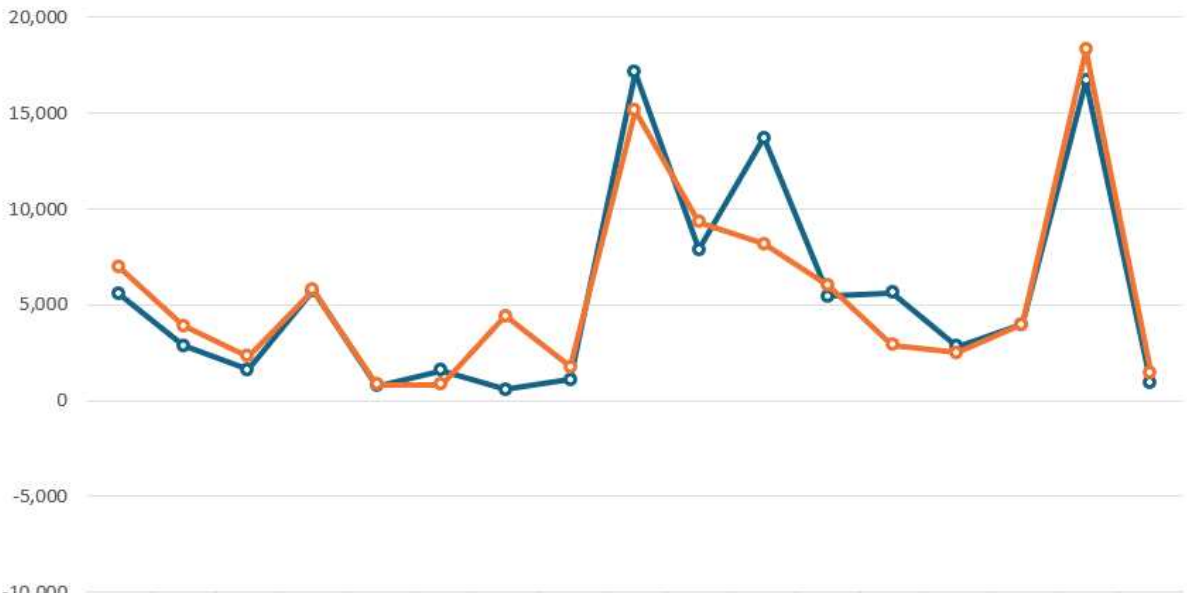
※ 증감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부채의 증감률이며, 연평균증가율이 아님

○ **지역별 부채 현황**

- 지역별 주요 사업 유형에 따른 부채 구성
  - ’25 년 기관 소재지 기준 부채는 경남 1 조 8,332 억원, 경기 1 조 5,133 억원, 강원 9,298 억원 순임. 경남은 개발투자가 1 조 5,353 억원으로 지역 전체의 83.7%를 차지하여 개발사업 기관의 부채가 크게 반영됨
  - 경기는 개발투자와 신용보증이 각각 지역 전체 부채의 30.3%, 23.1%를 차지함. 강원은 개발투자 42.0%, 에너지·환경 18.7%로, 지역별 부채 규모에는 주요 사업 유형의 차이가 반영됨
  - ’21 년 대비 부채는 울산 3,854 억원, 경남 1,630 억원, 강원 1,410 억원 증가한 반면 충북과 전북은 각각 5,526 억원, 2,734 억원 감소함.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과 사업 진행에 따른 부채 변동이 지역별 증감에 크게 영향을 미침

[지역별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1	5,564	2,858	1,596	5,726	775	1,573	563	1,078	17,123	7,888	13,690	5,427	5,617	2,838	3,965	16,703	922
2025	6,961	3,881	2,298	5,789	819	833	4,418	1,771	15,133	9,298	8,163	5,985	2,884	2,509	3,976	18,332	1,449
증감	1,397	1,022	701	64	44	-740	3,854	693	-1,990	1,410	-5,526	558	-2,734	-330	11	1,630	527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 개발투자에 집중된 부채와 사업 진행에 따른 변동
  - ’25 년 출자기관의 부채는 개발투자 3 조 9,148 억원, 에너지·환경 7,508 억원, 관광 1,805 억원 순임. 개발투자는 출자기관 전체 부채의 77.9%를 차지함
  - 개발투자의 부채는 ’21 년 대비 6,936 억원 감소하여 출자기관 전체 감소액 7,082 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함. 에너지·환경과 관광도 감소한 반면 MICE 와 식품유통 등은 증가함
  - 개발사업 기관의 부채에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차입금과 분양대금 등을 미리 수령한 선수금, 공사비 관련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확인한 결산서에서는 장기차입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선수금이 감소하여 부채총계가 줄어든 사례가 나타남. 따라서 부채 감소액 전체를 차입금 상환에 따른 감소로 해석할 수 없음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단위:억원)

유형	2021년	2025년	증감액	증감률
개발투자	46,084	39,148	-6,936	-15.1%
에너지환경	8,074	7,508	-566	-7.0%
관광	1,819	1,805	-14	-0.8%
식품유통	952	1,086	133	14.0%
MICE	363	649	286	78.8%
일자리	8	27	19	256.7%
기타	17	16	-1	-6.6%
복지	5	1	-4	-87.0%
전체	57,322	50,239	-7,082	-12.4%

※ 증감액 및 증감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기준임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 보증사업 및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부채의 반영
  - ’25 년 출연기관의 부채는 신용보증 1 조 6,041 억원, 의료 7,610 억원, 테크노파크 5,895 억원, 기업지원 5,413 억원 순으로, 네 유형이 전체의 79.0%를 차지함. ’21 년 대비 신용보증과 의료는 각각 4,840 억원, 1,980 억원 증가한 반면 기업지원과 일자리는 감소함
  - 신용보증재단의 부채에는 보증료의 기간 배분에 따른 선수수익, 반환할 보증료인 미환급보증료, 향후 대위변제 부담에 대비한 대위변제준비금 등이 포함됨. ’25 년 합산 부채비율은 25.3%이나 부채의 절대 규모는 1 조 6,041 억원이며, 출연금이 반영된

자본총계도 6 조 3,430 억원임. 낮은 부채비율에는 자본규모가 크게 작용하며, 부채 전체가 금융기관 차입으로 구성된 것은 아님

- 테크노파크 등에서는 사업비를 미리 받아 집행 전까지 계상하는 사업비선수금이 확인됨. 일부 일자리기관의 장기성청년연금부채도 임직원의 퇴직연금이 아닌 청년 지원사업의 지급의무이며, '25 년 약 616 억원의 부채에 대응하는 사용제한 예금이 같은 금액으로 계상됨. 이러한 부채는 자금 차입과 발생 원인 및 대응 자산의 성격이 다름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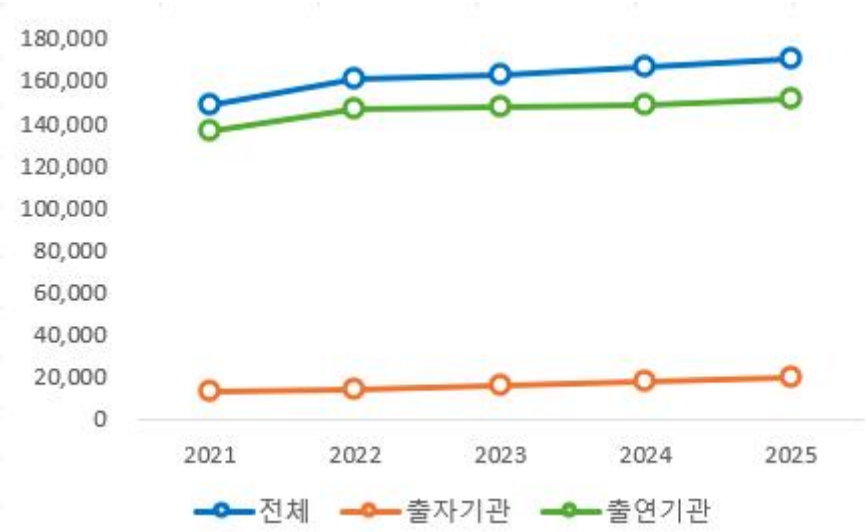
유형	2021년	2025년	증감액	증감률
신용보증	11,201	16,041	4,840	43.20%
의료	5,629	7,610	1,980	35.20%
테크노파크	5,351	5,895	544	10.20%
기업지원	6,466	5,413	−1,053	−16.3%
문화	1,921	2,450	530	27.60%
복지	1,607	1,614	7	0.40%
연구	1,321	1,277	−43	−3.3%
관광	481	788	307	63.80%
일자리	1,029	715	−313	−30.5%
식품유통	596	640	43	7.3%
장학	281	588	307	109.5%
여성·청소년	195	569	374	192.0%
기타	15	176	161	1105.6%
스포츠	146	126	−20	−13.8%
종합지원	73	111	37	51.1%
에너지·환경	87	105	18	20.4%
소상공인	122	66	−56	−46.0%
평생교육	31	61	29	93.4%
국제교류	7	7	−1	−7.8%
MICE	21	6	−14	−69.2%
박람회	6	3	−3	−54.0%
전체	36,586	44,260	7,674	21.00%

2.3 자본 현황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자본 규모 및 변화

- 분석대상 864 개 기관 중 연도별 재무자료가 확보된 기관의 자본을 집계함. '25 년 자본총계는 17 조 654 억원으로, '21 년 대비 2 조 2,127 억원 증가함
- 출자기관의 자본은 '21 년 1 조 2,768 억원에서 '25 년 1 조 9,362 억원으로 51.6% 증가함. 출연기관은 같은 기간 13 조 5,759 억원에서 15 조 1,292 억원으로 11.4% 증가하였으며, '25 년 전체 자본의 88.7%를 차지함
- '25 년 전체 자본은 전년 대비 2.7% 증가함.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은 각각 11.4%, 1.7% 증가하였으며, 자본의 증감에는 손익 누적뿐 아니라 출연금·자본금 및 기타 자본 항목의 변동이 반영됨

[지방출자·출연기관 자본 규모 추이]



(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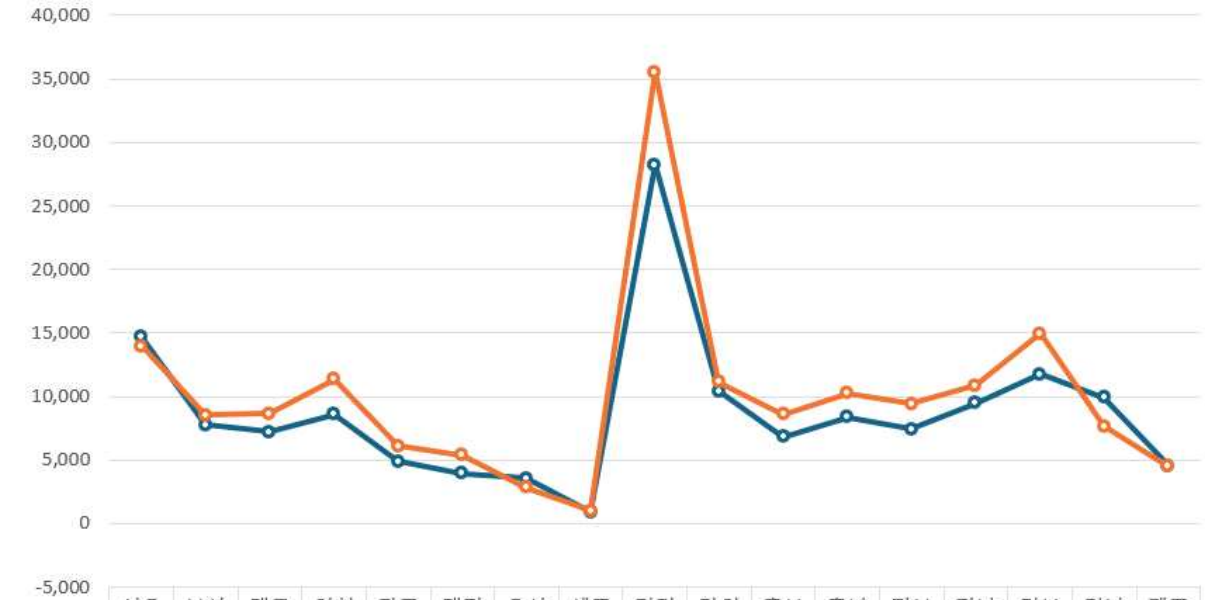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간 증감률
전체	148,527	160,472	162,603	166,133	170,654	14.9%
출자기관	12,768	14,095	15,373	17,387	19,362	51.6%
출연기관	135,759	146,377	147,230	148,746	151,292	11.4%

○ **지역별 자본 현황**

- ’25 년 기관 소재지 기준 자본은 경기 3 조 5,568 억원, 경북 1 조 4,933 억원, 서울 1 조 3,944 억원 순임. 지역별 규모에는 신용보증재단 등 자본규모가 큰 기관의 분포가 영향을 미침
- 경기의 자본은 ’21 년 대비 7,340 억원 증가함.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킨텍스의 자본이 각각 3,305 억원, 2,401 억원 증가하여 지역 자본 확대에 크게 기여함
- 반면 경남은 경남테크노파크의 자본이 2,406 억원 감소한 영향 등으로 지역 전체 자본이 2,305 억원 감소함. 서울도 서울의료원의 자본 감소 998 억원이 반영되어 지역 전체 자본이 750 억원 감소함

[지역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자본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1	14,694	7,788	7,222	8,611	4,906	3,930	3,553	877	28,227	10,436	6,809	8,365	7,452	9,453	11,737	9,933	4,532
2025	13,944	8,531	8,651	11,341	6,075	5,408	2,816	1,018	35,568	11,126	8,610	10,231	9,421	10,881	14,933	7,628	4,471
증감	-750	743	1,429	2,730	1,169	1,478	-737	141	7,340	690	1,800	1,866	1,969	1,428	3,196	-2,305	-61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자본 현황**

- ’25 년 출자기관의 자본은 MICE 1 조 370 억원, 에너지·환경 5,511 억원, 관광 2,008 억원 순임. MICE 와 에너지·환경이 출자기관 전체 자본의 각각 53.6%, 28.5%를 차지함
- ’21 년 대비 MICE 와 에너지·환경의 자본은 각각 2,991 억원, 2,657 억원 증가하여 출자기관 전체 자본 증가액 6,594 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함
- 개발투자의 합산 자본은 ’24 년 521 억원에서 ’25 년 -246 억원으로 감소함. 합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이며, 유형 합계에는 자본이 양수인 기관과 음수인 기관이 함께 반영되어 있어 모든 개발투자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은 아님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자본 현황]

(단위:억원)

유형	2021년	2025년	증감액	증감률
MICE	7,378	10,370	2,991	40.5%
에너지·환경	2,854	5,511	2,657	93.1%
관광	1,851	2,008	157	8.5%
식품유통	1,384	1,497	113	8.2%
복지	96	97	0	0.3%
기타	66	69	3	5.1%
일자리	27	57	31	115.1%
개발투자	-888	-246	641	—
전체	12,768	19,362	6,594	51.6%

※ 증감액 및 증감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기준임

※ 개발투자는 기준연도 자본이 음수이므로 증감률을 표시하지 않음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자본 현황**

- 출연금에 의한 자본 확충과 유형별 자본 감소의 차이

- ’25 년 출연기관의 자본은 신용보증 6 조 3,430 억원, 장학 2 조 3,311 억원, 테크노파크 2 조 2,954 억원, 기업지원 1 조 4,451 억원 순임. ’21 년 대비 신용보증은 1 조 3,028 억원, 장학은 3,294 억원, 기업지원은 1,785 억원 증가함
- 신용보증재단은 ’25 년 당기순손실 7,472 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자본의 출연금 잔액이 전년 대비 1 조 1,135 억원 증가하고 자본총계도 3,564 억원 증가함. 손실에 따른 자본 감소를 출연금 증가가 보완하여, 당기순손실 발생에도 자본규모는 확대됨

- 의료의 자본은 ’21 년 4,930 억원에서 ’25 년 614 억원으로 87.5% 감소함. 같은 기간 부채가 1,980 억원 증가하고 자산은 감소하면서 자본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출연기관 전체 자본 증가와 다른 흐름을 보임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자본 현황]

(단위:억원)

유형	2021년	2025년	증감액	증감률
신용보증	50,402	63,430	13,028	25.8%
장학	20,017	23,311	3,294	16.5%
테크노파크	22,470	22,954	484	2.2%
기업지원	12,666	14,451	1,785	14.1%
문화	9,351	9,636	285	3.0%
연구	5,745	5,727	-18	-0.3%
복지	2,949	3,554	605	20.5%
스포츠	2,723	2,594	-129	-4.7%
관광	1,254	1,443	189	15.1%
기타	616	801	186	30.2%
여성·청소년	622	769	148	23.8%
평생교육	685	695	10	1.4%
의료	4,930	614	-4,316	-87.5%
식품유통	432	514	82	19.0%
일자리	247	250	3	1.3%
박람회	244	171	-73	-30.0%
에너지·환경	203	166	-37	-18.4%
소상공인	130	81	-49	-37.7%
국제교류	46	79	34	73.6%
MICE	5	28	23	460.0%
종합지원	24	25	0	0.9%
전체	135,759	151,292	15,533	11.4%

2.4 수익 및 비용 현황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수익 및 비용 규모

- 수익은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의 합계이며, 비용은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비용·법인세비용의 합계로 집계함. 출연금수익과 보조금수익 등은 해당 수익 항목에 포함하여 반영함
- '25 년 전체 수익은 17 조 585 억원, 비용은 18 조 1,212 억원임. '21 년 대비 수익은 40.1%, 비용은 53.6% 증가하여, 분석기간 동안 비용 증가율이 수익 증가율을 상회함
- '25 년 출자기관의 수익과 비용은 전년 대비 각각 17.7%, 14.7% 감소함. 반면 출연기관은 각각 22.2%, 20.4% 증가하였으며, 증가액은 수익 2 조 6,738 억원, 비용 2 조 6,734 억원으로 유사하여 사업 규모 확대가 당기순손익 개선으로 크게 이어지지는 않음

[수익 규모 추이]



[비용 규모 추이]



(단위:억원)

항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간 증감률
수익	전체	121,792	132,803	138,076	148,894	170,585	40.1%
	출자기관	19,317	22,837	25,102	28,576	23,528	21.8%
	출연기관	102,475	109,966	112,973	120,319	147,057	43.5%
비용	전체	117,949	132,333	145,576	158,488	181,212	53.6%
	출자기관	18,719	21,707	24,156	27,327	23,316	24.6%
	출연기관	99,230	110,626	121,420	131,161	157,895	59.1%

○ **지역별 수익 및 비용 현황**

- ’25 년 수익은 경기 3 조 6,063 억원, 서울 1 조 6,023 억원, 경북 1 조 4,269 억원 순임. 비용도 같은 순서로 각각 3 조 6,735 억원, 1 조 7,553 억원, 1 조 4,856 억원임
- 경기는 문화·기업지원·식품유통·의료 등 여러 유형에 수익이 분포함. 서울은 문화 유형의 수익이 5,717 억원으로 가장 크며, 경북은 장학 3,244 억원, 테크노파크 2,162 억원, 의료 1,890 억원 등 주요 유형의 사업 규모가 반영됨
- ’21 년 대비 수익 증가액은 경기 7,774 억원, 충남 6,792 억원, 경북 4,904 억원 순임. 같은 기간 비용 증가액은 각각 9,636 억원, 8,226 억원, 6,089 억원으로, 3 개 지역 모두 비용이 수익보다 크게 증가함

[지역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수익 및 비용 현황]

(단위:억원)

지역	수익			비용		
	2021년	2025년	증감액	2021년	2025년	증감액
서울	11,739	16,023	4,284	12,516	17,553	5,037
부산	5,922	9,222	3,300	5,892	10,155	4,263
대구	4,019	6,330	2,311	3,878	7,173	3,295
인천	5,983	7,998	2,015	5,644	8,142	2,498
광주	2,258	2,683	425	2,356	3,039	683
대전	3,413	4,548	1,135	3,465	4,871	1,406
울산	1,964	3,530	1,566	1,983	4,142	2,159
세종	895	2,187	1,292	893	2,596	1,703
경기	28,289	36,063	7,774	27,099	36,735	9,636
강원	8,702	11,939	3,236	7,563	12,461	4,898
충북	7,166	9,251	2,084	7,066	9,790	2,724
충남	6,111	12,903	6,792	5,625	13,850	8,226
전북	6,860	8,930	2,070	6,502	9,378	2,875
전남	6,454	8,648	2,194	6,149	9,012	2,863
경북	9,365	14,269	4,904	8,767	14,856	6,089
경남	9,892	12,770	2,878	9,733	13,632	3,899
제주	2,759	3,291	532	2,818	3,826	1,008
전체	121,792	170,585	48,793	117,949	181,212	63,263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수익 및 비용 현황**

- ’25 년 출자기관의 수익은 개발투자 1 조 2,309 억원, 에너지·환경 4,522 억원, 식품유통 3,644 억원 순임. 개발투자와 식품유통은 비용이 수익을 상회한 반면, 에너지·환경과 MICE 는 수익이 비용을 상회함
- 개발투자의 수익은 ’24 년 1 조 6,574 억원에서 ’25 년 1 조 2,309 억원으로 감소함. 에너지·환경도 같은 기간 5,764 억원에서 4,522 억원으로 감소하여 출자기관 전체 수익 축소에 크게 반영됨
- ’21 년 대비 MICE 는 수익 증가액 1,007 억원이 비용 증가액 521 억원을 상회함. 반면 개발투자는 수익이 1,054 억원 증가한 가운데 비용은 2,294 억원 증가하여,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확대됨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수익 및 비용 현황]

(단위:억원)

유형	수익			비용		
	2021년	2025년	증감액	2021년	2025년	증감액
개발투자	11,255	12,309	1,054	10,934	13,228	2,294
에너지·환경	3,061	4,522	1,461	2,697	3,762	1,065
식품유통	3,399	3,644	244	3,380	3,650	270
MICE	1,067	2,075	1,007	1,226	1,747	521
관광	336	399	63	289	370	81
일자리	74	331	257	69	324	255
기타	124	239	115	121	232	111
복지	0	9	9	3	3	0
전체	19,317	23,528	4,211	18,719	23,316	4,597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수익 및 비용 현황**

- 사업 규모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의 구분

- ’25 년 출연기관의 수익은 문화 2 조 2,834 억원, 테크노파크 2 조 1,287 억원, 기업지원 2 조 1,216 억원, 의료 1 조 9,152 억원 순임. 네 유형 모두 비용이 수익을 상회함
- 장학과 연구는 ’21 년 대비 수익이 각각 1 조 658 억원, 5,162 억원 증가하였으나 비용도 각각 1 조 704 억원, 5,352 억원 증가함. 사업 수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익과 비용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으로, 수익 증가액 전체가 이익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님

• 신용보증은 ’21 년 대비 수익이 2,171 억원 증가한 반면 비용은 7,887 억원 증가함. 비용에는 보증사업의 손실 부담을 반영하는 구상채권 관련 비용과 대위변제준비금 전입액 등이 포함됨. 의료는 같은 기간 수익이 1,680 억원 감소하고 비용은 3,834 억원 증가하여 수익 축소와 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남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수익 및 비용 현황]

(단위:억원)

유형	수익			비용		
	2021년	2025년	증감액	2021년	2025년	증감액
문화	14,870	22,834	7,964	14,728	22,939	8,211
테크노파크	17,075	21,287	4,212	16,965	22,791	5,826
기업지원	16,830	21,216	4,386	16,691	21,408	4,717
의료	20,832	19,152	-1,680	17,008	20,842	3,834
장학	2,854	13,512	10,658	2,473	13,178	10,704
연구	5,752	10,915	5,162	5,766	11,118	5,352
신용보증	5,366	7,537	2,171	7,122	15,009	7,887
관광	3,229	6,642	3,413	3,197	6,680	3,483
복지	4,079	6,207	2,128	3,781	6,143	2,362
식품유통	3,402	6,071	2,668	3,408	6,046	2,638
여성·청소년	2,702	4,541	1,839	2,591	4,538	1,948
일자리	1,760	1,799	39	1,759	1,855	96
에너지·환경	466	1,126	660	429	1,125	696
스포츠	629	1,125	497	718	1,158	441
평생교육	465	866	400	477	868	390
기타	358	685	327	358	635	277
소상공인	1,250	683	-568	1,229	698	-531
종합지원	261	389	128	257	385	128
국제교류	117	222	105	115	210	95
박람회	106	130	24	86	160	74
MICE	72	120	48	72	109	37
전체	102,475	147,057	44,582	99,230	157,895	58,665

2.5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 현황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손익 규모 및 변화

- 전체 영업손실은 '21 년 4,779 억원에서 '25 년 1 조 4,227 억원으로 확대됨. 당기순손익은 '21 년 3,843 억원의 이익에서 '23 년 손실로 전환된 이후 '25 년 1 조 626 억원의 손실을 기록함
- 출자기관은 '21 년 대비 '25 년 영업이익이 25.7%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64.6% 감소함. 영업외손익과 법인세 반영 이후의 이익 감소가 나타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변화 방향에 차이가 있음
- 출연기관의 '25 년 영업손실은 1 조 6,380 억원, 당기순손실은 1 조 838 억원임. 다만 자본으로 계상되는 출연금은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손실 규모와 자본의 증감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영업손익 규모 추이]



[당기순손익 규모 추이]



(단위:억원)

항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간 증감률
영업손익	전체	-4,779	-5,599	-11,257	-14,096	-14,227	197.7%
	출자기관	1,712	2,291	1,607	2,115	2,153	25.7%
	출연기관	-6,491	-7,890	-12,864	-16,211	-16,380	152.3%
당기순손익	전체	3,843	471	-7,500	-9,593	-10,626	-
	출자기관	598	1,131	946	1,249	212	-64.6%
	출연기관	3,245	-660	-8,447	-10,842	-10,838	-

※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로 전환된 경우 증감률을 표시하지 않음

○ **지역별 손익 현황**

- ’25 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합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나타남. 당기순손실은 서울 1,530 억원, 충남 947 억원, 부산 933 억원 순으로 큼
- 서울은 신용보증재단의 당기순손실 1,219 억원이 지역 전체 손익에 크게 반영됨. 충남은 신용보증재단 외에도 테크노파크와 의료에서 각각 322 억원, 232 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손실이 여러 유형에 걸쳐 나타남
- ’21 년 대비 당기순손익 감소액은 경기 1,862 억원, 강원 1,662 억원, 충남 1,434 억원 순임. 지역 합계에는 유형별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어 반영되므로, 합산 손실의 규모와 주요 손실 발생 유형은 구분됨

[지역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손익 현황]

(단위:억원)

지역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1년	2025년	증감액	2021년	2025년	증감액
서울	-1,679	-2,256	-577	-777	-1,530	-753
부산	-717	-1,285	-568	31	-933	-964
대구	-250	-911	-661	142	-842	-984
인천	-12	-119	-107	339	-144	-483
광주	-191	-421	-230	-97	-356	-259
대전	-74	-353	-279	-52	-323	-271
울산	-56	-284	-228	-19	-612	-593
세종	0	-126	-125	1	-410	-411
경기	-735	-2,098	-1,363	1,190	-672	-1,862
강원	545	-837	-1,383	1,139	-522	-1,662
충북	-25	-778	-753	100	-539	-639
충남	-527	-1,337	-810	486	-947	-1,434
전북	-468	-758	-290	357	-447	-805
전남	91	-529	-620	305	-364	-669
경북	-102	-1,000	-898	598	-586	-1,185
경남	-269	-380	-111	159	-862	-1,021
제주	-309	-753	-444	-59	-535	-476
전체	-4,779	-14,227	-9,448	3,843	-10,626	-14,470

○ 출연금의 회계처리에 따른 손익 반영 차이

- 회계상 반영 위치와 손익 영향
  - 출연금은 매출액에 인식하면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영업외수익에 인식하면 당기순손익에 반영됨.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은 손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에 직접 반영되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출연금 유입으로 자본이 증가할 수 있음

[출연금의 회계상 반영 위치별 손익 영향]

구분	영업손익 반영	당기순손익 반영	해석
매출액에 포함된 출연금수익	반영	반영	관련 사업비용과 함께 영업손익에 반영
영업외수익에 포함된 출연금	미반영	반영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당기순손실을 줄이거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하는 요인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	미반영	미반영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자본에 직접 반영되어 사업 기반과 손실흡수 여력 형성

- 회계상 반영 위치별 해당 유형
  - 동일 유형에서도 기관별 출연금의 반영 위치가 달라, 유형별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의 차이에는 사업성과뿐 아니라 출연금의 회계처리 차이도 반영됨

[출연금의 회계상 반영 위치별 해당 유형]

회계상 반영 위치	해당 유형
매출액의 출연금수익	MICE, 관광, 국제교류, 기업지원, 기타, 문화, 복지, 소상공인, 스포츠, 식품유통, 신용보증, 에너지·환경, 여성·청소년, 연구, 일자리, 장학, 종합지원, 테크노파크, 평생교육
영업외수익의 출연금	관광, 기업지원, 문화, 복지, 신용보증, 여성·청소년, 장학
자본의 출연금 잔액	MICE, 관광, 국제교류, 기업지원, 기타, 문화, 박람회, 복지, 소상공인, 스포츠, 식품유통, 신용보증, 에너지·환경, 여성·청소년, 연구, 일자리, 장학, 종합지원, 테크노파크, 평생교육

○ **신용보증재단 포함·제외 기준의 지역별 당기순손익**

- 신용보증재단의 손익 반영 효과와 나머지 기관의 손익 구분
  - ’25 년 전체 당기순손실 1 조 626 억원 중 신용보증재단의 당기순손실은 7,472 억원임.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기관의 합산 당기순손실은 3,154 억원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영향이 크지만 나머지 기관에서도 합산 손실이 발생함
  - 경기와 인천은 신용보증재단 포함 시 각각 672 억원, 144 억원의 당기순손실이나, 제외 시 각각 577 억원, 225 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나타남. 경기에서는 출자기관 개발투자·MICE·에너지·환경의 이익이, 인천에서는 출자기관 에너지·환경의 이익이 다른 유형의 손실을 상회함
  - 반면 신용보증재단 제외 후에도 충남 495 억원, 경남 488 억원, 울산 487 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남음. 충남은 테크노파크·의료, 경남과 울산은 개발투자의 손실이 크게 반영되어, 지역별 손실 발생 구조에 차이가 나타남

['25년 신용보증재단 포함·제외 기준 지역별 당기순손익 비교]

(단위:억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포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제외
서울	-1,530	-1,219	-311
부산	-933	-700	-233
대구	-842	-632	-210
인천	-144	-369	225
광주	-356	-266	-90
대전	-323	-269	-54
울산	-612	-125	-487
세종	-410	-116	-294
경기	-672	-1,249	577
강원	-522	-213	-309
충북	-539	-265	-274
충남	-947	-452	-495
전북	-447	-356	-92
전남	-364	-111	-253
경북	-586	-465	-121
경남	-862	-375	-488
제주	-535	-289	-246
전체	-10,626	-7,472	-3,154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손익 현황**

-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의 변화 차이
  - ’25 년 당기순이익은 에너지·환경 760 억원, MICE 328 억원, 관광 29 억원 순임. 반면 개발투자와 식품유통에서는 각각 919 억원, 6 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개발투자는 영업이익 866 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외손익과 법인세 반영 이후 당기순손실 919 억원으로 전환됨. 영업단계의 이익이 당기순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나타남
  - MICE 는 ’21 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에서 ’25 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됨. 에너지·환경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513 억원, 396 억원 증가함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손익 현황]

(단위:억원)

유형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1년	2025년	증감액	2021년	2025년	증감액
개발투자	1,349	866	-483	321	-919	-1,240
에너지·환경	583	1,097	513	364	760	396
MICE	-276	147	423	-158	328	486
관광	76	38	-39	47	29	-18
식품유통	-19	-6	13	19	-6	-25
복지	-3	-3	0	-3	6	8
기타	4	8	4	3	7	4
일자리	-1	7	8	5	7	2
전체	1,712	2,153	441	598	212	-387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손익 현황**

- 손실 집중 유형과 자본 확충 구조의 차이
  - ’25 년 당기순손실은 신용보증 7,472 억원, 의료 1,690 억원, 테크노파크 1,504 억원 순으로 큼. 세 유형의 손실이 출연기관 전체 당기순손익에 크게 반영됨
  - 신용보증은 보증사업 관련 비용 부담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 증가로 ’25 년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3,564 억원 증가함. 당기순손실과 자본규모의 변화 방향이 달라, 손익만으로 자본 감소를 단정할 수 없음
  - 의료는 ’21 년 당기순이익 3,824 억원에서 ’25 년 당기순손실 1,690 억원으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기간 자본도 크게 감소함. 테크노파크도 영업이익 71 억원에서 영업손실 1,447 억원으로 전환되는 등 주요 손실 유형 간에도 자본 및 손익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음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손익 현황]

(단위:억원)

유형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1년	2025년	증감액	2021년	2025년	증감액
신용보증	-2,128	-7,807	-5,679	-1,756	-7,472	-5,716
의료	-4,404	-5,666	-1,262	3,824	-1,690	-5,514
테크노파크	71	-1,447	-1,518	110	-1,504	-1,614
연구	-60	-291	-231	-13	-203	-190
기업지원	-54	-390	-336	140	-191	-331
문화	-72	-204	-131	143	-105	-247
일자리	-5	-46	-40	1	-55	-56
관광	-44	-202	-158	32	-37	-69
박람회	20	-31	-51	20	-30	-50
소상공인	15	-16	-31	21	-16	-37
스포츠	-156	-158	-2	-89	-33	56
평생교육	-14	-14	0	-12	-2	10
에너지·환경	54	47	-8	37	1	-36
여성·청소년	-17	-114	-97	111	2	-109
종합지원	4	4	0	4	4	0
MICE	-4	11	14	0	11	11
국제교류	1	9	8	2	12	10
식품유통	-28	1	29	-6	25	30
기타	-14	43	57	0	49	50
복지	75	-63	-138	298	64	-234
장학	268	-45	-313	380	334	-47
전체	-6,491	-16,380	-9,888	3,245	-10,838	-14,083

3. 수익성 분석

3.1 매출액영업이익률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수익성 변화

- 기관 구분별 영업이익률과 손익 변화
  - 전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1 년 -4.4%에서 '25 년 -8.9%로 하락함. '25 년 출자기관은 9.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반면, 출연기관은 -11.9%로 기관 구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 '25 년 전체 영업이익률은 전년의 -10.1%보다 개선되었으나, 영업손실은 1 조 4,096 억원에서 1 조 4,227 억원으로 확대됨. 매출액이 13 조 9,235 억원에서 16 조 566 억원으로 증가하여 손실의 상대적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비율 개선이 영업손실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음
  - 출연기관의 매출액에는 출연금수익과 보조금수익 등이 포함되며, 일부 지원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됨.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지원은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업이익률에는 사업의 수익·비용 구조와 지원 수익의 회계상 분류 차이가 함께 반영됨

[지방출자·출연기관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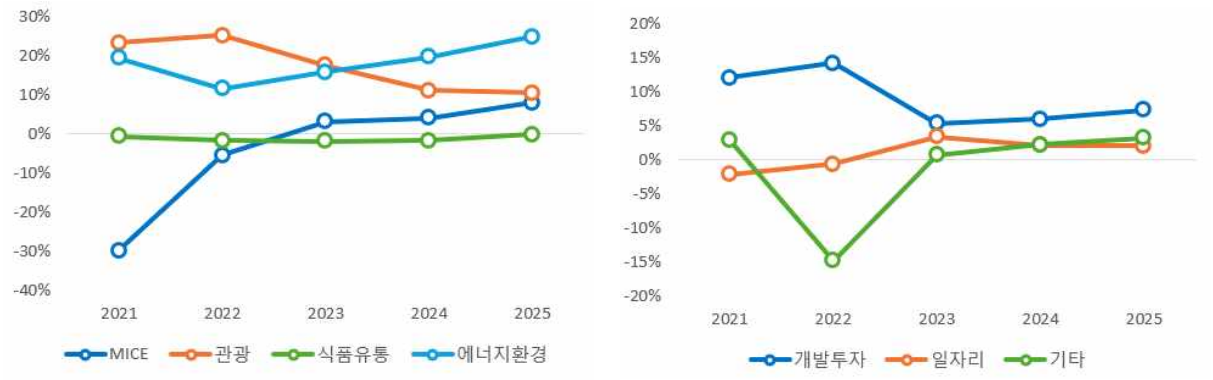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4.4%	-4.6%	-8.7%	-10.1%	-8.9%
출자기관	9.1%	10.3%	6.7%	7.7%	9.5%
출연기관	-7.2%	-7.9%	-12.2%	-14.5%	-11.9%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수익성 추이

- 유형별 수익성 수준과 변화
  - ’25 년 출자기관의 영업이익률은 에너지·환경 24.8%, 관광 10.4%, MICE 7.9%, 개발투자 7.3% 순임. 식품유통은 -0.2%로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으나 전년보다 손실률이 낮아짐
  - MICE 는 ’23 년 영업이익으로 전환한 이후 이익률 상승이 이어짐. 반면 관광은 ’21 년 23.4%에서 ’25 년 10.4%로 낮아져, 영업이익을 유지하는 가운데 매출액 대비 이익 창출 수준은 하락함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29.8%	-5.4%	3.1%	4.1%	7.9%
관광	23.4%	25.2%	17.5%	11.1%	10.4%
식품유통	-0.6%	-1.8%	-1.9%	-1.7%	-0.2%
에너지환경	19.4%	11.5%	15.8%	19.7%	24.8%
개발투자	12.1%	14.2%	5.4%	6.0%	7.3%
일자리	-2.2%	-0.6%	3.4%	2.2%	2.1%
기타	2.9%	-14.9%	0.7%	2.3%	3.2%

※ 복지는 매출액이 없어 영업이익률을 산출하지 않으며, 표와 그래프에서 제외함

○ **지방출자기관 주요 유형의 변화 요인**

-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손익 개선 유형
  - MICE 는 '25 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99 억원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은 23 억원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72 억원에서 147 억원으로 확대됨. 식품유통도 매출액 증가액 274 억원이 영업비용 증가액 224 억원을 상회하면서 영업손실이 56 억원에서 6 억원으로 축소됨

-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률 상승 유형
  - 에너지·환경은 '25 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1,193 억원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8 억원 감소하였으나, 매출 감소폭이 더 커 영업이익률은 19.7%에서 24.8%로 상승함. 개발투자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937 억원, 79 억원 감소한 가운데 영업이익률은 6.0%에서 7.3%로 상승하여, 두 유형의 비율 상승은 영업이익 확대와 구분됨

- 영업이익 유지 유형
  - 관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함께 감소하여 사업 규모와 이익률이 동시에 낮아짐. 일자리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증가폭이 더 커 이익률이 소폭 하락함. 기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하여 이익률이 2.3%에서 3.2%로 상승함

[지방출자기관 주요 유형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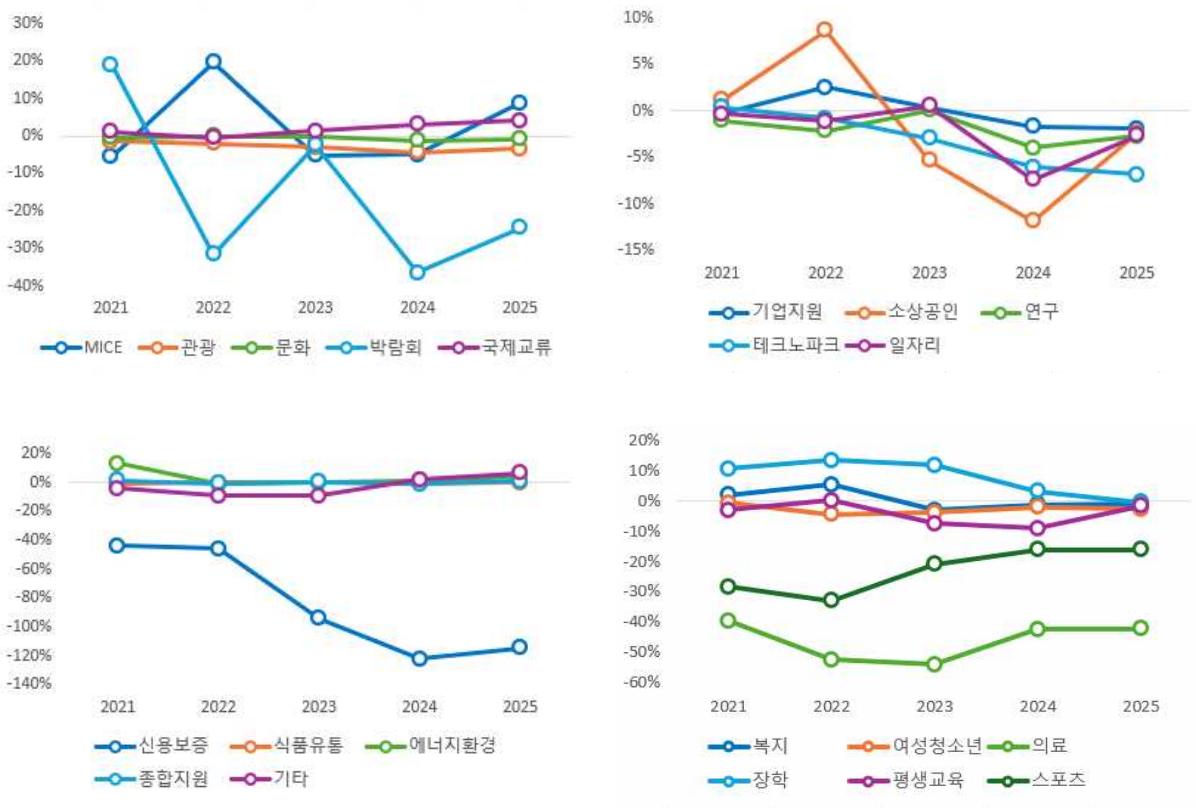
(단위:억원)

유형	'24년 매출액	'25년 매출액	'24년 영업손익	'25년 영업손익
MICE	1,757	1,855	72	147
식품유통	3,291	3,565	-56	-6
에너지·환경	5,615	4,422	1,105	1,097
개발투자	15,825	11,888	945	866
관광	381	362	42	38
일자리	228	326	5	7
기타	228	236	5	8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수익성 추이**

- 유형별 영업적자와 수익성 격차
  - ’25 년 출연기관은 21 개 유형 중 15 개 유형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함. 신용보증·의료·박람회·스포츠의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테크노파크는 ’22 년 영업손실로 전환된 이후 이익률 하락이 지속됨
  - 영업이익률이 양수인 유형도 매출액에 지원 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율이 자체 사업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음. 반대로 영업외수익이나 자본으로 지원받는 재원은 영업이익률에 반영되지 않음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매출액영업이익률]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5.6%	19.5%	-5.2%	-5.0%	8.8%
관광	-1.4%	-2.0%	-3.0%	-4.4%	-3.2%
문화	-0.5%	-0.1%	-0.3%	-1.3%	-0.9%
박람회	19.0%	-31.5%	-2.3%	-36.5%	-24.5%
국제교류	1.2%	-0.4%	1.3%	3.1%	4.1%
기업지원	-0.3%	2.5%	0.3%	-1.6%	-1.9%
소상공인	1.2%	8.6%	-5.3%	-11.8%	-2.4%
연구	-1.1%	-2.1%	0.1%	-4.0%	-2.7%
테크노파크	0.4%	-0.8%	-2.9%	-6.0%	-6.8%
일자리	-0.3%	-1.1%	0.6%	-7.4%	-2.6%
신용보증	-43.7%	-46.0%	-94.1%	-122.3%	-114.6%
식품유통	-0.8%	-0.3%	0.3%	-0.7%	0.0%
에너지환경	12.9%	-1.5%	-0.4%	1.1%	4.2%
종합지원	1.5%	-0.5%	0.1%	-1.3%	0.9%
기타	-4.1%	-9.5%	-9.5%	1.6%	6.4%
복지	2.0%	5.4%	-2.9%	-1.3%	-1.0%
여성청소년	-0.7%	-4.4%	-3.8%	-2.1%	-2.6%
의료	-39.5%	-52.5%	-54.0%	-42.3%	-42.1%
장학	10.7%	13.3%	11.8%	3.2%	-0.4%
평생교육	-3.0%	0.2%	-7.4%	-9.0%	-1.6%
스포츠	-28.3%	-33.0%	-20.8%	-16.1%	-16.1%

○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변화 요인**

- 신용보증과 의료의 상이한 손실 변화
  - 신용보증은 '25 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53 억원 감소하였으나 영업비용이 644 억원 감소하여 영업손실이 591 억원 축소됨. 다만 자본으로 계상된 출연금은 영업수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14.6%의 영업이익률은 보증사업의 손익구조를 나타내며 자본 확충까지 반영한 재무상태와는 구분됨
  - 의료는 '25 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1,110 억원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은 1,553 억원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443 억원 확대됨. 영업이익률은 -42.3%에서 -42.1%로 소폭 개선되었지만, 매출 증가가 비용 증가를 충당하지 못해 손실 규모는 커짐

- 매출 증가에 따른 손실률 완화
  - 연구는 '25 년 영업손실이 254 억원에서 291 억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매출액이 6,332 억원에서 1 조 764 억원으로 증가하여 영업이익률은 -4.0%에서 -2.7%로 개선됨. 박람회도 영업손실이 소폭 확대되는 가운데 매출 증가로 손실률이 낮아져, 두 유형의 비율 개선은 손실 축소와 구분됨

- 비용 증가와 영업이익의 손실 전환
  - 테크노파크는 '25 년 매출액 증가액 3,713 억원보다 영업비용 증가액이 커 영업손실이 1,048 억원에서 1,447 억원으로 확대됨. 기업지원과 스포츠도 비용 증가액이 매출 증가액을 상회하여 영업손실이 각각 76 억원, 17 억원 확대됨
  - 장학은 '25 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9,184 억원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여, 영업이익 112 억원에서 영업손실 45 억원으로 전환됨. 전체 장학기관의 사업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영업단계의 이익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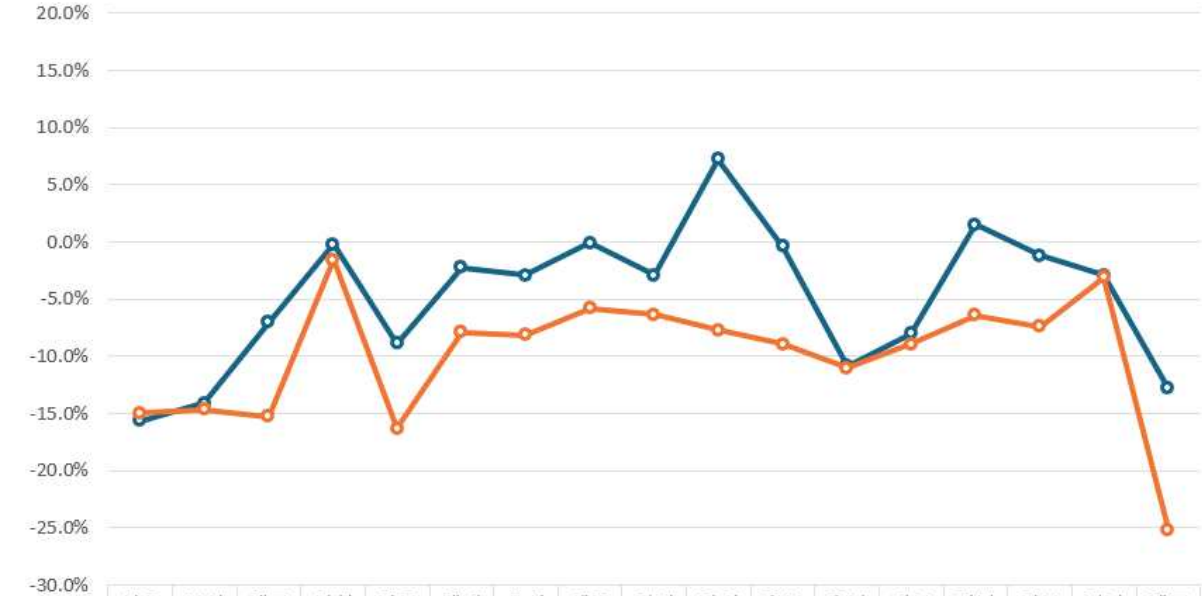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영업손익 및 영업이익률 변화]

(단위:억원)

유형	'24년 영업손익	'25년 영업손익	'24년 영업이익률	'25년 영업이익률
신용보증	-8,398	-7,807	-122.30%	-114.6%
의료	-5,224	-5,666	-42.30%	-42.1%
연구	-254	-291	-4.00%	-2.7%
박람회	-30	-31	-36.50%	-24.5%
테크노파크	-1,048	-1,447	-6.00%	-6.8%
기업지원	-313	-390	-1.60%	-1.9%
스포츠	-141	-158	-16.10%	-16.1%

○ 지역별 수익성과 유형 구성

[지역별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1	-15.6%	-14.1%	-7.1%	-0.2%	-8.9%	-2.2%	-2.9%	-0.1%	-2.9%	7.2%	-0.4%	-10.8%	-8.0%	1.5%	-1.2%	-2.9%	-12.8%
2025	-14.9%	-14.7%	-15.3%	-1.6%	-16.3%	-7.9%	-8.1%	-5.8%	-6.3%	-7.7%	-8.9%	-11.0%	-8.9%	-6.4%	-7.4%	-3.1%	-25.2%
증감	0.7	-0.5	-8.2	-1.4	-7.4	-5.6	-5.2	-5.8	-3.4	-14.9	-8.5	-0.2	-0.9	-7.9	-6.2	-0.2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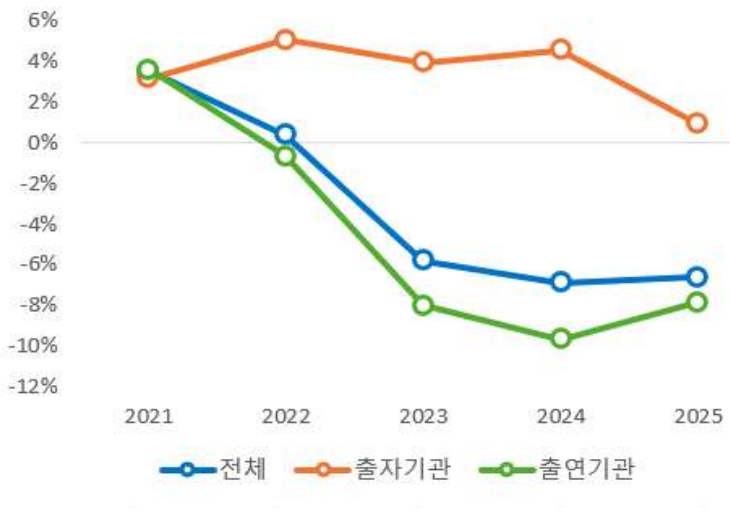
- 주요 손실 유형의 분포와 지역 합산 효과
  - ’25 년 모든 지역의 영업이익률이 음수이며, 제주 -25.2%, 광주 -16.3%, 대구 -15.3%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제주는 신용보증 290 억원, 서귀포의료원 238 억원, 제주의료원 103 억원의 영업손실이 반영됨
  - 대구도 신용보증재단과 의료원에서 각각 636 억원, 240 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함. 지역별 영업이익률 차이에는 기관의 운영성과뿐 아니라 신용보증·의료 등 손실 유형의 구성 차이가 영향을 미침
  - 인천은 영업이익률이 -1.6%로 다른 지역보다 높지만, 신용보증재단과 의료원에서는 각각 403 억원, 307 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함. 다른 기관의 영업이익이 일부 손실을 상쇄한 결과로, 지역 합산 비율이 개별 기관의 수익성을 동일하게 나타내지는 않음

3.2 매출액순이익률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매출액순이익률 변화

- 당기순손실 지속과 기관 구분별 변화 차이
  - 전체 매출액순이익률은 '21 년 3.5%에서 '25 년 -6.6%로 하락함. '25 년에는 전년의 -6.9%보다 개선되었으나, 당기순손실은 9,593 억원에서 1 조 626 억원으로 확대됨. 매출 증가로 손실의 상대적 비중은 낮아졌지만 손실 규모는 증가함
  - 출자기관은 '25 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영업외수지가 -548 억원에서 -1,587 억원으로 악화되어 당기순이익이 1,249 억원에서 212 억원으로 감소함. 매출액순이익률도 4.6%에서 0.9%로 하락하여 영업단계와 당기순손익의 변화 방향에 차이가 나타남
  - 출연기관의 매출액순이익률은 -9.7%에서 -7.9%로 개선되었으나, 당기순손실 감소액은 4 억원에 그침. 매출액 확대가 비율 개선에 크게 작용하였으며, 전체 당기순손실 확대는 출자기관의 이익 감소가 주도함

[지방출자·출연기관 매출액순이익률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3.5%	0.4%	-5.8%	-6.9%	-6.6%
출자기관	3.2%	5.1%	4.0%	4.6%	0.9%
출연기관	3.6%	-0.7%	-8.0%	-9.7%	-7.9%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매출액순이익률 추이**

- 영업외손익 반영에 따른 유형별 수익성 차이
  - '25 년 매출액순이익률은 MICE 17.7%, 에너지·환경 17.2%, 관광 8.0% 순임. 반면 개발투자는 -7.7%로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었으며, 식품유통도 -0.2%로 당기순손실이 지속됨
  - 개발투자는 '25 년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외손실 반영 이후 당기순손실로 전환됨. 에너지·환경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매출액 감소폭이 더 커 순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비율과 이익 규모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매출액순이익률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17.1%	4.3%	15.9%	16.2%	17.7%
관광	14.5%	18.9%	16.9%	12.0%	8.0%
식품유통	0.6%	-1.0%	-1.2%	-1.1%	-0.2%
에너지환경	12.1%	6.1%	10.0%	14.2%	17.2%
개발투자	2.9%	5.9%	1.0%	0.9%	-7.7%
일자리	6.9%	5.6%	7.3%	1.8%	2.1%
기타	2.7%	-13.5%	1.7%	2.3%	3.0%

※ 복지는 매출액이 없어 순이익률을 산출하지 않으며, 표와 그래프에서 제외함

○ **지방출자기관 주요 유형의 변화 요인**

- 개발투자의 영업외손실 확대
  - 개발투자는 ’25 년 영업이익 866 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외비용 2,078 억원이 영업외수익 421 억원을 크게 상회하여 당기순손실 919 억원을 기록함. ’24 년 당기순이익 149 억원에서 1,068 억원 감소하여 출자기관 전체 이익 감소를 주도함
  - ’25 년 영업외비용은 전년 대비 643 억원 증가하고 영업외수익은 328 억원 감소함. 이 중 이자비용은 150 억원 증가하고 이자수익은 192 억원 감소하여, 이자 관련 수지 악화가 영업외손실 확대의 일부를 차지함

- 영업손익 개선과 당기순손익 개선의 연결
  - MICE 는 ’25 년 영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284 억원에서 328 억원으로 증가함. 식품유통도 영업손실 축소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24 년 36 억원에서 ’25 년 6 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영업외손익 반영 이후에도 손실이 남음

- 이익 규모와 순이익률의 변화 차이
  - 에너지·환경은 당기순이익이 ’24 년 799 억원에서 ’25 년 760 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감소폭이 더 커 순이익률은 14.2%에서 17.2%로 상승함. 반면 관광은 영업이익 감소와 영업외수지 악화, 법인세 증가가 겹쳐 당기순이익과 순이익률이 함께 하락함
  - 일자리와 기타는 ’25 년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순이익률이 각각 2.1%, 3.0%로 상승함. 두 유형 모두 최근 이익 규모와 매출액 대비 이익 수준이 함께 개선됨

[‘25년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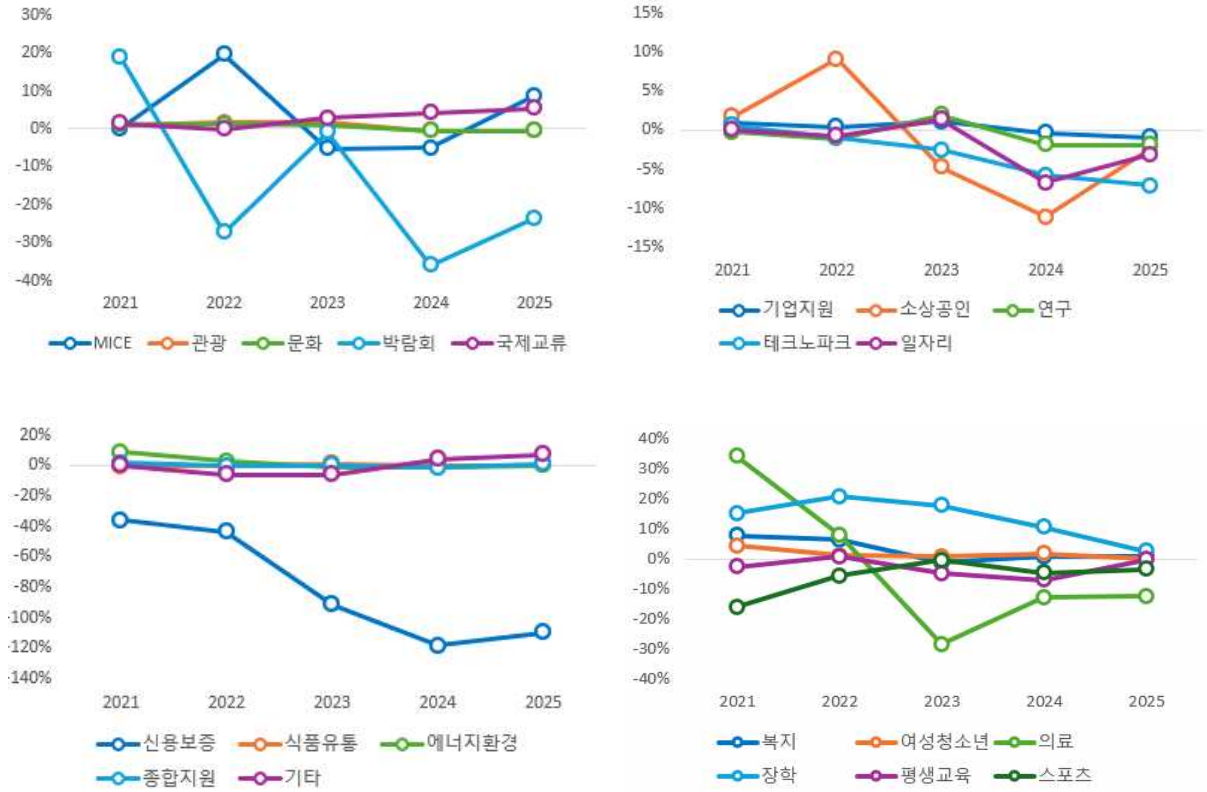
(단위:억원)

유형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	당기순손익
MICE	147	219	20	18	328
관광	38	37	33	13	29
식품유통	-6	79	75	4	-6
에너지환경	1,097	100	248	188	760
개발투자	866	421	2,078	128	-919
일자리	7	5	4	1	7
기타	8	3	2	2	7
복지	-3	9	0	0	6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매출액순이익률 추이**

- 영업외손익에 따른 당기순손익의 차이
  - '25 년 출연기관은 21 개 유형 중 12 개 유형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복지·여성·청소년·장학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외손익 반영 이후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 반면 신용보증·의료·테크노파크 등은 당기순손실이 지속됨. 영업외수익이 영업손실을 보완하는 유형과 영업외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유형이 함께 존재하여,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의 차이도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남

[출연기관 유형별 매출액순이익률 추이]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매출액순이익률]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0.0%	19.6%	-5.2%	-5.0%	8.8%
관광	1.0%	1.6%	1.8%	-0.6%	-0.6%
문화	1.0%	1.2%	0.9%	-0.4%	-0.5%
박람회	18.8%	-27.3%	-0.9%	-35.9%	-23.4%
국제교류	1.5%	0.0%	2.9%	4.3%	5.4%
기업지원	0.8%	0.4%	1.1%	-0.4%	-0.9%
소상공인	1.7%	9.1%	-4.8%	-11.1%	-2.3%
연구	-0.2%	-1.1%	2.0%	-1.9%	-1.9%
테크노파크	0.6%	-0.9%	-2.5%	-5.8%	-7.1%
일자리	0.1%	-0.7%	1.3%	-6.7%	-3.1%
신용보증	-36.1%	-43.5%	-91.4%	-118.5%	-109.7%
식품유통	-0.2%	0.1%	1.0%	0.0%	0.4%
에너지환경	8.8%	2.7%	-0.8%	-0.7%	0.1%
종합지원	1.6%	-0.3%	0.3%	-1.2%	1.1%
기타	0.0%	-5.9%	-5.9%	4.1%	7.4%
복지	7.8%	6.4%	-1.2%	0.7%	1.1%
여성청소년	4.4%	1.2%	0.7%	1.8%	0.1%
의료	34.3%	8.0%	-28.5%	-13.0%	-12.5%
장학	15.1%	20.8%	17.8%	10.5%	2.6%
평생교육	-2.7%	0.7%	-4.9%	-7.0%	-0.2%
스포츠	-16.1%	-5.6%	-0.4%	-4.6%	-3.4%

○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변화 요인**

- 주요 적자 유형의 손실 완화 정도
  - 신용보증은 영업손실 축소와 영업외수지 개선으로 당기순손실이 '24 년 8,131 억원에서 '25 년 7,472 억원으로 감소함. 다만 자본으로 계상되는 출연금은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며, '25 년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3,564 억원 증가하여 손실 발생과 자본 확충이 동시에 나타남
  - 의료는 '25 년 영업외수지 3,976 억원이 영업손실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당기순손실 1,690 억원이 발생함. 영업외수지가 전년보다 개선되었음에도 영업손실 확대폭을 상쇄하지 못하여 당기순손실이 88 억원 증가함

- 영업외수지에 따른 이익 전환과 이익 감소
  - 복지·여성·청소년·장학은 각각 '25 년 127 억원, 117 억원, 382 억원의 영업외수지가 영업손실을 상회하여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여성·청소년의 영업외수익에는 출연금 89 억원이 포함되어, 지원 수익의 인식 위치가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의 차이에 영향을 미침
  - 문화는 '25 년 영업손실이 전년대비 269 억원에서 204 억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영업외수지가 184 억원에서 100 억원으로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은 85 억원에서 105 억원으로 확대됨. 영업단계의 손실 축소가 당기순손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영업손익과 영업외수지의 복합 영향
  - 테크노파크는 '25 년 영업손실 확대에 영업외수지의 손실 전환이 더해져 당기순손실이 '24 년 1,017 억원에서 1,504 억원으로 증가함. 기업지원도 '25 년 영업손실 확대와 영업외수지 감소가 함께 나타나 당기순손실이 70 억원에서 191 억원으로 증가함
  - 스포츠는 영업손실이 '24 년 141 억원에서 '25 년 158 억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영업외수지가 102 억원에서 130 억원으로 개선되어 당기순손실은 40 억원에서 33 억원으로 감소함. 당기순손실 축소는 영업외수지 개선에 따른 결과이며, 영업활동의 손실 규모는 오히려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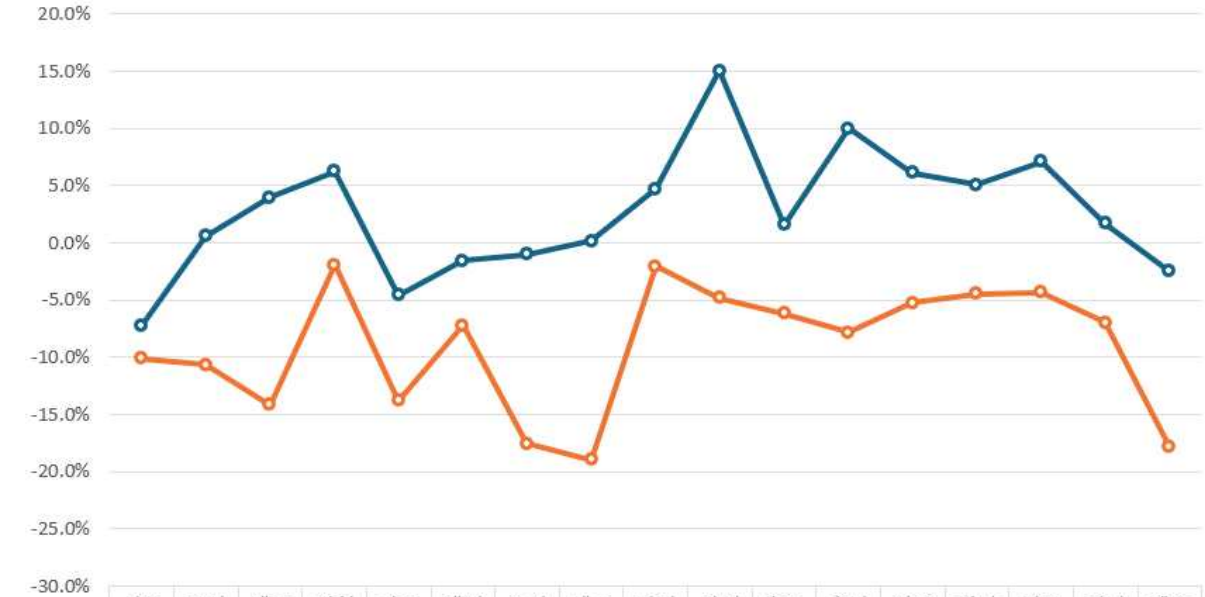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영업외수지 및 당기순손익]

(단위:억원)

유형	'25년 영업손익	'25년 영업외수지	'24년 당기순손익	'25년 당기순손익
신용보증	-7,807	335	-8,131	-7,472
의료	-5,666	3,976	-1,602	-1,690
복지	-63	127	39	64
여성청소년	-114	117	69	2
문화	-45	382	371	334
테크노파크	-204	100	-85	-105
기업지원	-1,447	-51	-1,017	-1,504
스포츠	-390	209	-70	-191

○ **지역별 매출액순이익률과 주요 변동 요인**

[지역별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1	-7.2%	0.6%	4.0%	6.2%	-4.5%	-1.6%	-1.0%	0.2%	4.7%	15.1%	1.6%	10.0%	6.1%	5.1%	7.1%	1.7%	-2.5%
2025	-10.1%	-10.6%	-14.1%	-1.9%	-13.8%	-7.2%	-17.5%	-19.0%	-2.0%	-4.8%	-6.2%	-7.8%	-5.3%	-4.4%	-4.3%	-7.0%	-17.9%
증감	-2.9	-11.3	-18.1	-8.2	-9.2	-5.6	-16.5	-19.1	-6.7	-19.9	-7.8	-17.8	-11.4	-9.5	-11.4	-8.7	-15.4

- 지역별 손실률과 영업외손익의 영향

- ’25 년 모든 지역에서 합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매출액순이익률은 세종 -19.0%, 제주 -17.9%, 울산 -17.5% 순으로 낮게 나타남. 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기준이며, 포함·제외에 따른 지역별 손익 차이는 2.5 절에서 구분하여 제시함
- 경남은 ’25 년 영업이익률 -3.1%보다 매출액순이익률이 -7.0%로 낮음.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는 영업손실 630 억원에 영업외손실 345 억원이 더해져 당기순손실 975 억원을 기록하는 등 개발사업 기관의 영업외손실이 지역 수익성에 반영됨
-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는 ’25 년 영업이익 159 억원에도 영업외비용 241 억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 79 억원을 기록함. 울산복합도시개발도 ’25 년 영업외비용 345 억원이 반영되어 당기순손실이 450 억원으로 확대됨. 2 개 지역은 개별 개발사업 기관의 영업외비용이 지역 합산 손실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3.3 총자산순이익률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 자산 대비 손실 수준의 확대
  - 전체 총자산순이익률은 '21 년 1.6%에서 '25 년 -4.0%로 하락함. '23 년 이후 음수가 지속되어, 보유 자산에 대비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이어짐
  - '25 년 전체 자산은 26 조 5,153 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손실도 9,593 억원에서 1 조 626 억원으로 확대됨. 자산 증가보다 손실 확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총자산순이익률은 -3.7%에서 -4.0%로 하락함
  - 출자기관은 당기순이익 감소로 총자산순이익률이 '24 년 1.8%에서 '25 년 0.3%로 하락함. 출연기관은 '24 년 -5.6%에서 '25 년 -5.5%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당기순손실 감소는 4 억원에 그쳐 자산 증가가 비율 개선에 크게 작용함

[지방출자·출연기관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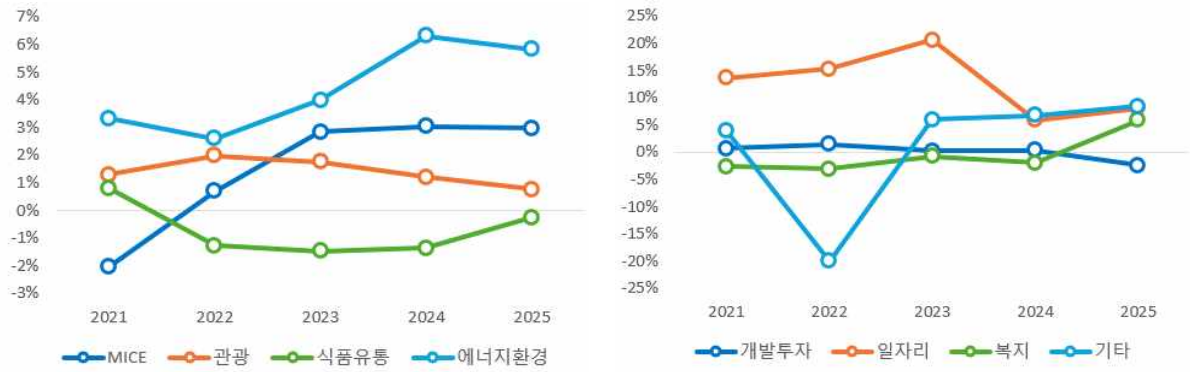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1.6%	0.2%	-2.9%	-3.7%	-4.0%
출자기관	0.9%	1.5%	1.3%	1.8%	0.3%
출연기관	1.9%	-0.4%	-4.5%	-5.6%	-5.5%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 유형별 자산 대비 수익성 차이
  - '25 년 총자산순이익률은 기타 8.5%, 일자리 8.1%, 복지 5.9%, 에너지·환경 5.8% 순임. 개발투자는 -2.4%로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었으며, 식품유통도 -0.2%로 손실이 지속됨
  - 기타·일자리·복지는 보유 자산이 각각 85 억원, 84 억원, 97 억원으로 작아 비교적 작은 이익도 높은 비율로 나타남. 높은 총자산순이익률이 출자기관 전체 이익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의미하지는 않음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2.0%	0.7%	2.8%	3.0%	3.0%
관광	1.3%	2.0%	1.8%	1.2%	0.8%
식품유통	0.8%	-1.3%	-1.5%	-1.4%	-0.2%
에너지환경	3.3%	2.6%	4.0%	6.3%	5.8%
개발투자	0.7%	1.5%	0.3%	0.4%	-2.4%
일자리	13.7%	15.3%	20.7%	5.9%	8.1%
복지	-2.7%	-3.1%	-0.8%	-2.0%	5.9%
기타	4.0%	-20.0%	6.0%	6.7%	8.5%

○ **지방출자기관 주요 유형의 변화 요인**

- 개발투자의 당기순손실 전환과 자산 감소
  - 개발투자는 ’25 년 자산이 3 조 8,902 억원으로 출자기관 전체 자산의 55.9%를 차지함. 당기순이익 149 억원에서 당기순손실 919 억원으로 전환되어, 자산 비중이 큰 유형의 손실이 출자기관 전체 총자산순이익률 하락에 크게 반영됨
  - 개발투자의 자산도 ’24 년 4 조 1,403 억원에서 감소함. 당기순손실 발생과 분모인 자산의 축소가 함께 나타나 총자산순이익률이 ’24 년 0.4%에서 -2.4%로 하락함

- 이익과 자산의 증감 속도 차이
  - MICE 는 당기순이익이 ’24 년 284 억원에서 ’25 년 328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자산도 9,330 억원에서 1 조 1,019 억원으로 확대되어, 총자산순이익률은 약 3.0%를 유지함. 이익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자산 대비 수익률의 뚜렷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 에너지·환경은 자산 증가와 당기순이익 감소가 함께 나타나 총자산순이익률이 ’24 년 6.3%에서 ’25 년 5.8%로 하락함. 매출액 감소로 매출액순이익률은 상승하였지만, 보유 자산에 대비한 이익 수준은 낮아짐

- 소규모 자산을 보유한 유형의 손익 변화
  - 식품유통은 자산 규모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당기순손실이 ’24 년 36 억원에서 ’25 년 6 억원으로 축소되어 총자산순이익률이 개선됨. 반면 관광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총자산순이익률이 ’24 년 1.2%에서 0.8%로 하락함
  - 일자리와 기타는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함께 증가하였으며, 이익 증가폭이 더 커 총자산순이익률이 상승함. 복지도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어 총자산순이익률이 양수로 전환됨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자산 및 당기순손익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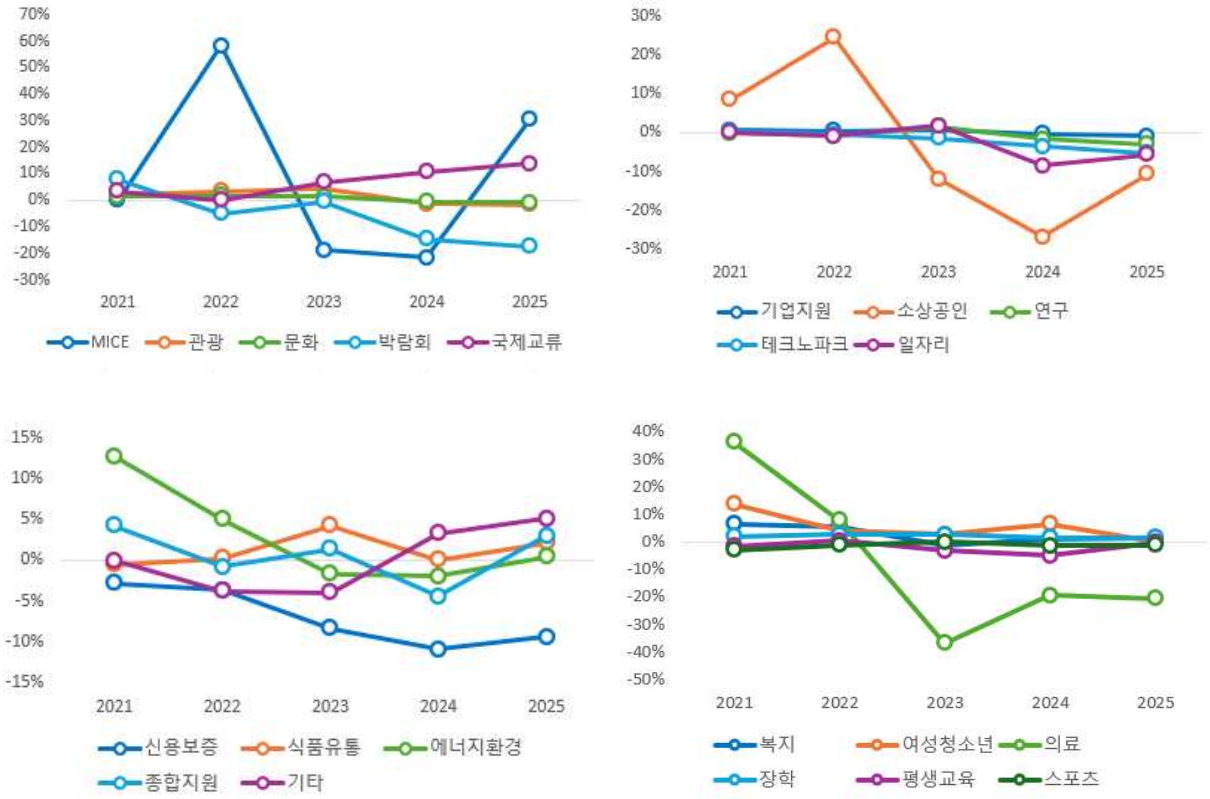
(단위:억원)

유형	‘24년 자산	‘25년 자산	‘24년 당기순손익	‘25년 당기순손익
MICE	9,330	11,019	284	328
관광	3,813	3,813	46	29
식품유통	2,623	2,583	-36	-6
에너지환경	12,635	13,019	799	760
개발투자	41,403	38,902	149	-919
일자리	70	84	4	7
기타	77	85	5	7
복지	91	97	-2	6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 손실 규모와 자산 대비 손실률의 차이
  - ’25 년 총자산순이익률은 의료 -20.6%, 박람회 -17.3%, 소상공인 -10.7%, 신용보증 -9.4% 순으로 낮음. 신용보증은 당기순손실 규모가 가장 크지만 자산 규모도 커, 자산 대비 손실률은 의료·박람회·소상공인보다 낮게 나타남
  - MICE 와 국제교류는 각각 30.7%, 13.7%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나 보유 자산은 34 억원, 86 억원임. 유형별 비율 차이에는 손익뿐 아니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규모의 차이도 반영됨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총자산순이익률]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0.0%	58.1%	-18.9%	-21.8%	30.7%
관광	1.8%	3.4%	4.4%	-1.5%	-1.7%
문화	1.3%	1.7%	1.4%	-0.7%	-0.9%
박람회	7.8%	-5.0%	-0.7%	-14.7%	-17.3%
국제교류	3.4%	-0.1%	6.8%	10.8%	13.7%
기업지원	0.7%	0.4%	0.9%	-0.3%	-1.0%
소상공인	8.5%	24.5%	-11.9%	-26.8%	-10.7%
연구	-0.2%	-0.9%	1.6%	-1.6%	-2.9%
테크노파크	0.4%	-0.5%	-1.5%	-3.5%	-5.2%
일자리	0.1%	-0.9%	1.8%	-8.5%	-5.7%
신용보증	-2.9%	-3.7%	-8.3%	-10.9%	-9.4%
식품유통	-0.5%	0.2%	4.3%	0.0%	2.1%
에너지환경	12.8%	4.9%	-1.7%	-2.0%	0.4%
종합지원	4.3%	-0.9%	1.4%	-4.4%	3.0%
기타	0.0%	-3.8%	-3.9%	3.3%	5.1%
복지	6.5%	5.5%	-1.1%	0.7%	1.2%
여성청소년	13.6%	3.9%	2.7%	6.5%	0.2%
의료	36.2%	7.8%	-37.0%	-19.5%	-20.6%
장학	1.9%	2.7%	2.6%	1.6%	1.4%
평생교육	-1.7%	0.4%	-3.1%	-5.1%	-0.3%
스포츠	-3.1%	-1.3%	-0.1%	-1.5%	-1.2%

○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변화 요인**

- 주요 손실 유형의 자산 규모와 손익 변화
  - 신용보증은 ’25 년 자산이 7 조 9,470 억원으로 출연기관 전체 자산의 40.6%를 차지함. 당기순손실 축소와 자산 증가가 함께 나타나 총자산순이익률은 ’24 년 -10.9%에서 -9.4%로 개선됨. 자본으로 수령한 출연금은 당기순이익을 늘리지 않으면서 자산과 자본을 확충할 수 있어, 총자산순이익률과 자본 증감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
  - 의료는 ’25 년 자산이 전년과 유사한 가운데 당기순손실이 1,602 억원에서 1,690 억원으로 확대되어 총자산순이익률이 ’24 년 -19.5%에서 -20.6%로 하락함. 테크노파크도 자산 규모에 큰 변화 없이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여 ’24 년 -3.5%에서 -5.2%로 하락함

- 자산 감소와 손실 변동의 복합 영향
  - 박람회는 ’25 년 당기순손실이 약 30 억원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자산이 ’24 년 203 억원에서 174 억원으로 감소하여 총자산순이익률이 -14.7%에서 -17.3%로 하락함. 연구는 자산 감소와 당기순손실 확대가 함께 나타나 -1.6%에서 -2.9%로 하락함
  - 소상공인은 자산이 ’24 년 216 억원에서 147 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손실이 58 억원에서 16 억원으로 더 크게 축소되어 총자산순이익률이 개선됨. 자산 감소가 나타난 유형이라도 손실 변동에 따라 지표의 변화 방향은 달라짐

- 소규모 자산 유형의 높은 수익률
  - ’25 년 MICE 는 자산 34 억원에 당기순이익 11 억원, 국제교류는 자산 86 억원에 당기순이익 12 억원이 발생함. 두 유형의 높은 총자산순이익률에는 작은 자산 규모가 작용하며, 전체 출연기관 이익에 대한 기여 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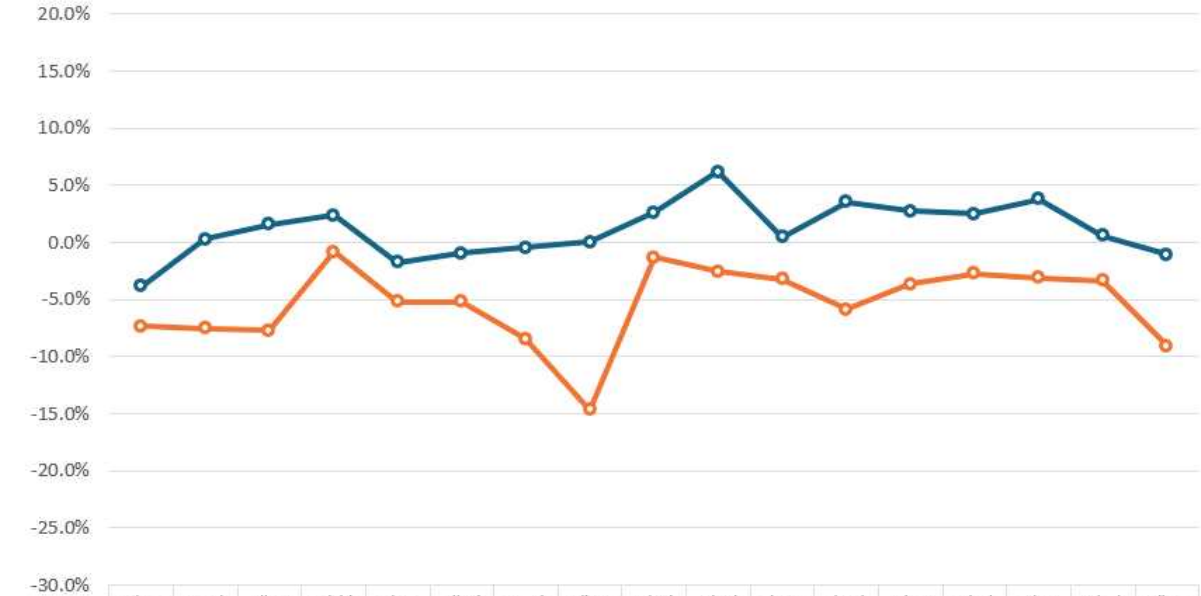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자산 및 당기순손익 변화]

(단위:억원)

유형	‘24년 자산	‘25년 자산	‘24년 당기순손익	‘25년 당기순손익
신용보증	74,300	79,470	-8,131	-7,472
의료	8,234	8,224	-1,602	-1,690
테크노파크	28,922	28,849	-1,017	-1,504
박람회	203	174	-30	-30
연구	7,586	7,004	-120	-203
소상공인	216	147	-58	-16
MICE	21	34	-5	11
국제교류	78	86	8	12

○ 지역별 총자산순이익률과 주요 영향 요인

[지역별 총자산순이익률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1	-3.8%	0.3%	1.6%	2.4%	-1.7%	-0.9%	-0.5%	0.1%	2.6%	6.2%	0.5%	3.5%	2.7%	2.5%	3.8%	0.6%	-1.1%
2025	-7.3%	-7.5%	-7.7%	-0.8%	-5.2%	-5.2%	-8.5%	-14.7%	-1.3%	-2.6%	-3.2%	-5.8%	-3.6%	-2.7%	-3.1%	-3.3%	-9.0%
증감	-3.5	-7.8	-9.3	-3.2	-3.5	-4.2	-8.0	-9.4	-3.9	-8.8	-3.7	-9.4	-6.4	-5.2	-6.9	-3.8	-8.0

- 지역별 자산 대비 손실 수준
  - ’25 년 모든 지역의 총자산순이익률이 음수이며, 세종 -14.7%, 제주 -9.0%, 울산 -8.5% 순으로 낮음. 인천 -0.8%, 경기 -1.3%는 자산 대비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합산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임
  - ’25 년 세종은 자산 2,790 억원에 당기순손실 410 억원이 발생함. 세종스마트그린 146 억원, 세종신용보증재단 116 억원,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79 억원 등 주요 기관의 손실이 지역 자산 대비 손실률에 크게 반영됨
  - ’25 년 울산은 자산 7,233 억원에 당기순손실 612 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울산복합도시개발의 당기순손실이 450 억원을 차지함. 해당 기관은 자산 2,971 억원에 총자산순이익률 -15.2%를 기록하여 지역 전체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침

4. 수지분석

4.1 총수지비율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총수지비율 변화

- 총비용 대비 수익 충당 수준의 하락
  - 전체 총수지비율은 '21 년 103.3%에서 '25 년 94.1%로 하락함. '23 년 이후 100% 미만이 지속되어, 영업외수익을 포함한 총수익이 회계상 총비용에 미달하는 상태임
  - '25 년 총수익은 17 조 585 억원, 총비용은 18 조 1,212 억원으로 수지차는 -1 조 626 억원임. 총비용 100 원당 총수익이 94.1 원 발생한 수준이며, 총수지비율은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여 수지 부족액은 1,033 억원 확대됨
  - 출자기관은 총수지비율이 '24 년 104.6%에서 100.9%로 하락하여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정도가 축소됨. 출연기관은 '24 년 91.7%에서 93.1%로 개선되었으나 수지 부족액은 약 1 조 838 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지방출자·출연기관 총수지비율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103.3%	100.4%	94.8%	93.9%	94.1%
출자기관	103.2%	105.2%	103.9%	104.6%	100.9%
출연기관	103.3%	99.4%	93.0%	91.7%	93.1%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총수지비율 추이**

- 영업외손익 반영에 따른 비용 충당 수준의 차이
  - '25 년 출자기관은 8 개 유형 중 6 개 유형에서 총수지비율이 100%를 상회함. 반면 개발투자는 93.1%, 식품유통은 99.8%로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함
  - 개발투자는 '25 년 영업수지비율이 107.9%로 영업비용을 충당하였으나, 영업외손실과 법인세비용 반영 이후 총수지비율은 93.1%로 낮아짐. 영업단계에서 발생한 이익보다 영업외손실 등의 부담이 커 당기순손실로 전환됨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총수지비율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87.1%	104.0%	116.2%	116.6%	118.8%
관광	116.4%	122.2%	118.5%	112.4%	107.9%
식품유통	100.6%	99.0%	98.8%	98.9%	99.8%
에너지환경	113.5%	106.5%	110.8%	116.1%	120.2%
개발투자	102.9%	106.1%	100.9%	100.9%	93.1%
일자리	106.8%	105.5%	107.5%	101.8%	102.1%
복지	13.8%	42.3%	76.0%	43.5%	269.8%
기타	102.7%	88.3%	101.7%	102.3%	103.1%

○ **지방출자기관 주요 유형의 변화 요인**

- 개발투자의 총수익 감소와 수지 부족 전환
  - 개발투자의 총수익은 ’24 년 1 조 6,574 억원에서 ’25 년 1 조 2,309 억원으로, 총비용은 같은 기간 1 조 6,425 억원에서 1 조 3,228 억원으로 감소함. ’25 년에는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하여 총수지비율이 ’24 년 100.9%에서 ’25 년 93.1%로 하락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비율 상승과 이익 규모 변화의 차이
  - MICE 는 총수익이 ’24 년 1,992 억원에서 ’25 년 2,075 억원으로, 총비용은 1,708 억원에서 1,747 억원으로 증가함. 수익 증가율이 비용 증가율을 상회하여 총수지비율은 ’24 년 116.6%에서 ’25 년 118.8%로 상승함
  - 에너지·환경은 총수익이 ’24 년 5,764 억원에서 ’25 년 4,522 억원으로, 총비용은 4,965 억원에서 3,762 억원으로 감소함. 비용 감소율이 수익 감소율보다 높아 총수지비율은 ’24 년 116.1%에서 ’25 년 120.2%로 상승했으나,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799 억원에서 760 억원으로 감소함

- 수익 인식 위치와 소규모 비용의 영향
  - 복지는 매출액 없이 영업외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여, ‘25 년 영업수지비율은 0.0%이나 총수지비율은 269.8%로 나타남. 총수익 약 9 억원, 총비용 약 3 억원의 작은 규모에서 산출된 비율로, 다른 유형보다 자체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의미는 아님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총수익 및 총비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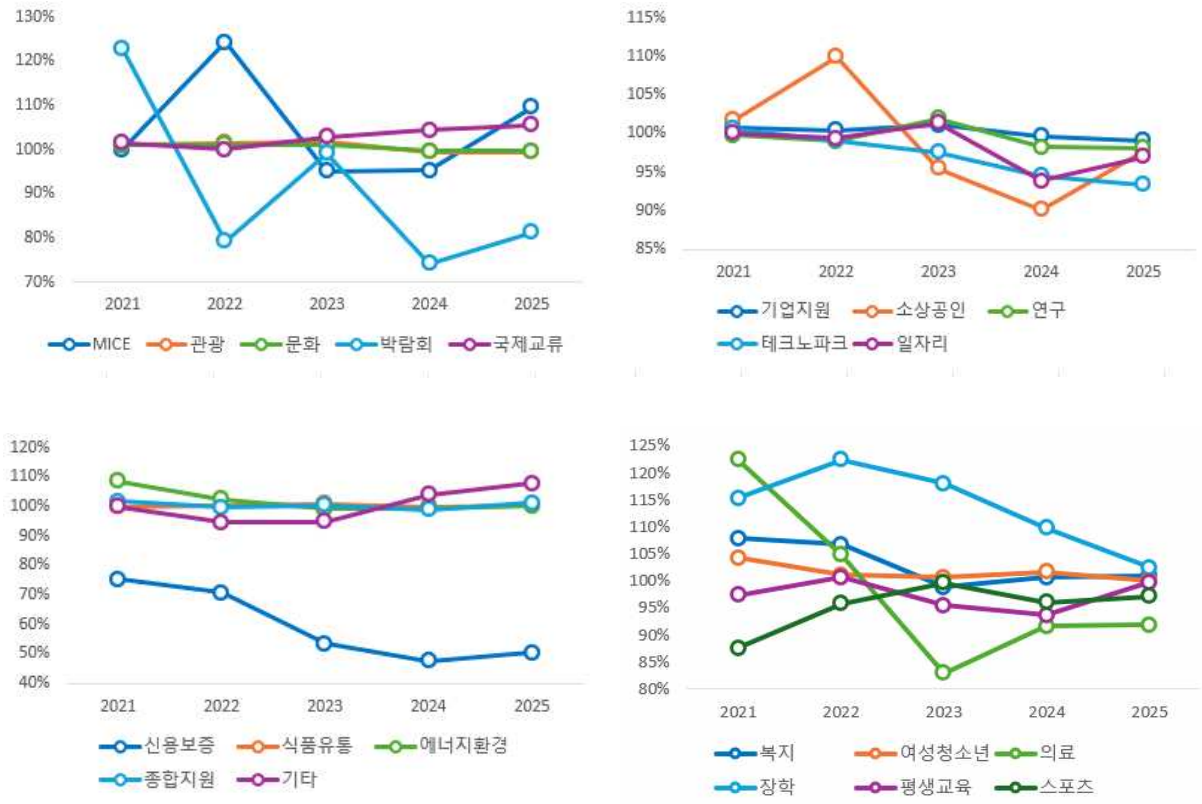
(단위:억원)

유형	‘24년 총수익	‘25년 총수익	‘24년 총비용	‘25년 총비용
MICE	1,992	2,075	1,708	1,747
관광	416	399	370	370
식품유통	3,366	3,644	3,402	3,650
에너지·환경	5,764	4,522	4,965	3,762
개발투자	16,574	12,309	16,425	13,228
일자리	232	331	228	324
기타	231	239	226	232
복지	1	9	3	3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총수지비율 추이**

- 유형별 수익·비용 균형의 차이
  - '25 년 출연기관은 21 개 유형 중 12 개 유형에서 총수지비율이 100%에 미달함. 신용보증 50.2%, 박람회 81.2%, 의료 91.9% 등에서 총비용 대비 수익 충당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복지·여성·청소년·장학은 '25 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외수익 반영 이후 총수지비율이 100%를 상회함. 지원 수익 등이 매출액 또는 영업외수익 중 어디에 계상되는지에 따라 영업수지비율과 총수지비율의 차이가 발생함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총수지비율 추이]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총수지비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100.0%	124.3%	95.1%	95.2%	109.7%
관광	101.0%	101.5%	101.7%	99.5%	99.4%
문화	101.0%	101.2%	100.9%	99.6%	99.5%
박람회	122.8%	79.2%	99.1%	74.1%	81.2%
국제교류	101.6%	100.0%	102.9%	104.4%	105.6%
기업지원	100.8%	100.4%	101.1%	99.6%	99.1%
소상공인	101.7%	110.0%	95.5%	90.1%	97.8%
연구	99.8%	99.0%	101.9%	98.2%	98.2%
테크노파크	100.6%	99.1%	97.6%	94.5%	93.4%
일자리	100.0%	99.4%	101.3%	93.8%	97.0%
신용보증	75.3%	70.6%	53.5%	47.5%	50.2%
식품유통	99.8%	100.1%	101.0%	100.0%	100.4%
에너지환경	108.6%	102.5%	99.2%	99.4%	100.1%
종합지원	101.6%	99.7%	100.3%	98.9%	101.1%
기타	100.0%	94.7%	94.7%	104.1%	107.8%
복지	107.9%	106.7%	98.8%	100.7%	101.0%
여성청소년	104.3%	101.1%	100.7%	101.7%	100.1%
의료	122.5%	104.9%	83.0%	91.7%	91.9%
장학	115.4%	122.4%	118.1%	109.8%	102.5%
평생교육	97.4%	100.7%	95.4%	93.6%	99.8%
스포츠	87.6%	95.8%	99.6%	96.1%	97.2%

○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변화 요인**

- 신용보증의 회계상 수지와 자본 확충의 구분
  - 신용보증은 ’25 년 총수익 7,537 억원, 총비용 1 조 5,009 억원으로 총수지비율이 50.2%임. 전년 대비 수익 증가와 비용 감소로 수지 부족액은 축소되었으나,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비용의 약 절반 수준임
  - 자본으로 계상된 출연금은 총수익에 포함되지 않음. ’25 년 신용보증재단은 당기순손실 7,472 억원이 발생한 가운데 출연금 잔액이 증가하고 자본총계도 3,564 억원 증가하여, 낮은 총수지비율과 자본 확충이 동시에 나타남

- 비율 개선과 수지 부족액의 차이
  - 의료는 ‘24 년 총수익이 ‘24 년보다 1,544 억원 증가하였으나 총비용은 1,632 억원 증가하여 수지 부족액이 1,690 억원으로 확대됨. 총수지비율은 ’24 년 91.7%에서 ‘25 년 91.9%로 상승하였지만 실제 부족액은 증가함
  - 박람회는 수지 부족액이 ’25 년 약 30 억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익·비용 규모가 확대되어 총수지비율이 개선됨

- 비용 증가와 영업외수지의 영향
  - 테크노파크는 총비용 증가액이 총수익 증가액을 상회하여 총수지비율이 ‘24 년 94.5%에서 ’25 년 93.4%로 하락함. 기업지원도 비용 증가액이 수익 증가액을 상회하여 수지 부족액이 확대됨
  - 복지·여성·청소년·장학은 영업외수지가 영업손실을 보완하여 ‘25 년 총수지비율이 100%를 상회함. 스포츠도 영업수지비율은 86.1%이나 영업외수지 반영 이후 총수지비율은 97.2%로 높아져, 영업외수익이 비용 충당 수준을 보완하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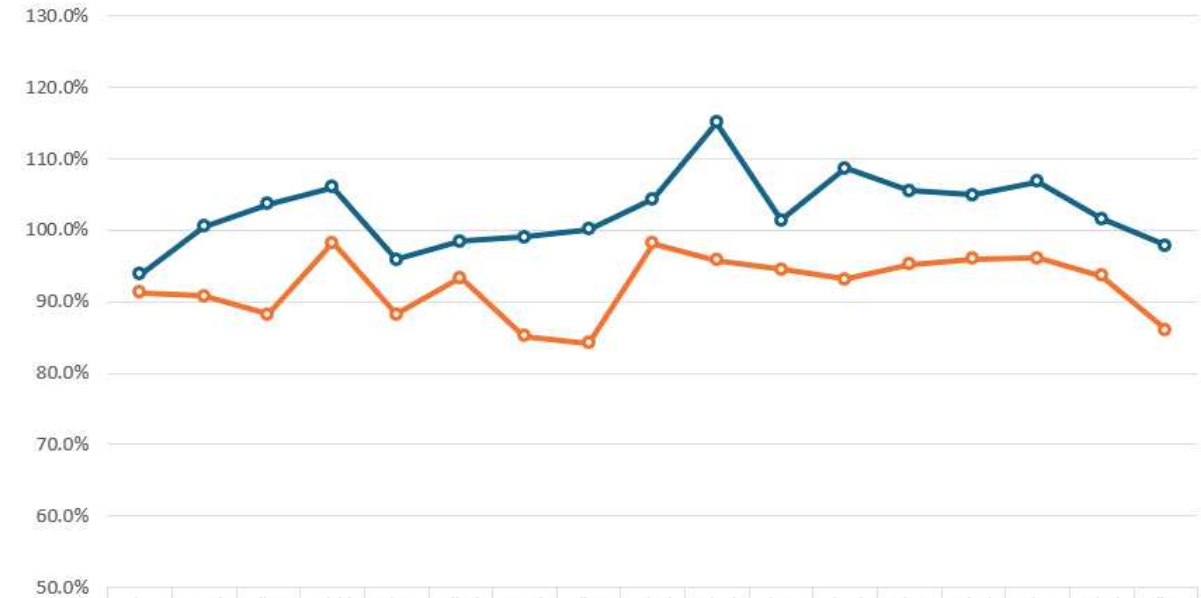
[‘25년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억원)

유형	총수익	총비용	수지차	총수지비율
신용보증	7,537	15,009	-7,472	50.2%
의료	19,152	20,842	-1,690	91.9%
테크노파크	21,287	22,791	-1,504	93.4%
박람회	130	160	-30	81.2%
복지	6,207	6,143	64	101.0%
여성·청소년	4,541	4,538	2	100.1%
장학	13,512	13,178	334	102.5%
스포츠	1,125	1,158	-33	97.2%
에너지·환경	1,126	1,125	1	100.1%

○ 지역별 총수지비율과 수지 부족 규모

[지역별 총수지비율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1	93.8%	100.5%	103.7%	106.0%	95.9%	98.5%	99.0%	100.2%	104.4%	115.1%	101.4%	108.6%	105.5%	105.0%	106.8%	101.6%	97.9%
2025	91.3%	90.8%	88.3%	98.2%	88.3%	93.4%	85.2%	84.2%	98.2%	95.8%	94.5%	93.2%	95.2%	96.0%	96.1%	93.7%	86.0%
증감	-2.5	-9.7	-15.4	-7.8	-7.6	-5.1	-13.8	-15.9	-6.2	-19.3	-6.9	-15.5	-10.3	-9.0	-10.8	-8.0	-11.9

- 지역별 비용 충당 수준과 절대 손실 규모의 차이
  - ’25 년 모든 지역에서 총수지비율이 100%에 미달함. 세종 84.2%, 울산 85.2%, 제주 86.0% 순으로 낮아 총비용 대비 수익 충당 수준에 지역별 차이가 나타남
  - 서울은 ‘25 년 총수지비율이 91.3%로 가장 낮은 지역은 아니지만 수지 부족액은 1,530 억원으로 가장 큼. 경기도 총수지비율은 98.2%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총비용 규모가 커 672 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여, 비율 순위와 손실 규모의 순위는 다르게 나타남
  - 세종은 ’25 년 총수익 2,187 억원에 총비용 2,596 억원이 발생하여 수지 부족액이 410 억원임. 세종스마트그린·세종신용보증재단·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의 수지 부족액 합계가 341 억원으로, 주요 기관의 손실이 지역 전체 수지에 크게 반영됨

4.2 영업수지비율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영업수지비율 변화

- 영업비용 대비 매출액의 부족 지속
  - 전체 영업수지비율은 ’21 년 95.8%에서 ’25 년 91.9%로 하락함. 분석기간 동안 100% 미만이 지속되어, 매출액이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에 미달하는 상태임
  - ’25 년 매출액은 16 조 566 억원, 영업비용은 17 조 4,792 억원으로 영업수지 부족액은 1 조 4,227 억원임. 영업수지비율은 전년 90.8%보다 상승하였으나 부족액은 약 130 억원 확대되어, 비율 개선과 손실 규모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
  - 출자기관의 영업수지비율은 ‘25 년 110.5%로 총수지비율 100.9%보다 높아, 영업이익이 영업외손익과 법인세 반영 이후 축소됨. 반면 출연기관은 영업수지비율 89.4%가 총수지비율 93.1%보다 낮아, 영업외수지가 영업단계의 부족분을 일부 보완함

[지방출자·출연기관 영업수지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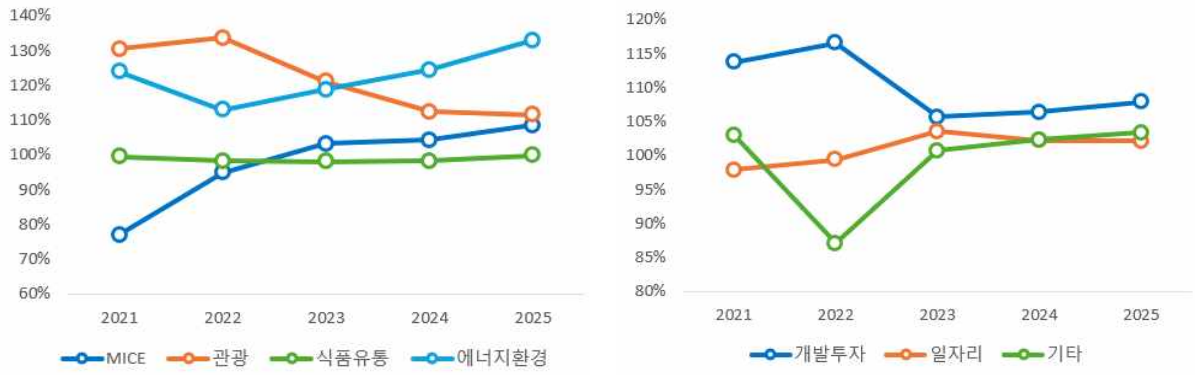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95.8%	95.6%	92.0%	90.8%	91.9%
출자기관	110.0%	111.5%	107.2%	108.4%	110.5%
출연기관	93.3%	92.7%	89.1%	87.3%	89.4%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영업수지비율 추이

- 유형별 영업비용 충당 수준
  - '25 년 영업수지비율은 에너지·환경 133.0%, 관광 111.6%, MICE 108.6%, 개발투자 107.9% 등에서 100%를 상회함. 식품유통은 99.8%로 영업비용 충당에 소폭 미달함
  - 개발투자는 '25 년 영업수지비율이 100%를 상회하지만 총수지비율은 93.1%임. 영업단계에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더라도 영업외손실과 법인세비용이 더해지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임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영업수지비율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77.0%	94.9%	103.2%	104.3%	108.6%
관광	130.5%	133.7%	121.2%	112.5%	111.6%
식품유통	99.4%	98.3%	98.2%	98.3%	99.8%
에너지환경	124.0%	113.0%	118.8%	124.5%	133.0%
개발투자	113.8%	116.6%	105.7%	106.4%	107.9%
일자리	97.9%	99.4%	103.6%	102.2%	102.1%
기타	103.0%	87.0%	100.7%	102.3%	103.3%

※ 복지는 매출액이 없어 영업수지비율이 0.0%로 산출됨. 그래프에서는 제외하되 표와 전체 지표에는 포함함

○ 지방출자기관 주요 유형의 영업수지 구조

- 영업수지와 총수지의 차이
  - 개발투자는 '25 년 매출액 1 조 1,888 억원이 영업비용 1 조 1,022 억원을 상회하여 영업이익 866 억원이 발생함. 그러나 영업외손익과 법인세 반영 이후 당기순손실 919 억원으로 전환되어, 영업비용 충당과 전체 비용 충당 여부에 차이가 나타남
  - MICE 는 '25 년 영업수지비율과 총수지비율이 모두 100%를 상회하여 영업활동과 전체 수지에서 이익이 발생함. 반면 개발투자는 영업수지비율이 107.9%이나 총수지비율은 93.1%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영업외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임
  - 에너지·환경은 '25 년 영업수지비율이 총수지비율보다 높아 영업외손익 등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일부 축소함. 식품유통은 두 비율 모두 99.8%로, 영업활동과 전체 수지에서 수익이 비용에 소폭 미달함

- 수익 인식 위치에 따른 지표 차이
  - 복지는 '25 년 매출액 없이 영업외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여 영업수지비율은 0.0%, 총수지비율은 269.8%로 나타남. 영업수지비율 0.0%는 수익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구조를 반영함

['25년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영업수지 및 총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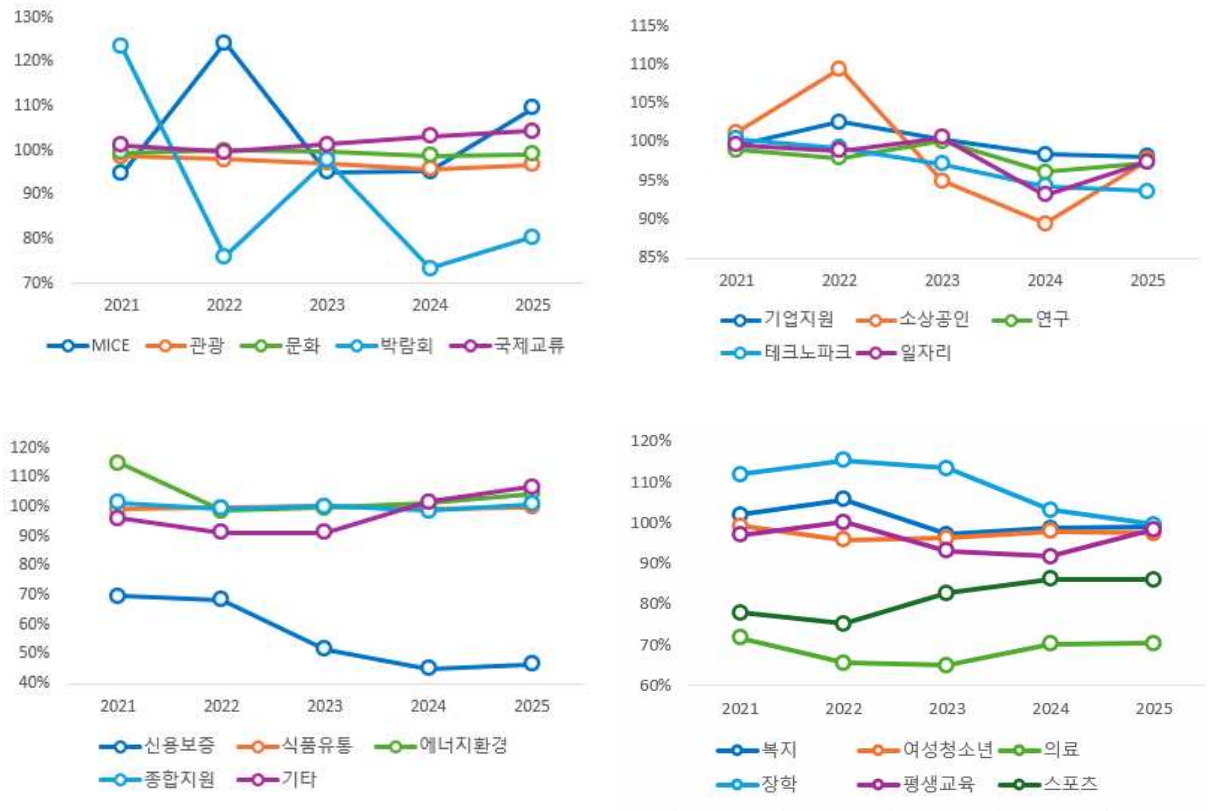
(단위:억원)

유형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수지비율	총수지비율
MICE	1,855	1,708	147	108.6%	118.8%
관광	362	325	38	111.6%	107.9%
식품유통	3,565	3,570	-6	99.8%	99.8%
에너지·환경	4,422	3,326	1,097	133.0%	120.2%
개발투자	11,888	11,022	866	107.9%	93.1%
일자리	326	319	7	102.1%	102.1%
기타	236	228	8	103.3%	103.1%
복지	0	3	-3	0.0%	269.8%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영업수지비율 추이**

- 영업단계의 비용 충당 부족과 영업외수지의 보완
  - '25 년 출연기관은 21 개 유형 중 15 개 유형에서 영업수지비율이 100%에 미달함. 신용보증 46.6%, 의료 70.4%, 박람회 80.3%, 스포츠 86.1% 등에서 영업비용 대비 매출액의 부족 수준이 크게 나타남
  - 총수지비율이 '25 년 100%에 미달하는 유형은 12 개로, 복지·여성·청소년·장학은 영업외수익 반영 이후 총수익이 총비용을 상회함. 영업수지와 총수지의 차이는 영업외손익뿐 아니라 지원 수익의 분류 위치에도 영향을 받음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영업수지비율 추이]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영업수지비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94.7%	124.3%	95.1%	95.2%	109.7%
관광	98.6%	98.0%	97.1%	95.8%	96.9%
문화	99.5%	99.9%	99.7%	98.7%	99.1%
박람회	123.5%	76.0%	97.7%	73.3%	80.3%
국제교류	101.2%	99.6%	101.3%	103.2%	104.3%
기업지원	99.7%	102.6%	100.3%	98.4%	98.2%
소상공인	101.2%	109.5%	95.0%	89.4%	97.7%
연구	99.0%	97.9%	100.1%	96.2%	97.4%
테크노파크	100.4%	99.2%	97.2%	94.3%	93.6%
일자리	99.7%	98.9%	100.6%	93.1%	97.5%
신용보증	69.6%	68.5%	51.5%	45.0%	46.6%
식품유통	99.2%	99.7%	100.3%	99.3%	100.0%
에너지환경	114.8%	98.5%	99.6%	101.1%	104.4%
종합지원	101.5%	99.5%	100.1%	98.7%	101.0%
기타	96.1%	91.4%	91.3%	101.6%	106.8%
복지	102.0%	105.7%	97.1%	98.8%	99.0%
여성청소년	99.4%	95.8%	96.3%	97.9%	97.5%
의료	71.7%	65.6%	64.9%	70.3%	70.4%
장학	111.9%	115.4%	113.4%	103.3%	99.6%
평생교육	97.1%	100.2%	93.1%	91.7%	98.4%
스포츠	77.9%	75.2%	82.8%	86.1%	86.1%

○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영업수지 구조**

- 보증사업의 비용과 자본 출연금의 구분
  - 신용보증은 '25 년 매출액 6,811 억원에 영업비용 1 조 4,618 억원이 발생하여 영업수지비율이 46.6%임. 영업비용에는 구상채권 관련 손실과 대위변제준비금 전입액 등이 포함되지만, 자본으로 계상된 출연금은 매출액에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해당 비율은 손익계산서상 비용 충당 수준을 나타내며, 출연금에 의한 자본 확충까지 반영한 지표는 아님

- 영업수지와 전체 수지의 차이
  - 의료는 '25 년 영업수지비율이 70.4%로, 매출액이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임. 영업외수익 등이 손실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총수지비율도 91.9%에 그쳐 전체 수지에서도 손실이 발생함
  - 신용보증은 '25 년 영업수지비율과 총수지비율이 모두 낮게 나타남. 다만 자본으로 계상되는 출연금은 두 비율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수지 부족을 자본 확충까지 포함한 재무상태의 악화로 단정하지 않음

- 영업외수익의 비용 보완 효과
  - 복지·여성·청소년·장학은 '25 년 영업수지비율이 100%에 미달하나 총수지비율은 100%를 상회함. 영업외수익 등이 영업손실을 보완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영업수지와 전체 수지의 차이는 수익의 회계상 분류에도 영향을 받음
  - 테크노파크는 '25 년 영업수지비율과 총수지비율이 각각 93.6%, 93.4%로, 영업외손익 등이 영업손실을 보완하지 못함. 박람회와 스포츠도 총수지비율이 각각 81.2%, 97.2%로 전체 비용 충당에 미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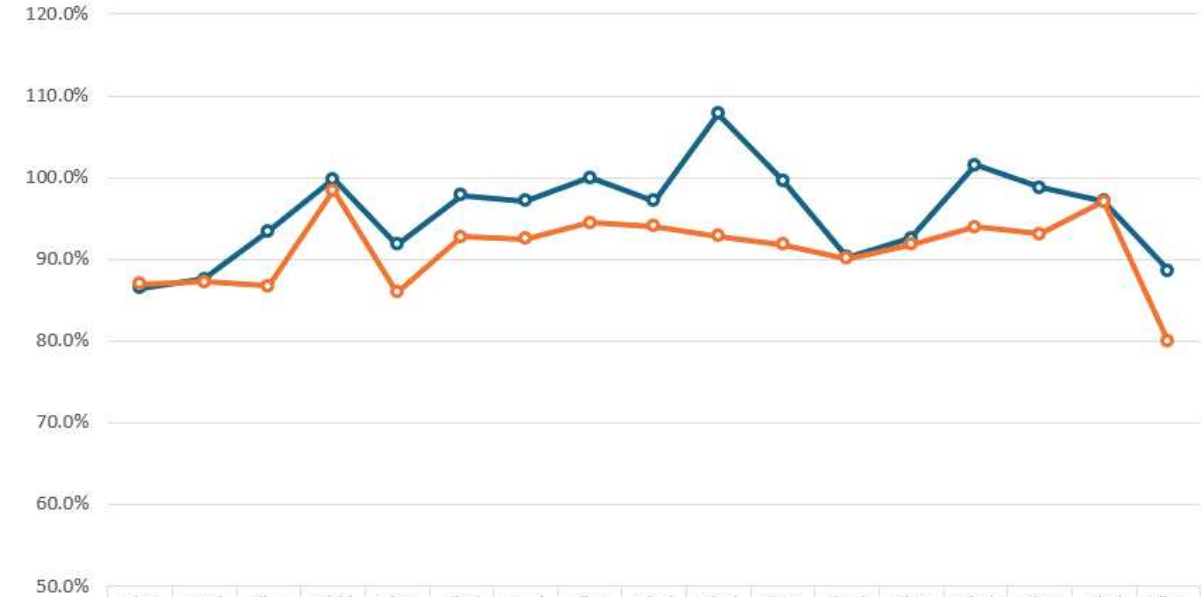
['25년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영업수지 및 총수지]

(단위:억원)

유형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수지차	영업수지비율	총수지비율
신용보증	6,811	14,618	-7,807	46.6%	50.2%
의료	13,468	19,134	-5,666	70.4%	91.9%
테크노파크	21,188	22,635	-1,447	93.6%	93.4%
박람회	128	160	-31	80.3%	81.2%
복지	6,020	6,083	-63	99.0%	101.0%
여성·청소년	4,394	4,508	-114	97.5%	100.1%
장학	12,712	12,757	-45	99.6%	102.5%
스포츠	983	1,141	-158	86.1%	97.2%

○ 지역별 영업수지비율과 주요 영향 요인

[지역별 영업수지비율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1	86.5%	87.6%	93.4%	99.8%	91.8%	97.8%	97.2%	99.9%	97.2%	107.8%	99.6%	90.2%	92.6%	101.5%	98.8%	97.2%	88.6%
2025	87.0%	87.2%	86.7%	98.4%	86.0%	92.7%	92.5%	94.5%	94.1%	92.8%	91.8%	90.1%	91.8%	94.0%	93.1%	97.0%	79.9%
증감	0.5	-0.4	-6.7	-1.3	-5.8	-5.1	-4.7	-5.5	-3.1	-14.9	-7.8	-0.2	-0.8	-7.6	-5.7	-0.1	-8.7

- 지역별 영업비용 충당 수준과 총수지의 차이
  - ’25 년 모든 지역에서 영업수지비율이 100%에 미달함. 제주 79.9%, 광주 86.0%, 대구 86.7% 순으로 낮아, 영업비용 대비 매출액의 부족 수준에 지역별 차이가 나타남
  - 제주는 신용보증재단과 서귀포의료원·제주의료원의 영업손실이 지역 전체 영업수지에 크게 반영됨. 지역별 비율에는 기관별 운영성과와 함께 신용보증·의료 등 주요 사업 유형의 구성 차이도 영향을 미침
  - ‘25 년 세종과 울산은 영업수지비율이 각각 94.5%, 92.5%이나 총수지비율은 84.2%, 85.2%로 더 낮음. 개발사업 기관의 영업외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영업단계보다 전체 수지의 비용 충당 수준이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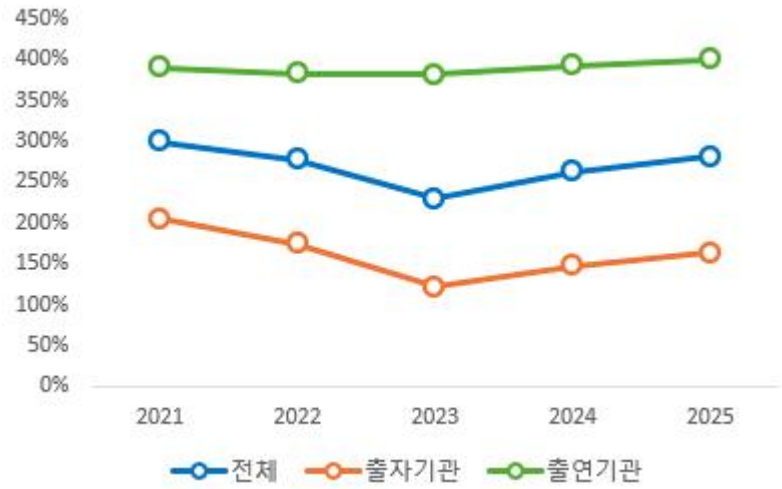
5. 재무안정성 분석

5.1 유동비율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유동비율 변화

- 유동부채 감소에 따른 유동비율 상승
  - 전체 유동비율은 ’21 년 298.6%에서 ’23 년 229.5%까지 하락한 이후 ’25 년 281.4%로 회복됨. 다만 ’21 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분석기간 전체로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이 낮아짐
  - ’25 년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208 억원 증가한 반면 유동부채는 3,588 억원 감소함. 최근 비율 상승에는 유동자산 증가보다 유동부채 감소가 크게 작용함
  - ’25 년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유동비율은 각각 163.0%, 399.8%임. 두 집단 모두 100%를 상회하지만 개별 기관 중 출자기관 20 개, 출연기관 23 개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에 미달하여 합산 지표와 기관별 상태에 차이가 나타남

[지방출자·출연기관 유동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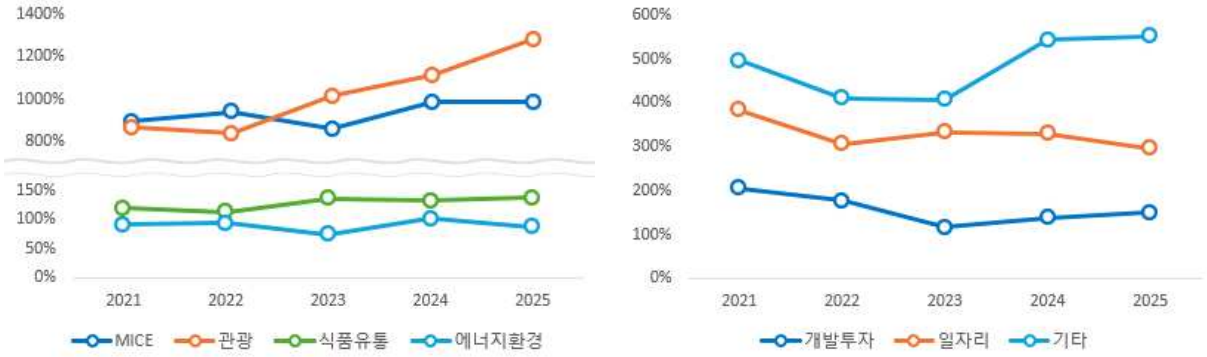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298.6%	277.3%	229.5%	262.4%	281.4%
출자기관	204.4%	174.7%	121.6%	147.7%	163.0%
출연기관	389.7%	382.7%	381.6%	392.6%	399.8%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유동비율 추이**

- 유형별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규모 차이
  - '25 년 출자기관은 에너지·환경의 유동비율이 86.9%로 유형 합산 기준에서 유일하게 100%에 미달함. 식품유통과 개발투자는 각각 137.4%, 149.5%로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관광과 MICE 는 '25 년 각각 1,281.9%, 986.0%로 높게 나타남. 다만 높은 비율에는 유동부채가 작은 영향도 포함되어, 비율 수준이 현금 보유 규모의 순위와 일치하지는 않음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유동비율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893.1%	938.9%	859.0%	985.2%	986.0%
관광	864.7%	838.8%	1012.5%	1112.6%	1281.9%
식품유통	119.5%	112.8%	135.7%	132.0%	137.4%
에너지환경	91.0%	93.6%	74.7%	101.0%	86.9%
개발투자	205.2%	176.9%	116.6%	137.5%	149.5%
일자리	383.2%	307.2%	333.6%	330.7%	297.2%
복지	1116.7%	196133.5%	121599.6%	206390.5%	355697.5%
기타	496.2%	410.6%	407.4%	543.6%	551.4%

※ 복지는 유동부채의 절대 규모가 매우 작아 높은 비율이 산출되므로 그래프에서 제외하되, 표와 전체 지표에는 포함함

○ **지방출자기관 주요 유형의 변화 요인**

- 개발투자의 유동부채 감소에 따른 비율 개선
  - 개발투자는 '24 년 대비 '25 년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유동부채 감소 폭이 더 커 유동비율이 상승함. 유동자산 확대보다 단기 지급의무의 감소가 비율 개선을 이끈 구조임
  - '25 년 유동자산은 3 조 5,907 억원으로 유동부채 2 조 4,023 억원을 상회함. 다만 유동자산에는 현금 이외 자산도 포함되어 있어, 유동자산 전액을 즉시 지급 가능한 자금으로 해석하지 않음

- 에너지·환경의 유동자산 감소와 유형 내부 격차
  - 에너지·환경은 유동자산 감소폭이 유동부채 감소폭보다 커 유동비율이 '24 년 101.0%에서 86.9%로 하락함. '25 년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보다 약 308 억원 적으며, 유형 내 3 개 기관에서 유동비율이 100%에 미달함
  - 식품유통은 '25 년 유동자산 증가와 유동부채 감소로 유동비율이 개선되었으나, 개별 기관 중 5 개 기관은 100%에 미달함. 유형 합산 비율의 개선과 개별 기관의 유동자산 부족이 동시에 나타남

- 작은 유동부채가 비율에 미치는 영향
  - 복지는 유동부채가 1 억원 미만으로 매우 작아 유동비율이 크게 산출됨. 일자리는 유동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유동부채 증가율이 더 높아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자산과 부채의 상대적 증감에 따라 지표가 달라짐

[지방출자기관 주요 유형의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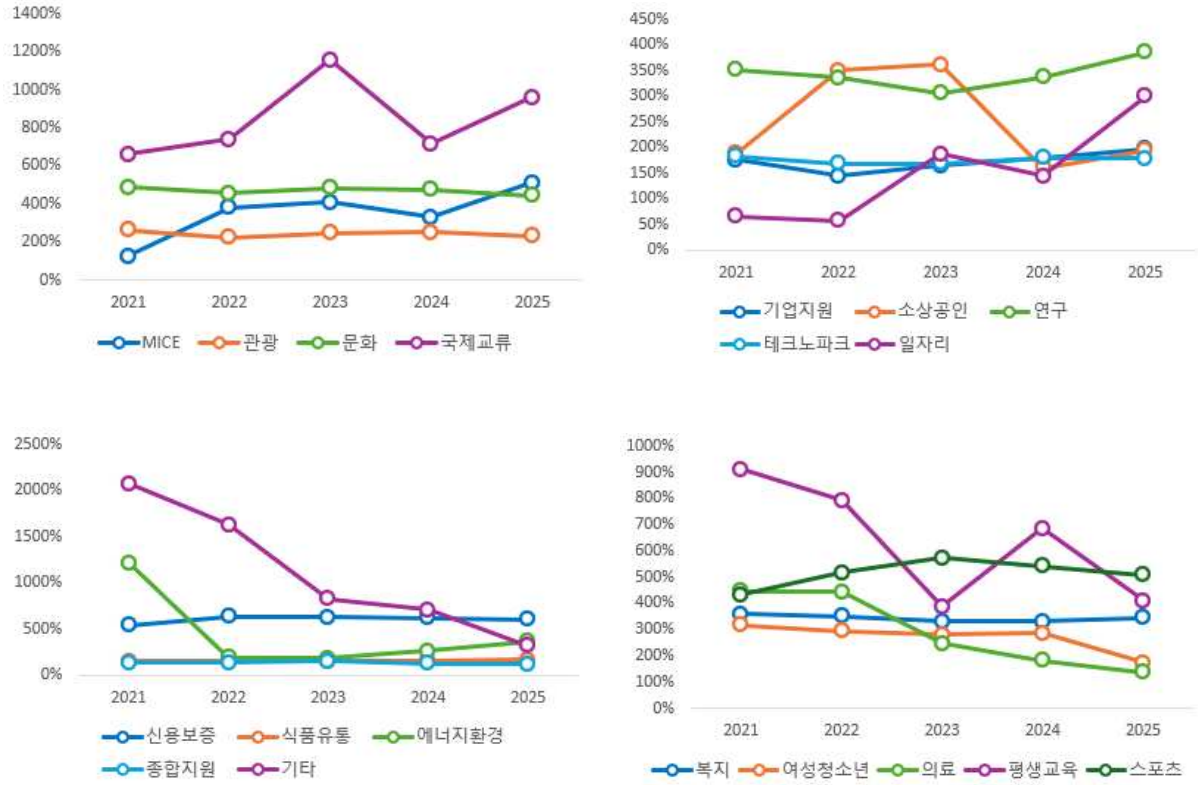
(단위:억원)

유형	'24년 유동자산	'25년 유동자산	'24년 유동부채	'25년 유동부채
MICE	3,799	5,235	386	531
관광	860	877	77	68
식품유통	1,301	1,319	985	960
에너지·환경	2,421	2,047	2,397	2,354
개발투자	38,203	35,907	27,781	24,023
일자리	66	80	20	27
복지	41	47	0	0
기타	75	83	14	15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유동비율 추이**

- 출연기관 전체와 개별 기관의 차이
  - '25 년 출연기관은 모든 유형의 합산 유동비율이 100%를 상회함. 종합지원 114.5%, 의료 136.0%, 식품유통 160.3%, 여성·청소년 174.4% 등은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개별 기관 중 23 개 기관은 '25 년 유동비율이 100%에 미달하며, 의료 8 개, 문화 5 개, 여성·청소년 5 개 기관 등이 포함됨. 유형 전체에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하더라도 기관별로는 부족이 발생함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유동비율 추이]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유동비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124.2%	378.8%	407.7%	329.1%	509.2%
관광	262.1%	224.5%	246.5%	249.2%	230.6%
문화	488.3%	455.3%	482.6%	475.7%	458.6%
박람회	1512.7%	4548.5%	10799.6%	6092.2%	2016.6%
국제교류	661.7%	738.4%	1154.7%	716.1%	960.6%
기업지원	175.8%	144.5%	164.0%	178.0%	197.3%
소상공인	187.7%	350.6%	361.8%	159.9%	194.0%
연구	351.6%	335.2%	305.8%	336.5%	386.0%
테크노파크	183.0%	168.6%	168.3%	179.6%	178.1%
일자리	65.9%	56.7%	186.9%	144.5%	299.4%
신용보증	539.8%	634.2%	624.4%	620.9%	597.6%
식품유통	148.1%	154.3%	147.8%	153.1%	160.3%
에너지환경	1216.1%	191.7%	183.1%	260.2%	360.8%
종합지원	131.5%	129.3%	147.4%	126.2%	114.5%
기타	2070.3%	1623.3%	822.7%	705.4%	312.7%
복지	359.6%	351.4%	329.9%	330.8%	345.9%
여성청소년	317.2%	294.2%	279.6%	285.6%	174.4%
의료	446.4%	444.1%	247.0%	182.2%	136.0%
장학	17491.9%	12863.9%	10790.5%	5147.9%	4960.4%
평생교육	909.9%	793.2%	385.8%	684.5%	409.7%
스포츠	430.9%	516.8%	571.3%	540.5%	508.8%

※ 박람회·장학은 그래프에서만 제외하며, 표와 전체 지표에는 포함함

○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변화 요인**

- 의료의 유동자산 감소와 유동부채 증가
  - 의료는 유동자산이 ’24 년보다 561 억원 감소하고 유동부채는 439 억원 증가하여 유동비율이 182.2%에서 ‘25 년 136.0%로 하락함. 현금및현금성자산도 감소하여, 유동비율 하락과 현금 보유 감소가 함께 나타남
  - 여성·청소년과 종합지원은 ’25 년 유동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유동부채 증가율이 더 높아 유동비율이 하락함. 두 유형의 하락은 의료처럼 유동자산이 감소한 경우와 발생 경로가 다름

- 유동부채 감소에 따른 비율 개선
  - 기업지원과 연구는 ’24 년 대비 ’25 년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유동부채 감소율이 더 높아 유동비율이 상승함. 유동자산이 축소되는 가운데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유 자금의 확대에 따른 개선과는 차이가 있음
  - 일자리도 ’24 년 대비 ’25 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상승함. ’25 년 유동자산은 228 억원으로 ’24 년 589 억원보다 줄어, 비율 상승에도 유동자산의 절대 규모는 축소됨

- 보증사업 관련 부채와 자금의 성격
  - 신용보증은 ‘25 년 유동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유동부채 증가율이 더 높아 유동비율이 620.9%에서 597.6%로 하락함. 유동부채에는 보증료 관련 선수수익과 미환급보증료 등이 포함되어,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의무와 구성 성격에 차이가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보유한 자금에는 용도가 제한된 재원도 존재함. 개별 결산서에서 확인되는 사업비 선수금과 사용제한 예금 등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구분되므로, 유동자산의 규모 전체가 기관의 가용 운영자금을 의미하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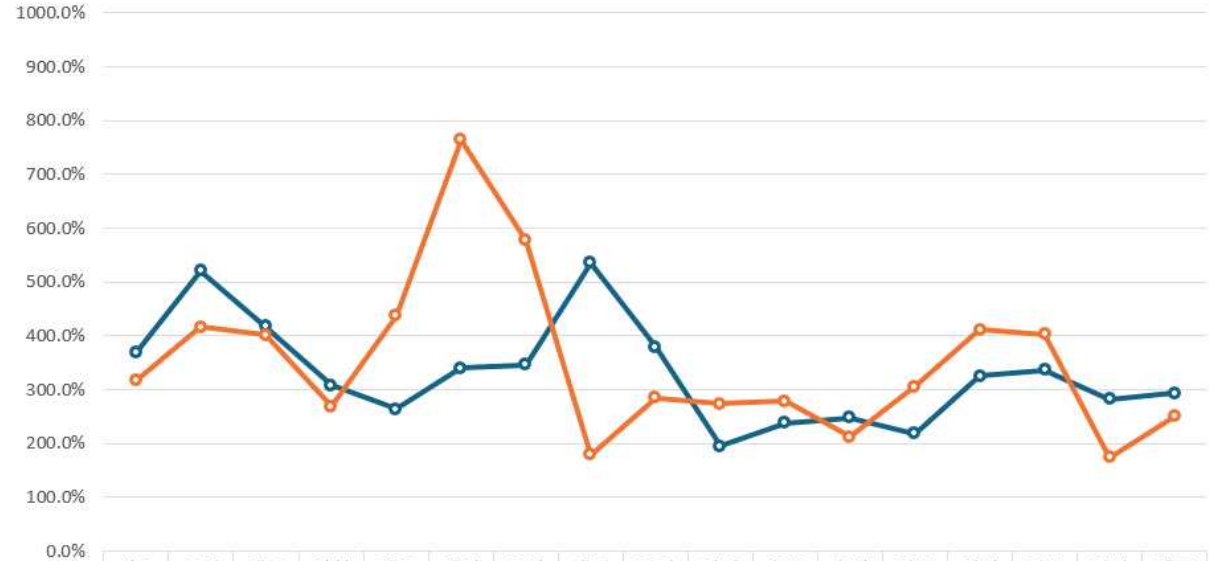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변화]

(단위:억원)

유형	‘24년 유동자산	‘25년 유동자산	‘24년 유동부채	‘25년 유동부채
의료	4,572	4,011	2,510	2,949
여성·청소년	664	894	233	513
종합지원	75	125	59	109
기업지원	9,576	8,161	5,380	4,137
연구	4,073	3,590	1,210	930
일자리	589	228	408	76
신용보증	50,598	54,154	8,149	9,062

○ 지역별 유동비율과 주요 영향 요인

[지역별 유동비율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1	367.9%	521.0%	418.1%	308.2%	264.5%	340.6%	345.8%	535.2%	379.6%	194.8%	238.4%	248.4%	218.6%	325.5%	336.9%	281.7%	294.0%
2025	317.3%	416.8%	402.1%	268.6%	437.7%	765.0%	577.8%	179.0%	284.9%	273.7%	278.6%	212.5%	305.7%	411.2%	403.4%	174.4%	249.8%
증감	-50.6	-104.2	-15.9	-39.5	173.3	424.3	231.9	-356.3	-94.6	78.8	40.2	-35.9	87.1	85.7	66.5	-107.4	-44.2

- 지역별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
  - ’25 년 모든 지역의 합산 유동비율이 100%를 상회함. 경남 174.4%, 세종 179.0%, 충남 212.5% 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전은 765.0%로 가장 높음
  - 대전은 ‘25 년 유동자산이 감소하였으나 유동부채 감소율이 더 높아 유동비율이 전년 603.4%에서 765.0%로 상승함. 울산은 유동자산 증가와 유동부채 감소가 함께 나타나 전년 189.4%에서 ’25 년 577.8%로 상승하여 비율 개선의 경로에 차이가 있음
  - 경남의 합산 유동비율은 ‘25 년 174.4%이나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는 유동자산 5,306 억원에 유동부채 6,491 억원으로 유동비율이 81.7%임. 지역 전체에서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하지만 개별 기관에서는 단기부채에 대응하는 유동자산 부족이 발생함

5.2 부채비율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부채비율 변화

-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에 따른 합산 비율 하락
  - 전체 부채비율은 ’21 년 63.2%에서 ’25 년 55.4%로 하락함. ’25 년 부채는 전년 대비 1,426 억원 감소하고 자본은 4,521 억원 증가하여, 부채 감소와 자본 확대가 함께 비율 하락에 작용함
  - 출자기관은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이 ‘24 년 302.8%에서 ’25 년 259.5%로 하락함. 출연기관은 부채와 자본이 함께 증가하였으나 부채 증가율이 더 높아 전년 29.1%에서 ‘25 년 29.3%로 상승함
  - ’25 년 자본총계가 음수인 기관은 출자기관 17 개, 출연기관 18 개로 총 35 개임. 합산 지표에는 이들 기관의 음수 자본이 다른 기관의 양수 자본과 상계되어 반영되므로, 전체 부채비율이 개별 기관의 자본 상태를 동일하게 나타내지는 않음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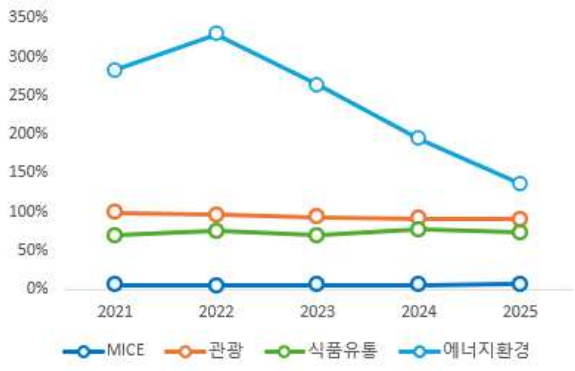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63.2%	62.0%	60.9%	57.7%	55.4%
출자기관	448.9%	423.6%	367.9%	302.8%	259.5%
출연기관	26.9%	27.2%	28.8%	29.1%	29.3%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추이**

- 유형별 부채 규모와 자본 기반의 차이
  - ’25 년 개발투자는 유형 합산 자본총계가 음수로 나타남. 자본이 양수인 유형 중에서는 에너지·환경 136.2%, 관광 89.9%, 식품유통 72.5%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음
  - ‘25 년 에너지·환경과 식품유통은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로 비율이 하락함. 반면 MICE 와 일자리는 자본이 증가하였음에도 부채 증가율이 더 높아 비율이 상승하여, 비율 상승이 반드시 자본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음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4.9%	4.5%	5.1%	5.0%	6.3%
관광	98.3%	95.8%	92.9%	90.6%	89.9%
식품유통	68.8%	75.2%	68.9%	77.0%	72.5%
에너지환경	282.9%	329.3%	263.4%	194.2%	136.2%
개발투자	-5192.1%	-25504.4%	-84576.8%	7853.4%	-15889.2%
일자리	28.4%	40.9%	38.3%	39.4%	47.1%
복지	4.7%	0.4%	0.6%	0.6%	0.6%
기타	25.6%	30.4%	33.3%	24.0%	22.7%

※ 개발투자는 합산 자본이 작은 양수이거나 음수인 특성으로 비율 변동이 커 그래프에서 제외하되, 전체 지표에는 포함함

○ **지방출자기관 주요 유형의 변화 요인**

- 개발투자의 부채 감소와 자본잠식
  - 개발투자는 ’24 년 대비 ’25 년 부채가 감소하였으나, 자본도 521 억원에서 -246 억원으로 감소하여 유형 합산 기준 자본총계가 음수로 전환됨. 부채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손실을 흡수할 자본 기반은 약화됨
  - ’25 년 개발투자 43 개 기관 중 13 개 기관의 자본총계가 음수임. 유형 합산 자본 -246 억원은 개별 기관의 양수·음수 자본을 합산한 결과로, 자본잠식 기관의 부족액 전체를 의미하지 않음

-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
  - 에너지·환경과 식품유통은 ’24 년 대비 ’25 년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하락함. 두 유형은 부채 규모 축소와 자본 기반 확대가 함께 나타나, 부채 감소에도 자본이 줄어든 개발투자와 차이가 있음

- 부채와 자본의 증가 속도에 따른 비율 상승
  - MICE 와 일자리는 ’24 년 대비 ’25 년 부채와 자본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부채 증가율이 더 높아 부채비율이 상승함. 자본 감소에 따른 비율 상승과는 구분되며, ’25 년에도 두 유형 모두 자본이 부채를 상회함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부채 및 자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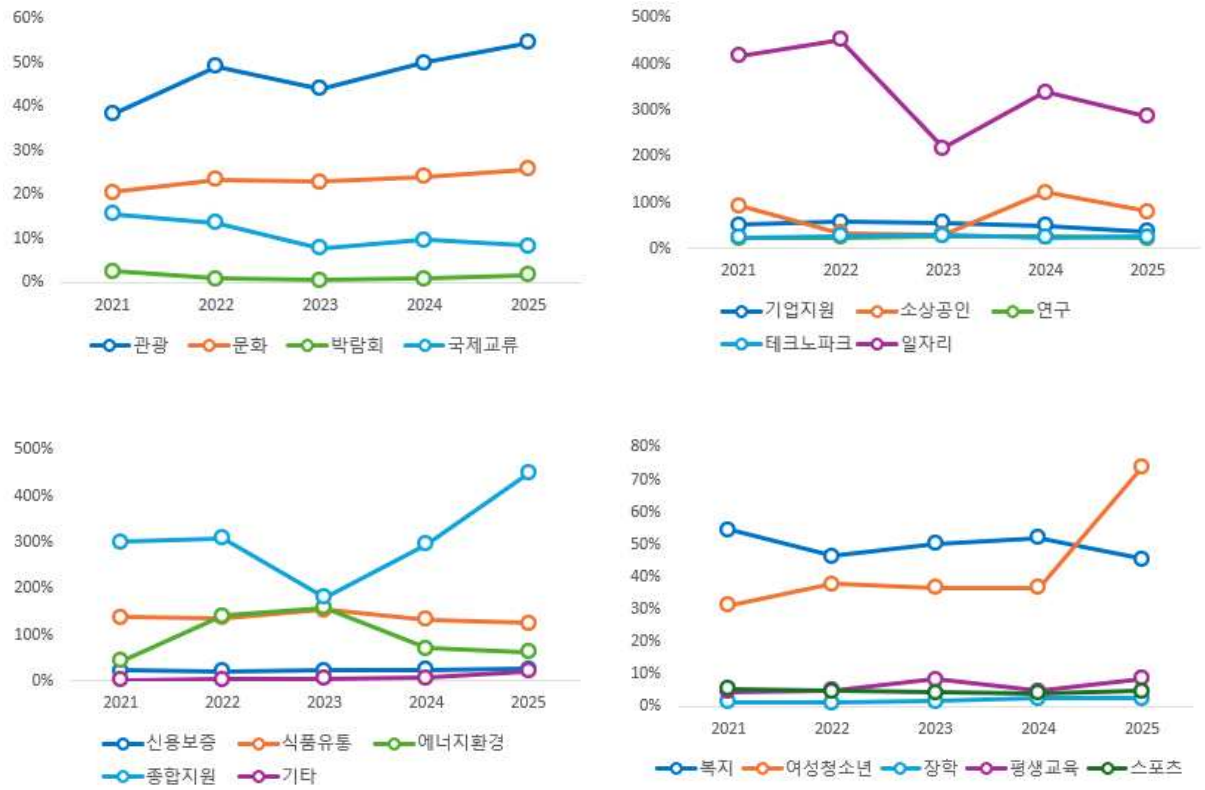
(단위:억원)

유형	‘24년 부채	‘25년 부채	‘24년 자본	‘25년 자본
MICE	444	649	8,885	10,370
관광	1,813	1,805	2,001	2,008
식품유통	1,141	1,086	1,482	1,497
에너지·환경	8,340	7,508	4,295	5,511
개발투자	40,883	39,148	521	-246
일자리	20	27	51	57
기타	15	16	62	69
복지	1	1	91	97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추이**

- 의료의 높은 부채비율과 유형별 구성 차이
  - '25 년 부채비율은 의료 1,239.2%, 종합지원 449.7%, 일자리 286.2%, 식품유통 124.3% 순으로 높음. 의료는 부채 증가와 자본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여 비율이 크게 상승함
  - 높은 부채비율이 나타난 유형 간에도 부채의 성격은 다름. 의료의 자본 축소, 일자리의 청년 지원사업 관련 지급의무, 사업 수행 과정의 선수금 등은 발생 원인과 대응 자산이 달라 동일한 차입 부담으로 해석할 수 없음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추이]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413.1%	35.9%	32.5%	43.7%	22.7%
관광	38.4%	49.2%	44.1%	50.1%	54.6%
문화	20.5%	23.5%	23.0%	24.1%	25.4%
박람회	2.7%	0.8%	0.5%	0.9%	1.7%
국제교류	15.6%	13.6%	7.8%	9.7%	8.3%
기업지원	51.1%	57.3%	55.7%	49.1%	37.5%
소상공인	93.3%	33.4%	30.7%	122.5%	80.8%
연구	23.0%	23.9%	28.0%	25.9%	22.3%
테크노파크	23.8%	28.6%	29.2%	24.8%	25.7%
일자리	417.0%	453.5%	217.7%	339.2%	286.2%
신용보증	22.2%	21.1%	22.5%	24.1%	25.3%
식품유통	138.0%	136.7%	153.2%	133.8%	124.3%
에너지환경	42.8%	140.7%	159.0%	70.5%	63.1%
종합지원	300.4%	308.6%	181.3%	295.7%	449.7%
기타	2.4%	3.0%	5.4%	7.0%	21.9%
복지	54.5%	46.5%	50.1%	52.1%	45.4%
여성청소년	31.3%	37.8%	36.7%	36.7%	74.0%
의료	114.2%	86.5%	202.2%	372.1%	1239.2%
장학	1.4%	1.2%	1.7%	2.5%	2.5%
평생교육	4.6%	5.0%	8.4%	4.9%	8.7%
스포츠	5.4%	4.7%	4.4%	4.2%	4.9%

※ MICE의 '21년 수치와 의료는 타 유형 대비 수치가 높아 그래프에서만 제외하며, 표와 전체 지표에는 포함함

○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변화 요인**

- 의료의 부채 증가와 자본 축소
  - 의료는 ’24 년 대비 ’25 년 부채가 6,490 억원에서 7,610 억원으로 증가하고, 자본은 1,744 억원에서 614 억원으로 감소함. 상환·지급의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자본은 줄어 부채 부담이 확대됨
  - ’25 년 의료 31 개 기관 중 14 개 기관의 자본총계가 음수임. 유형 합산 자본 614 억원은 다른 기관의 양수 자본과 상계된 결과로, 합산 자본이 양수여도 개별 기관의 자본잠식이 해소된 것은 아님

- 신용보증의 출연금에 따른 자본 확충과 부채 구성
  - 신용보증은 ’24 년 대비 ’25 년 부채와 자본이 모두 증가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자본으로 계상되는 출연금 잔액이 늘어 자본총계가 증가하였으므로, 당기순손실만으로 자본 기반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음
  - ’25 년 신용보증의 부채는 1 조 6,041 억원이나 자본도 6 조 3,430 억원으로 규모가 큼. 부채에는 보증료 관련 선수수익·미환급보증료와 대위변제준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채비율은 차입 규모뿐 아니라 보증사업의 부채 구성과 출연금으로 형성된 자본 규모의 영향을 받음

- 정책사업 부채와 비율 변동의 차이
  - 일자리의 주요 부채인 장기성청년연금부채는 청년 지원사업의 지급의무이며, 동일 금액의 사용제한 예금이 대응함. 해당 부채에 따른 높은 부채비율을 운영자금 부족이나 차입 부담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대응 예금도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이 제한됨
  - 종합지원은 ’24 년 대비 ’25 년 부채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보다 높아 부채비율이 상승함. 반면 기업지원은 부채와 자본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부채 감소율이 더 높아 비율이 하락하여, 자본 확충에 따른 개선과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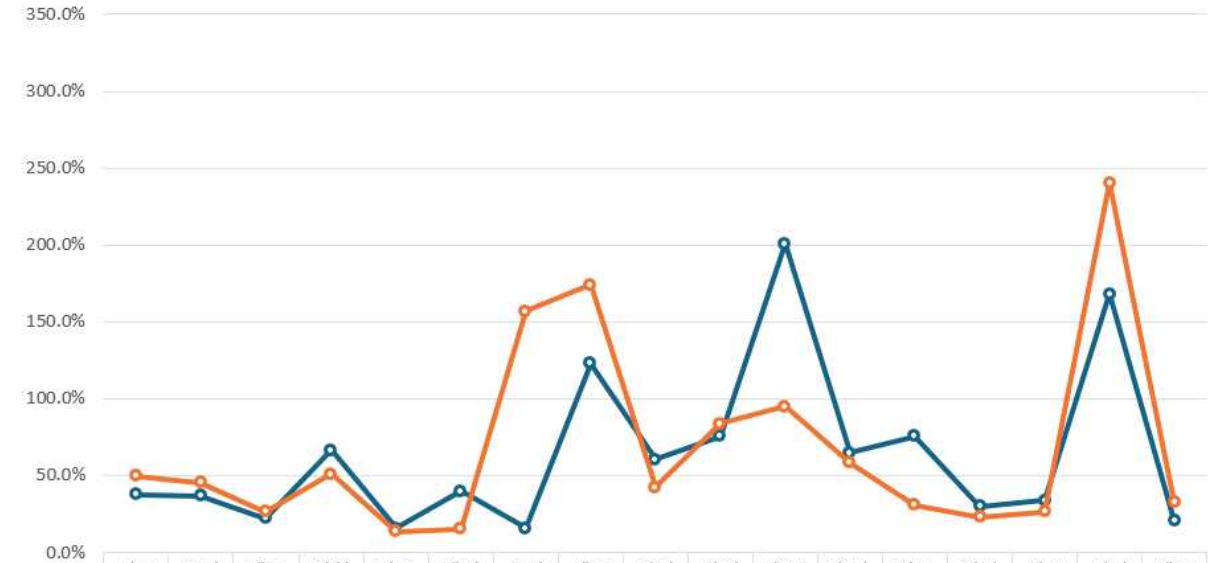
[지방출연기관 주요 유형의 부채 및 자본 변화]

(단위:억원)

유형	‘24년 부채	‘25년 부채	‘24년 자본	‘25년 자본
의료	6,490	7,610	1,744	614
여성·청소년	284	569	775	769
종합지원	61	111	21	25
일자리	1,036	715	305	250
신용보증	14,434	16,041	59,866	63,430
기업지원	7,117	5,413	14,484	14,451

○ 지역별 부채비율과 주요 영향 요인

[지역별 부채비율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1	37.9%	36.7%	22.1%	66.5%	15.8%	40.0%	15.9%	122.9%	60.7%	75.6%	201.0%	64.9%	75.4%	30.0%	33.8%	168.2%	20.4%
2025	49.9%	45.5%	26.6%	51.0%	13.5%	15.4%	156.9%	174.0%	42.5%	83.6%	94.8%	58.5%	30.6%	23.1%	26.6%	240.3%	32.4%
증감	12.1	8.8	4.5	-15.4	-2.3	-24.6	141.0	51.1	-18.1	8.0	-106.2	-6.4	-44.8	-7.0	-7.2	72.2	12.1

- 개발사업 기관의 부채와 음수 자본의 반영
  - ’25 년 부채비율은 경남 240.3%, 세종 174.0%, 울산 156.9% 순으로 높음. 경남은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의 부채가 7,291 억원, 자본이 -1,934 억원으로, 주요 개발사업 기관의 부채와 음수 자본이 지역 합산 비율에 크게 반영됨
  - 울산은 부채가 ‘24 년보다 2,788 억원 증가하고 자본은 519 억원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24 년 48.9%에서 ‘25 년 156.9%로 상승함. 울산복합도시개발의 부채 3,496 억원과 자본 -525 억원이 지역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침
  - 세종은 부채가 ’24 년보다 169 억원 증가하고 자본은 325 억원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24 년 119.3%에서 ’25 년 174.0%로 상승함. 세종스마트그린과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의 자본이 각각 -108 억원, -104 억원으로 나타나 지역 합산 자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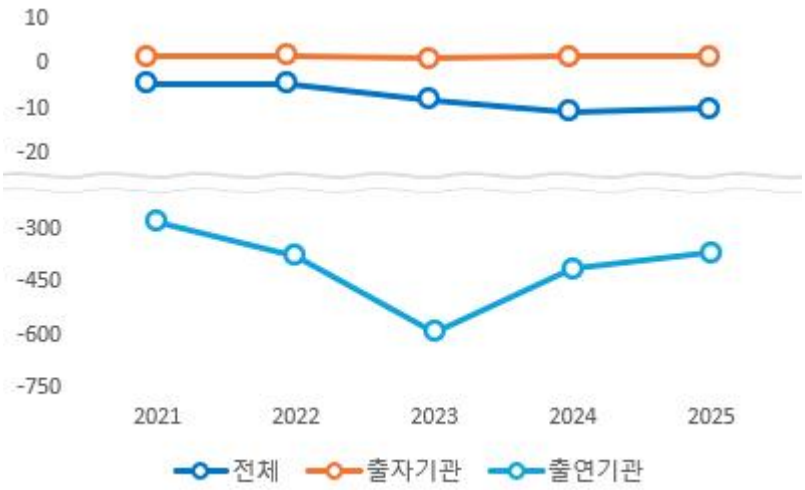
5.3 이자보상배율

○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이자보상배율과 분석 범위

- 영업손익을 통한 이자비용 충당 수준
  - '25 년 전체 이자보상배율은 -10.1 배임. 출자기관은 1.6 배로 합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상회한 반면, 출연기관은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음수의 배율이 나타남
  - 전체 배율은 '24 년 -10.5 배에서 '25 년 -10.1 배로 음수의 절댓값이 줄었으나, 영업손실과 이자비용은 모두 증가함. 분모인 이자비용 증가로 음수 배율의 절댓값이 작아진 것으로, 이자지급여력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음

- 이자비용 발생기관의 손익 구분
  - '25 년 이자비용 발생기관은 출자기관 44 개, 출연기관 32 개로 총 76 개이며, 나머지 788 개 기관의 집계 이자비용은 0 임. 이자비용 발생기관 중 51 개 기관은 배율이 1 배에 미달하며, 이 중 48 개는 영업손실, 3 개 기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자비용에 미달함

[지방출자·출연기관 이자보상배율 추이]



(단위:배)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4.6	-4.4	-7.9	-10.5	-10.1
출자기관	1.7	1.8	1.1	1.6	1.6
출연기관	-277.6	-375.8	-591.8	-411.1	-3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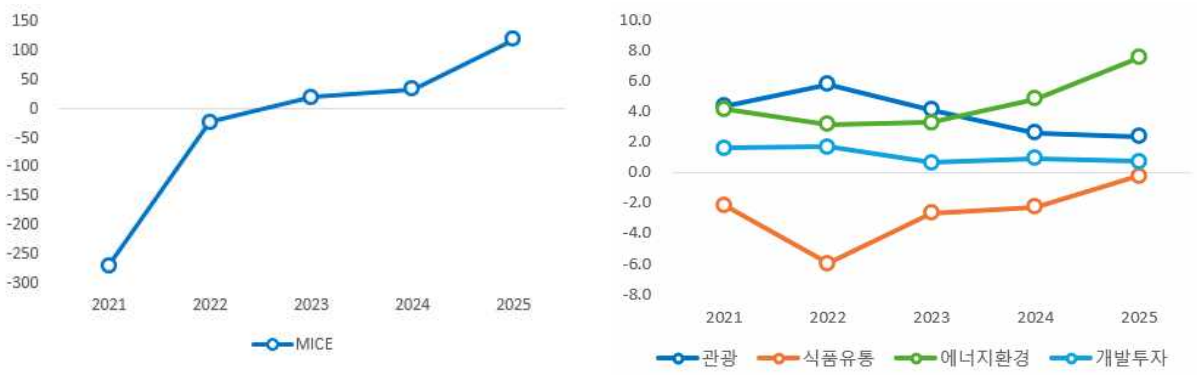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이자지급여력

- 개발투자에 집중된 이자비용
  - 개발투자의 '25 년 이자비용은 1,175 억원으로 전체 분석대상 기관 이자비용의 83.4%를 차지함.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감소하고 이자비용은 증가하여 배율이 0.9 배에서 0.7 배로 하락하였으며, '23 년 이후 1 배 미만이 지속됨

- 영업이익과 이자비용 변화에 따른 배율 상승
  - 에너지·환경은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자비용이 '24 년 229 억원에서 '25 년 146 억원으로 감소하여 배율이 4.8 배에서 7.5 배로 상승함. MICE 는 영업이익 증가와 이자비용 감소가 함께 나타나 배율이 33.4 배에서 119.1 배로 상승함

- 유형 합산 지표와 이자비용 발생기관의 차이
  - 관광은 유형의 이자보상배율이 '25 년 2.4 배이나 이자비용 발생기관 2 개 모두 1 배에 미달함. 이자비용이 없는 기관의 영업이익이 유형 합계에 포함된 결과로, 합산 배율이 실제 이자를 부담하는 기관의 충당 수준을 동일하게 나타내지는 않음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이자보상배율 추이]



(단위:배)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MICE	-270.3	-22.6	20.0	33.4	119.1
관광	4.3	5.8	4.1	2.6	2.4
식품유통	-2.2	-6.0	-2.7	-2.3	-0.2
에너지환경	4.2	3.1	3.3	4.8	7.5
개발투자	1.6	1.7	0.6	0.9	0.7

※ 일자리, 복지, 기타 유형은 이자비용의 미발생으로 이자보상배율을 산출하지 않음

○ **지방출연기관의 이자비용과 해석상 특징**

- 의료에 집중된 이자비용
  - 출연기관의 ’25 년 이자비용은 약 44 억원이며, 이 중 의료가 95.3%를 차지함. 의료는 이자비용이 발생한 23 개 기관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함
  - 의료의 이자보상배율은 ’24 년 -137.1 배에서 ’25 년 -133.8 배로 상승하였으나, 영업손실과 이자비용은 모두 증가함. 이자비용 증가율이 영업손실 증가율보다 높아 배율이 상승한 것으로, 영업활동의 이자 지급능력이 개선된 것은 아님

- 유형 전체 영업손익과 실제 이자 부담기관의 차이
  - ’25 년 식품유통은 유형 전체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이자비용이 발생한 1 개 기관은 영업손실을 기록함. 반대로 복지는 유형 전체로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자비용 발생기관은 영업이익을 기록함. 유형 전체의 영업손익과 실제 이자를 부담하는 기관의 영업손익이 달라, 유형 합산 지표가 이자 부담기관의 지급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지는 않음
  - 신용보증·테크노파크 등은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집계 이자비용이 0 이어서 배율을 산출하지 않음. 영업손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비용 충당 부족기관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이자비용 미발생이 부채 자체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님

[‘25년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이자비용 발생기관 현황]

(단위:개)

유형	이자비용 발생기관	그중 영업적자 기관	이자비용 합계
의료	23	23	42억원
관광	2	1	1억원 미만
문화	2	1	2억원
복지	1	0	1억원 미만
스포츠	1	1	1억원 미만
식품유통	1	1	1억원 미만
여성청소년	1	1	1억원 미만
일자리	1	1	1억원 미만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이자보상배율]

(단위:배)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관광	-	-	-31,806.5	-	-1,125.3
문화	-9,141.2	-952,040,074.0	-	-	-120.9
기업지원	-408.6	-	-	-	-
연구	-4,047.9	-1,044.5	59.0	-	-
일자리	-63.0	-279.9	262.8	-8,858.9	-10,807.1
식품유통	-39,488.0	-991,043.6	93,235.4	-1,891.2	30.6
복지	1,787.0	4,125.1	-2,436.7	-1,108.1	-1,031.3
여성청소년	-189.2	-1,313.1	-1,175.0	-854.9	-1,551.3
의료	-191.4	-269.1	-285.1	-137.1	-133.8
장학	-	-	429.5	99.3	0.0
스포츠	-	-	-	-7,501.2	-4,214.1

※ 이자비용이 0인 경우 이자보상배율을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 출연기관 MICE, 박람회, 국제교류, 소상공인, 테크노파크, 신용보증, 에너지환경, 종합지원, 기타, 평생교육 유형은 전 기관 5개년 이자비용 미발생으로 제외

※ 유형별 합산 배율에는 이자비용 미발생기관의 영업손익도 포함되므로, 실제 이자비용 발생기관의 지급여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액 이자비용에 따른 극단값 발생

  • 관광·문화·식품유통·일자리의 일부 연도는 영업손익에 비해 이자비용이 매우 작아 배율의 절댓값이 10,000 배 이상으로 나타남. 이는 작은 이자비용을 분모로 적용한 결과임

  • 특히 문화의 '22 년 이자비용은 2 원, 식품유통의 '22·'23 년 이자비용은 각각 1,490 원, 14,920 원임. 해당 수치는 원자료 기준으로 제시하되, 실제 이자 부담과 분모 효과를 구분함

[이자보상배율 극단값 발생 사례 및 산출 원인]

유형	연도	영업손익 (억원)	이자비용(원)	이자보상 배율(배)	산출 원인
관광	2023년	-146	459,723	-31,806.5	손실 대비 소액의 이자비용
문화	2022년	-19	2	-952,040,074.0	이자비용이 극히 작음
식품유통	2021년	-28	70,323	-39,488.0	손실 대비 소액의 이자비용
	2022년	-15	1,490	-991,043.6	이자비용이 극히 작음
	2023년	14	14,920	93,235.4	이익 대비 소액의 이자비용
일자리	2025년	-46	424,307	-10,807.1	손실 대비 소액의 이자비용

○ **지역별 이자비용 분포와 주요 기관의 이자 충당 수준**

- 주요 개발사업 기관에 집중된 이자비용
  - ’25 년 이자비용은 경남 483 억원, 강원 372 억원, 경기 190 억원 순이며, 3 개 지역이 전체의 74.2%를 차지함. 주요 개발사업 기관의 이자비용이 지역별 분포에 크게 반영됨

- 영업손실과 이자비용의 동시 발생
  - 강원중도개발공사·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울산복합도시개발은 영업손실과 이자비용이 함께 발생함. 이들 기관은 영업이익을 통한 이자비용 충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손실과 이자비용의 절대 규모에 차이가 있음

-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달하는 기관
  -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파주디엠지곤돌라·경남무역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5 년 이자보상배율이 각각 0.9 배, 0.1 배, 0.7 배임. 영업손실 기관과 달리 이익은 발생하지만 그 규모가 이자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구조임

[‘25년 주요 지역의 이자비용 분포]

(단위: 억원)

지역	이자비용	비중
경남	483	34.3%
강원	372	26.4%
경기	190	13.5%
기타 지역	363	25.8%
전체	1,408	100.0%

[‘25년 주요 기관의 영업손익 및 이자비용]

(단위:억원, 배)

기관명	유형	영업손익	이자비용	이자보상배율
강원중도개발공사	개발투자	-68	224	-0.3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발투자	-630	205	-3.1
울산복합도시개발	개발투자	-105	84	-1.3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투자	40	43	0.9
파주디엠지곤돌라	관광	2	16	0.1
경남무역	식품유통	3	5	0.7

※ 지역별로 이자비용이 없는 기관의 영업손익 비중과 이자비용 규모가 달라, 지역 합산 배율의 단순 순위 비교 대신 이자비용 분포와 주요 기관 사례를 제시함

5.4 장학 유형의 사업 범위별 손익구조 분석

○ 전체사업과 순수장학의 비교 기준

- 동일 기관의 사업 범위 구분
  - 분석대상 장학기관 177 개의 전체사업과 순수장학 기준 수익·비용을 비교함. 전체 사업에는 장학외사업이 포함되므로, 최근 사업 규모 확대가 순수장학의 확대인지 다른 사업의 확대인지를 구분함

○ 장학외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 구성 변화

- 전체 매출 증가에서 장학외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확대
  - 전체사업 매출액은 '24 년 3,528 억원에서 '25 년 1 조 2,712 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기간 순수장학 매출액은 2,740 억원에서 5,574 억원으로 증가함. 전체 매출 증가액의 69.2%가 장학외사업 조정액의 증가에서 발생함
  - 전체 매출액 중 장학외사업 조정액의 비중은 '21 년 8.0%에서 '25 년 56.2%로 확대됨. 최근 장학 유형의 매출 증가는 순수장학뿐 아니라 장학외사업의 확대가 크게 반영된 결과임

[장학 유형의 사업 범위별 매출액 구성]

(단위: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사업 매출액(A)	2,515	2,787	3,208	3,528	12,712
순수장학 매출액(B)	2,315	2,501	2,801	2,740	5,574
장학외사업 조정액(A－B)	201	285	407	787	7,138
장학외사업 비중	8.0%	10.2%	12.7%	22.3%	56.2%

※ 분석대상 장학 기관 177개를 동일하게 적용함. 장학외사업 조정액은 전체 사업과 순수장학 매출액의 차액임

○ **사업 범위에 따른 영업손익의 차이**

- 순수장학의 영업이익과 전체사업의 영업손실
  - ’25 년 순수장학은 영업이익 62 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전체사업은 영업손실 45 억원이 발생함. 두 기준의 영업손익 차이는 -107 억원으로, 장학외사업 조정분의 손실이 순수장학의 이익을 상회하여 전체사업이 영업손실로 나타남
  - 전체사업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영업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여 영업수지비율은 ’24 년 103.3%에서 ’25 년 99.6%로 하락함. 사업 규모 확대가 영업단계의 수지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 순수장학의 영업수지 여력 축소
  - 순수장학의 영업이익도 ’21 년 295 억원에서 ’25 년 62 억원으로 감소함. 같은 기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2.7%에서 1.1%, 영업수지비율은 114.6%에서 101.1%로 하락하여, 영업비용을 충당한 뒤 남는 이익의 여력이 축소됨
  - 따라서 장학 유형의 전체 영업손실에는 장학외사업의 영향이 반영되지만, 순수장학 역시 과거보다 영업수지 여력이 낮아진 상태임

[장학 유형의 사업 범위별 영업손익 및 주요 지표]

(단위: 억원)

항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영업손익	전체사업	268	371	380	112	-45
영업손익	순수장학	295	369	355	84	62
매출액영업이익률	전체사업	10.7%	13.3%	11.8%	3.2%	-0.4%
매출액영업이익률	순수장학	12.7%	14.7%	12.7%	3.1%	1.1%
영업수지비율	전체사업	111.9%	115.4%	113.4%	103.3%	99.6%
영업수지비율	순수장학	114.6%	117.3%	114.5%	103.2%	101.1%

6.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 원인 분석

6.1 유형별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종합진단

○ 유형별 손익·수지 및 재무구조 진단

- 진단 기준
  - 유형별 합산 재무자료로 산출한 8개 지표를 바탕으로 '25년 손익·수지 부족 여부와 '21년 대비 지표 변화를 구분함. 장학은 순수장학사업과 장학외사업을 포함한 전체 장학사업 기준을 적용함
  - 수익성 및 수지 악화와 부채·유동성 악화가 함께 나타나는 유형, 이익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진 유형, 당기순손익은 개선됐으나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유형을 구분함

[진단표 표시 기준]

표시	의미
●	2025년 손실 또는 수지 부족: 이익률·ROA 음수, 수지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미만,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	2021년 대비 지표 하락. 부채비율은 상승한 경우 표시
●▼	2025년 손실·수지 부족과 2021년 대비 악화가 함께 나타남
—	위 표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제외	매출액 또는 이자비용이 없어 해당 지표 산정 제외

○ **지방출자기관 종합진단**

- 손실·자본잠식과 이익 유지 유형의 수익성 저하
  - 개발투자는 '25 년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이자보상배율이 0.7 배에 그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손익구조와 자본잠식이 함께 나타남
  - 관광은 영업이익률이 '21 년 23.4%에서 '25 년 10.4%로 하락하여 영업이익을 유지하는 가운데 매출액 대비 이익 창출 수준은 낮아짐. 반면 에너지환경은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됐으나 유동비율은 86.9%로, 수익성과 단기 유동성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남
  - MICE 는 '21 년 대비 수익성과 수지가 개선된 반면, 식품유통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함께 발생함. 출자기관의 취약점은 대규모 차입뿐 아니라 수익성 감소와 영업수지 부족으로도 구분됨

[출자기관 유형별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진단]

유형	영업 이익률	순 이익률	ROA	총수지 비율	영업수지 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개발투자	▼	●▼	●▼	●▼	▼	▼	자본잠식	●▼
관광	▼	▼	▼	▼	▼	—	—	▼
에너지환경	—	—	—	—	—	●▼	—	—
MICE	—	—	—	—	—	—	▼	—
복지	제외	제외	—	—	●	—	—	제외
식품유통	●	●▼	●▼	●▼	●	—	▼	●
일자리	—	▼	▼	▼	—	▼	▼	제외
기타	—	—	—	—	—	—	—	제외

※ 개발투자는 합산 자본총계가 음수이므로 부채비율의 증감 대신 자본잠식으로 표시

※ 복지는 매출액이 없어 매출액 대비 이익률을 산정하지 않음. 영업수지비율은 0%이나 영업외수익 반영 이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함

○ **지방출연기관 종합진단**

- 영업손실의 지속과 당기순손익의 차이
  - 의료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함께 지속되고, 부채비율은 ’21 년 114.2%에서 ’25 년 1,239.2%로 상승함. 유동비율도 446.4%에서 136.0%로 하락해 손실 누적과 재무구조 악화가 동시에 나타남
  - 신용보증은 ’25 년 당기순손실 7,472 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자본에 계상된 출연금 잔액 증가로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3,564 억원 증가함. 손익·수지 지표의 기준 미달과 자본 규모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임
  - 스포츠는 영업수지비율이 ’21 년 77.9%에서 ’25 년 86.1%로 개선되었으나, 영업손실은 ’21 년 156 억원에서 ’25 년 158 억원으로 소폭 확대됨. 반면 당기순손실은 ’21 년 89 억원에서 ’25 년 33 억원으로 축소되어 영업단계와 당기순손익의 변화에 차이가 나타남
  - 장학은 영업이익률이 ’21 년 10.7%에서 ’25 년 -0.4%로 하락하고 영업수지비율도 111.9%에서 99.6%로 낮아짐. 당기순이익은 유지했으나 영업이익이 영업비용에 미달하는 구조로 전환됨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진단①]

유형	영업 이익률	순 이익률	ROA	총수지 비율	영업수지 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의료	●▼	●▼	●▼	●▼	●▼	▼	▼	●
식품유통	—	—	—	—	—	—	—	—
일자리	●▼	●▼	●▼	●▼	●▼	—	—	●▼
스포츠	●	●	●	●	●	—	—	●
신용보증	●▼	●▼	●▼	●▼	●▼	—	▼	제외
장학	●▼	▼	▼	▼	●▼	▼	▼	제외
문화	●▼	●▼	●▼	●▼	●▼	▼	▼	●
연구	●▼	●▼	●▼	●▼	●▼	—	—	제외
기업지원	●▼	●▼	●▼	●▼	●▼	—	—	제외
복지	●▼	▼	▼	▼	●▼	▼	—	●▼
관광	●▼	●▼	●▼	●▼	●▼	▼	▼	●
여성청소년	●▼	▼	▼	▼	●▼	▼	▼	●▼

- 손익 악화와 재무구조 변화의 차별화

  • 테크노파크는 영업이익률이 '21 년 0.4%에서 '25 년 −6.8%로 하락하고 총수지비율도 100.6%에서 93.4%로 낮아져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이 모두 손실로 전환됨

  • 박람회는 '25 년 영업수지비율 80.3%, 총수지비율 81.2%로 영업단계와 전체 수지 모두 비용 충당에 미달함. 총수지비율은 전년보다 개선되었으나 당기순손실은 약 30 억원 수준을 유지함

  • 종합지원은 '25 년 당기순이익에도 부채비율이 449.7%, 유동비율이 114.5%로 나타남. 당기순이익이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에너지환경도 당기순이익이 유지되면서 수익성 하락과 부채비율 상승이 함께 나타남

  • 국제교류와 MICE 는 '21 년 대비 수익성·수지 지표가 개선됨. 국제교류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며, MICE 는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됨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진단②]

유형	영업 이익률	순 이익률	ROA	총수지 비율	영업수지 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테크노파크	●▼	●▼	●▼	●▼	●▼	▼	▼	제외
소상공인	●▼	●▼	●▼	●▼	●▼	—	—	제외
에너지환경	▼	▼	▼	▼	▼	▼	▼	제외
종합지원	▼	▼	▼	▼	▼	▼	▼	제외
국제교류	—	—	—	—	—	—	—	제외
평생교육	●	●	●	●	●	▼	▼	제외
MICE	—	—	—	—	—	—	—	제외
박람회	●▼	●▼	●▼	●▼	●▼	—	—	제외
기타	—	—	—	—	—	▼	▼	제외

※ 부채비율의 ▼는 2021년 대비 상승을 의미하며, 상승만으로 과다 부채로 판정한 것은 아님

6.2 유형별 재무특성과 주요 취약요인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종합 진단

유형	재무적 특성	핵심 원인·진단
개발투자	사업자금 회수와 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부담	• 분양·사업대금 회수 시점과 차입금 상환 시점의 불일치에 노출 •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이자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당기순손실 발생
식품유통	낮은 유통마진과 관리비 부담	• 원가수준의 판매가 제한으로 매출총이익이 판매관리비에 미달하는 구조 • 매출 증가로 손실은 축소됐으나 영업수지 부족 지속
에너지환경	수익성 개선 유동비율 저조	• 매출원가와 이자비용 감소로 수익성 개선 •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24년 제외)
관광	시설운영 수익성 약화	• 매출 대비 운영비 부담 확대로 영업마진 축소 • 최근 매출 감소까지 겹쳐 당기순이익 규모 축소
MICE	시설운영 실적에 따른 손익 변동	• 매출 증가가 운영비를 상회하여 영업이익 확대 • 행사·시설운영 수입 확보가 손익의 핵심 • 이자 비용이 매우 적음
복지	영업외수익 중심의 손익구조	• 지분참여형 사업구조로 매출 없이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영업외수익(배당·이자수익)으로 비용 충당 • 영업외수익의 규모에 따라 당기순이익 결정
일자리	사업 확대와 제한적인 영업 마진	• 매출 확대가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으나 비용도 함께 증가 • 사업·운영비 부담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큼
기타	매출 변동에 따른 비용 흡수력 차이	• 서로 다른 사업을 수행하므로 합산 결과를 단일 사업위험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 2개 기관 중 순천가든마켓은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인천스마트시티 영업이익, 순이익 발생

※ 유형별 합산 기준이며, 복지는 군산시민발전 1개 기관의 수익구조를 반영함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종합 진단**

유형	재무적 특성	핵심 원인·진단
신용보증	보증손실과 출연 재원의 자본 보완	• 대위변제와 보증 관련 손실이 손익 악화로 연결 • 자본으로 출연금이 지원되어 당기순손실에도 자본 수준 유지
장학	영업수지 부족과 영업외수익 보완	• 전체 장학 기준 사업·운영비가 영업수익을 초과하는 구조로 전환 •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순이익은 유지했으나 사업수행 비용을 충당하는 영업이익 축소
MICE	시설운영 수지 개선	•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실현 • 다만 기관별 손익 차이 존재
국제교류	사업수지 흑자와 낮은 부채 부담	•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실현 • 수익성 개선과 부채비율 하락이 함께 나타남
에너지환경	영업외손실에 따른 이익 축소	• '25년 영업이익 47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외비용이 영업외수익을 초과하여 당기순이익은 1억원에 그침 •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21년보다 높은 수준
식품유통	낮은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규모가 큼	• 매출 대부분이 매출원가와 운영비로 지출되어 영업이익이 제한적 • 영업외수익(이자수익·보조금)이 큼
종합지원	낮은 영업이익 높은 부채비율	•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도 수익 대비 이익 규모는 제한적 • 대행사업 선수금이 많아 부채비율이 높음
복지	영업손실에도 이자수익으로 당기순이익 실현	• 복지사업·시설 운영 관련 비용이 영업수익을 초과 • 복지재단의 유휴자금 이자수익이 영업손실보다 큼
여성청소년	영업손실에도 재정지원으로 당기순이익 실현	• 영업손실 발생 • 영업외수익(출연금)으로 당기순이익 유지
의료	영업손실 누적과 자본 감소	• 진료수익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 • 영업외수지로도 손실이 보전되지 않아 31개 기관 중 14개 기관의 자본잠식 상태, 부채 부담 확대
스포츠	영업손실 영업외수익에 의한 당기순손실 축소	• 영업손실 발생 • 당기순손실 축소는 영업외수지 개선의 영향이 크며 영업이익 적자 구조는 남아 있음

유형	재무적 특성	핵심 원인·진단
문화	사업·시설 운영비 부담	• 영업손실 발생 • 영업외수지의 보완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당기순손실 직전 2년간 지속
연구	연구사업 수입과 수행 비용의 불균형	• 출연금·수탁연구 등을 포함한 영업수익으로 연구 수행 및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함 • 영업외수익으로 일부 보완되지만 당기순손실 지속 유지('23년만 당기순이익)
기업지원	지원사업 수행 비용의 수입 초과	• 영업손실 발생 • 영업외수익으로 일부 보완되지만 당기순손실 직전 2년간 지속
관광	지원사업 수행 비용의 수입 초과	• 영업손실 발생 • 영업외수익으로 일부 보완되지만 당기순손실 직전 2년간 지속
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수행 비용의 수입 초과	• 영업손실 발생 • 영업외수익으로 일부 보완되지만 당기순손실 직전 4년간 지속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행 비용의 수입 초과	• 영업손실 발생 • 영업외수익으로 일부 보완되지만 당기순손실 직전 3년간 지속
평생교육	지원사업 수행 비용의 수입 초과	• 영업손실 발생 • 영업외수익으로 일부 보완되지만 당기순손실 지속 유지('22년만 당기순이익)
일자리	사업·운영비 부담과 높은 부채비율	• 영업손실 발생, 당기순손실 직전 2개년 지속 • 일자리 특성상 장기청년연금부채로 부채비율이 높지만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지급재원 부족과는 구분됨
박람회	행사주기에 따른 수입·비용 변동	• 연도별 매출 변동 심함 •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직전 4년간 지속 유지
기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으로 전환	• 콜센터·방송·행사 등 서로 다른 사업의 손익이 합산되어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구조이나 직전 2년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실현 ('24년 편입된 여수섬박람회가 이익 실현 견인)

Part III. 지방출자 · 출연기관과 중앙 공공기관의 재무위험 관리제도 비교

1. 재무위험기관 관리제도 등의 정책 및 제도 비교분석

1.1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중점관리제도 지정 및 개편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중점관리제도 도입**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2 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에 새로 편입되었으며 그 전에는 지자체장 책임 아래 자체 관리하였음
- 지방공기업은 '14 년부터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 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함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편입 내용, '22년 8월]

구분	기존		개편안
지방공기업	•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	•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좌동) (부채 1천억 원, 부채비율 200% 이상) •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계획.실적 공시 등 관리 강화 (신설)
지방 출자·출연기관	-		•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신설) (부채 1천억 원, 부채비율 200% 이상) •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계획.실적 공시 등 관리 강화 (신설)

※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08.17

○ **'23년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

-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 지정의 문제점
  지정기준을 부채규모, 부채비율 설정하여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고, 전년도 재무성과만을 반영하여 지정기준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과 재무수준별 차등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선제적 관리를 위한 지방공공기관「부채중점관리제도」개편안을 10 년 만에 확정하게 됨

○ **제도 개편 주요 내용**

- 지정기준의 합리성 제고
  지정에 활용할 결산자료를 전년도 재무성과에서 최근 3 개년 결산의 평균값으로 하여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제고함
- 기존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를 2 단계로 확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1 차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채감축대상기관(2 차)」으로 지정하여 부채 성격, 부채 증가원인, 재무안정화대책 등을 종합 평가함
- 재무수준별 단계적 관리
  부채감축대상기관(2 차)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집중관리하고,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함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 내용, '23년 10월]

기존		개편안
•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 향후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공시	⇨	• (1차) 「재무지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향후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공시 • (2차) 1차 지정기관 중 재무위험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부채감축대상기관 지정해 집중관리

※ 출처: 행정안전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 보도자료 2023.10.25

- 지방출자·출연기관도 '24 년 개편 이후에는 지방공기업과 같은 2 단계 체계(1 차 부채중점관리기관, 2 차 부채감축대상기관)를 적용받게 되었음

○ 재무수준별 단계적 관리

- 2단계 부채중점관리제도

구분	1차 지정	2차 지정
제도 명칭	• 부채중점관리기관	• 부채감축대상기관
지정 대상	• 지방공사 • 출자·출연기관(결산시점 기준 3년 미경과 기관 제외)	• 1차(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된 공사, 출자출연기관
지정 방법	• ① 재무지표 평가(20점), ② 재무개선 평가(가점 2점)를 통해 총점 12점 미만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1차 지정	• ① 부채규모 1천억 이상이며 부채비율 200% 이상 ② 부채>자산(완전자본잠식)이며 당기순손실인 기관 •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
	• 안정성, 수익성 분야 지표 위주 평가방식을 활용해 평가 • 최근 3개년 결산 공시자료의 평균값 활용(기존은 단년도 결산실적만 활용)	• 심의는 부채 성격 및 증가원인, 재무안정화대책(자체, 지자체 지원) 등을 종합평가
재무지표 구성	• (공통) 3개 부채비율, 부채규모, 총자산수익률 • (개별)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유동비율, 영업수지비율	-
재무개선 평가	• 부채비율·부채규모가 평가 직전 2개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할 경우 가점 2점(모두 감소: 2점, 부채비율만 감소: 1점)	-
관리 방법	•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후 클린아이 공시(현행 동일)	• 클린아이 공시 • 기관별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집중 점검

※ 출처: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분석(2025.08, 휴코어) 내용 인용

○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관리제도 지정 현황

-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중점관리기관 및 부채감축대상기관 지정 현황

구분		2023	2024	2025	전년 대비
부채중점관리기관	공기업	27	24	22	감소 추세
	출자	**43**	**31**	**30**	**감소 추세**
	출연	**85**	**50**	**50**	**전년 동일**
	계	155	105	102	감소 추세
부채감축대상기관	공기업	-	3	2	감소 추세
	출자	-	**11**	**12**	**증가 추세**
	출연	-	**10**	**14**	**증가 추세**
	계	-	24	28	**증가 추세**

- 지방출자·출연 부채중점관리기관 감소 추세('23 년 128 개 → '25 년 80 개)
  지정기관이 너무 많아 관리력이 집중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지방출자·출연 부채감축대상기관 증가 추세('24 년 21 개 → '25 년 26 개)
  출자기관은 대부분 개발투자 SPC 이며, 출연기관은 전부 지방의료원으로 사실상 개발유형과 의료 유형에 몰려 있음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감축대상기관 세부 현황, '25년 기준]

광역시도명	기관명
서울(1)	(출연) 서울의료원
부산(1)	(출연) 부산의료원
광주(1)	(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경기(3)	(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 파주디엠지곤돌라,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강원(6)	(출자) 강원중도개발공사,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출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충북(3)	(출자) 충주드림파크개발 (출연)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남(5)	(출자) 아산하이테크밸리, 농업회사법인동부팜 (출연)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전북(1)	(출자)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
전남(2)	(출자) 탑글로리 (출연) 전라남도강진의료원
경남(3)	(출자)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 마산해양신도시
제주(2)	(출연)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과 경영분석 결과 발표(2026.09.02)

1.2 중앙 공공기관의 재무위험기관 선정 및 재무위험집중관리제도 도입

○ 중앙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제도 도입

- 정부는 중앙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10 년에 자산규모 2 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9 조의 2」 및 「국가재정법 제 9 조의 2」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에 선제 대응 필요
  자산 2 조 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구조적으로 지속 증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22 년에 중앙 공공기관의 재무위험관리제도가 도입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운영 현황

- 재무위험 예방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단기적 재무개선 성과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과 제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 공공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계획에는 5 년간 경영목표, 재무전망 및 관리계획, 투자계획, 부채관리계획, 변동사항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승인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앙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

구분	2017년	2021년	2023년	2025년
대상기관 수	39개	39개	35개	37개
부채비율	167.5%	161.8%	209.8%	196.5%
부채규모(조원)	472.3	550.6	664.1	778.3

※ 수립 대상 :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기관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도의 실효성 제약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주택개발, 에너지 유형 공공기관들은 부채 규모와 재무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이 이어져 이들 공공기관을 집중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 재무위험관리제도 도입

- 기획재정부는 중앙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존 2단계 관리체계(경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자율관리)에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는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함

구분	관리 대상	주요 수단
(현행) 2단계	(유형)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규모) 공운법상 재무관리 필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추가) 3단계	(재무상황) 관리 필요 기관 중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등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집중관리제도 도입(2022.06.02.)

- 재무위험기관 선정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경영평가 활용), 재무개선 정도를 종합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적격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 미만인 공공기관,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선정 대상 현황(14개)]

구분	수익성 악화 기관(9개)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5개)
공공기관 (14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 출처: 기획재정부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선정 (2022.06.30.)

-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전방위적인 관리 집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만을 선별하여 관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1.3 국내 재무위험기관 지정 제도 비교

○ 지정기준 및 평가체계 비교

<table>
<tr><th>구분</th><th>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중점관리기관)</th><th>중앙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th></tr>
<tr><td>지정기준</td><td>• 1 차 관리기관 지정(12 점 미만)
재무지표 평가틀 활용
- 재무지표 20 점
- 직전 2 개년 연속 재무개선도
2 점 가점 (부채비율, 부채규모)

• 1 차 관리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2 차 관리기관으로 지정
- 부채규모 1,000 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 완전자본잠식이며 당기순손실 발생 기관</td><td>• 재무리스크 종합평가(14 점 미만)
- 재무지표 16 점
- 경영평가 3 년 등급 4 점
- 재무개선도 2 점 가점
직전 2 개년 연속 개선
(재무지표 점수, 부채비율,
차입금/총자산)

• 민간 신용평가 방식 참조
(투자적격 기준 미달 시 지정)</td></tr>
<tr><td>평가지표</td><td>• (공통지표)
부채규모,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 (개별지표)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유동비율,
영업수지비율
(유형별 1~3개)

• 안정성, 수익성 지표로 구성</td><td><table><tr><th>OO기관 예시</th><th>배점</th></tr><tr><td>① 부채비율</td><td>4.0</td></tr><tr><td>② 순차입금/총자산</td><td>4.0</td></tr><tr><td>③ 총자산수익률</td><td>2.0</td></tr><tr><td>④ EBITDA/금융비용</td><td>2.0</td></tr><tr><td>⑤ EBITDA/매출액</td><td>2.0</td></tr><tr><td>⑥ 순차입금/EBITDA</td><td>2.0</td></tr></table>• 안정성, 수익성, 현금흐름 지표로 구성, 원리금상황능력 지표 포함</td></tr>
<tr><td>평가대상
기간</td><td>• 직전 3 개년 재무지표 평균값 반영 (일시적 변동 최소화)</td><td>• 5 년 재무실적 및
3 년 경영평가 등급 반영
(재무개선 정도 종합 분석)</td></tr>
<tr><td>특이사항</td><td>• 기관 유형별
(공사·출자기관 vs. 출연기관)
차등화된 맞춤형 기준 적용</td><td>• 사업 특성의 사회적 편익과
재무리스크를 동시에 고려</td></tr>
<tr><td>지정 대상
('25년)</td><td>•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개
(지방공기업은 22개, 출자기관 30개, 출연기관 50개)
• 부채감축대상기관 28개
(지방공기업은 2개, 출자기관 12개, 출연기관 14개)</td><td>• 재무위험기관 14 개 기관</td></tr>
</table>

※ 출처: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분석(2025.08, 휴코어) 내용 인용

○ **지정시 관리 정책**

- 중앙 공공기관의 재무위험기관 제도와 지방공기업의 재무위험기관 지정 제도는 지정 이후 해당 기관이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도록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임

구분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중점관리기관)	중앙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관리체계	• 2 단계 관리체계로 세분화 • 1 차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2 차 부채감축대상기관 지정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 단일 관리체계 • '22~'26 년까지 한시적 적용
계획수립	• **5 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공시 의무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재정건전화계획 포함** (자구노력, 비핵심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 확충 방안)
공시	• **클린아이 시스템에 공시**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 없음** (국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 출처: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분석(2025.08, 휴코어) 내용 인용

○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

-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은 경영평가의 재무관리 부분의 지표에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제재를 수행함

구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감축대상기관)	중앙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경영평가에 감점(직접적 영향) • 성과급 차등지급 • **부채감축 목표가 경영성과계약에 포함시, 경영목표 미이행에 해당** 기관장 해임 가능	• 경영평가에 연계 • 성과급 차등지급 •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점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 건의** 경영컨설팅 실시

- 지방공기업은 목표 미달시 공사채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방출연·출자기관은 경영진단 결과 목표 미달시 유사기관과의 강제 통폐합 및 청산 폐지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음

Part Ⅳ.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 지방출자·출연기관 유형별 재무건전성 취약점 분석

1.1 지방출자·출연기관 유형별 재무구조 특성 및 취약점

- Part Ⅲ의 분석 내용을 참조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특성을 분류하고 재무특성별 재무적 취약점을 서술하였음

○ **지방출자기관 유형별 종합 진단**

재무특성	해당 유형(기관 수)	재무적 취약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관광(7)·MICE(4)· 에너지환경(7)· 일자리(5)·기타(2)	소규모로 영업이익 마진이 크지 않고 매출 감소시 이익 규모 축소 (MICE와 에너지환경 제외)
영업이익 당기순손실	개발투자(43)	대규모 자산을 차입으로 조달해 이자비용 부담이 큼 부동산경기·금리 변동이 자본잠식과 지자체 보증 발동으로 이어짐
영업손실, 당기순이익	복지(1)	매출이 아닌 지분참여 배당수입, 판관비로 영업손실이나 영업외수익(이자·배당)으로 당기순이익 실현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식품유통(23)	원가 수준의 판매가로 매출총이익이 판관비 미달.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발생. 매출 증가로 손실 축소

○ 지방출연기관 유형별 종합 진단

재무특성	해당 유형(기관 수)	재무적 취약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MICE(2)·국제교류(4)· 에너지환경(7)· 식품유통(20)· 종합지원(5)·기타(11)	대부분 안정적 수익 창출. 식품유통은 영업이익이 낮으나 영업외수익(이자수익·보조금)이 큼 에너지환경 일부는 영업외비용이 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장학(177)	금리 변동에 수입이 좌우 '25년만 영업손실,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순이익 유지
영업손실, 당기순이익	복지(68)	사업 운영비가 영업수익 초과, 복지재단의 유휴자금 이자수익이 영업손실보다 큼
	여성청소년(48)	사업 운영비가 영업수익 초과 재정지원으로 당기순이익 발생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신용보증(17)	대위변제 급증. 경기가 나쁠수록 손실이 커지는 경기 역행 구조, 출연금을 자본계정으로 편입해서 부채비율이 낮음
	의료(31)· 스포츠(12)	5개년간 만성적자
	문화(135)·관광(58)· 연구(71)·기업지원(70)· 테크노파크(18)· 소상공인(10)· 평생교육(4)·일자리(2)· 박람회(2)	출연금에 근거한 고유사업 운영, 자체수입 부재, 고정비 경직, 출연금이 줄면 고유사업 축소 압력 증가

2. 지방출자·출연기관 재무건전성 관리제도 개선

2.1 부채중점관리제도 개선

○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현황

- 부채중점관리기관 적용 성과
  '22 년부터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부채 집중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부채중점관리제도 도입 이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위험기관 대상 수가 '23 년 128 개에서 '24 년 81 개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후 '25 년 80 개로 감소세 둔화
- 부채감축대상기관 적용 성과
  지방공기업의 '24 년 3 개에서 '25 년 2 개로 감소하였으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4 년 21 개에서 '25 년 26 개로 증가하였음

○ 중앙 공공기관의 재무위험관리 지정 현황과 비교

- '25 년 기준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비율은 지방출자기관 29.4%, 지방출연기관 6.4%로 지방공기업의 5.2%에 비해 높음
- '25 년 기준 부채감축대상기관 지정비율은 지방출자기관 11.8%, 지방출연기관 1.8%로 지방공기업의 0.5%에 비해 높음. 특히 지방출자기관은 중앙 공공기관의 재무위험관리기관 지정비율인 4.2%보다도 높음

[기관별 재무위험관리제도 지정 현황, '25년 기준]

구분		지정기관수	전체 기관수	지정비율
재무위험관리기관	중앙 공공기관	14	331	4.2%
부채중점관리기관	지방공기업	22	422	5.2%
	지방출자기관	**30**	**102**	**29.4%**
	지방출연기관	**50**	**782**	**6.4%**
	계	102	1306	7.8%
부채감축대상기관	지방공기업	2	422	0.5%
	지방출자기관	**12**	**102**	**11.8%**
	지방출연기관	**14**	**782**	**1.8%**
	계	28	1306	2.1%

- 다수 기관 지정으로 행안부·지자체의 관리 역량이 분산되고 위험식별 기능이 떨어져 경영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지정 제도의 권위와 신뢰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지방출자·출연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지정기준 강화
  지방출자·출연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지정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정밀하게 적용하여 실제 위험기관에 관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출자기관은 자본 규모가 적어 부채비율이 쉽게 증가하므로 현행 기준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부채관리계획 수립 법적 근거

- 지방공기업은 중앙 공공기관과 같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를 법제화하였으며 보고 내용과 보고 항목은 중앙 공공기관과 유사함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법적 근거 자체가 없음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의무로 부채감축대상기관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신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함

[기관별 부채관리계획 적용 현황]

구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재무부채관리계획
	중앙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법령	공운법 제39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	없음
계획 기간	5회계연도 이상	5회계연도 이상	5회계연도 이상
대상	**자산 2조 원 이상**, 설립 근거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부채 3천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 부채가 자산보다 큰 기관	**부채 1천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 완전자본잠식, 당기순손실 발생 [부채감축대상기관에 해당]
대상기관수 ('25년)	37개	22개	28개 (출자 12, 출연 16)
제출처	재정경제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지자체, 클린아이 공시
경영평가 반영	비계량 1점	정성지표 일부	재무관리에 최대 1.5점 감점

- 법적 근거 신설 필요
  지방공기업은 법적 근거가 확실하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상 명확한 부채관리 의무 조항 부재하여 법적 근거의 신설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설립 지자체의 역할 강화,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 활용, 책임과 인센티브 연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도입을 통한 간접적 실행력 제고

- 중앙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유형은 SOC·에너지·금융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유형으로 개발투자 유형(지방출자), 에너지환경(지방출자, 지방출연), 신용보증(지방출연) 등이 있음

[중앙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기관 현황, '25 년 기준]

구분	SOC 유형	에너지 유형	금융 유형	기타
중앙 공공기관(37개)	7개	11개	11개	8개
지방출자·출연기관 유사 유형	개발투자 (지방출자)	에너지환경 (지방출자·출연)	신용보증 (지방출연)	-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은 부채 감축과 자금 지출 억제라는 건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어 부채 원인 분석과 현금 유출입 통제에 집중되어 있음. 개발투자·에너지환경·신용보증 유형은 사업적 특성이 있어 재무부채관리계획으로 재무적 취약점의 미래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종합적인 중장기 투자 및 경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전체 재무제표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추정하는 중앙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상기 유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부채관리계획 범위 비교]

구분	중앙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지방출자·출연기관 (재무부채관리계획)
재무제표 추정 범위	• 전체 재무제표 유기적 연동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전체 추정 • 향후 5개년 자산, 부채, 자본 전 계정 반영	• 핵심지표 위주 추정, 자금수지 중심 • 자산, 부채 총액 및 주요 손익 지표와 실제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자금수지 중시
반영하는 회계 계정	• 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신규 투자계획 연동) • 부채: 차입금, 사채, 유동·비유동부채 일체 • 손익: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 부채: 금융성 부채, 예수금, 대행사업 미지급금 • 손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 우발채무: 보증, 대출채권 매입 확약 등 리스크 계정
사업 연계성	•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과 직접 연동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신규 사업 예산 반영 • 자산 취득 및 감가상각비 등 세부 추정	• 대행·보조금 사업 위주 분석 •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사업 예산 분석 • 신규 사업 확장보다는 기존 사업 지출 억제에 초점

['25년 지방출연기관 부채위험관리기관 및 부채감축대상기관 현황]

유형	기관 수	기관명
관광	5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충주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강진문화관광재단, 영주문화관광재단
식품유통	4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에너지·환경	1	안산환경재단
일자리	1	경기도일자리재단(300.4%, 705억원)
복지	1	서울시복지재단
신용보증	3	서울신용보증재단(25.4%, 2,333억원) 부산신용보증재단(32.6%, 1,182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25.9%, 3,493억원)
문화	5	금천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부안군문화재단, 거창문화재단
기업지원	4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덕경제재단,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연구	2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여성·청소년	4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소상공인	2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진도군상권활성화재단
종합지원	1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의료	16(14)	홍성의료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부채감축대상기관]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테크노파크	1	경남테크노파크
전체	50(14)	

- 지방출자기관 부채중점관리기관은 30개 중 개발투자 유형은 24개로 80%에 해당함

['25년 지방출자 부채중점관리기관 및 부채감축대상기관 현황]

유형	기관 수	기관명
관광	2(1)	1004섬요트관광, [부채감축대상기관] 파주디엠지곤돌라
식품유통	4(1)	푸르메여주팜주식회사, 강원심층수, 농업회사법인고흥군유통 [부채감축대상기관] 농업회사법인동부팜
개발투자	24(10)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식회사, 의정부리듬시티자산관리, 청주테크노폴리스, 음성용산일반산업단지,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성본산업단지,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남공주산업단지개발, 완주농공단지개발,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평성인더스트리아, 덕산일반산업단지, 영남일반산업단지 [부채감축대상기관]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강원중도개발공사,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충주드림파크개발, 아산하이테크밸리,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 탑글로리, 마산해양신도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
전체	30(12)	

※ 괄호안은 부채감축대상기관 수

2.3 경영평가제도 연계 강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

- 중앙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한 결과 조치와 비교하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결과 조치는 기관의 존폐(해산 청구, 민영화)까지 다룰 수 있는 더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다만 부채감축기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채위험관리기관의 경영평가제도에도 부채관리계획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재무구조의 악화는 손실의 누적과 투자회수의 지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 운영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서 이루어지므로 재무구조의 개선 또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이에 당해연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현행 경영평가제도에 중장기적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계량지표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

[기관별 부채관리계획의 경영평가 반영 현황]

항목	중앙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재무 정량지표	재무예산관리 20점(공기업)	유형별 22~29점	재무 계량 약 32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재무예산관리 비계량 1점	재무관리의 10점의 정성지표 6점 중 일부, 명확한 배점은 없음	재무관리 정성 8점 중 '재정계획의 적정성' 3점
부채중점관리	비계량 1점 계량 3점 (이행실적 점검)	감점 –1.5점 (이행노력 점검)	감점 –1.5점 (이행노력 점검, 상·중·하 3단계)
평가 주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규 제48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지자체장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
결과 조치	성과급 차등, 경영개선계획, 기관장·상임이사 해임 건의, 경영개선계획	좌동	성과급 차등, 기관장·상임이사 해임 건의, 경영진단,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 인력조정 명령 기관 해산 및 민영화 (지방출자·출연법 제30조)

2.4 공시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정비

○ 공시 체계 현황

-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적 실효성 평가를 위해서는 재무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 이는 단순한 정보 기록이 아닌, 위험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임
-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정보는 클린아이 시스템(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재무정보는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합산하여 공시하며, 중앙 공공기관은 알리오 시스템(중앙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각각 공시함

[기관유형별 재무건전성 데이터베이스 구성 현황]

구분	중앙 공공기관 (알리오)	지방공기업 (클린아이)	지방출자·출연기관 (클린아이)
법적 근거	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지방출자출연법 제32~33조
재무정보	요약 재무제표, 차입금 감사보고서	경영분석지표 12개 (안정성·수익성·활동성·수지비율), 감사결과	요약재무제표 재무결산서, 자본금·채무 변동, 감사결과
원가·수입 구조	없음	총괄원가· 요금현실화율	수입구조 구분이 기관마다 다름
부채관리계획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5년 부채 추이와 증감 원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무부채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부채중점관리기관만 재무·부채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투자·출자	투자집행, 출자·출연 현황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 타법인 출자 현황	-
주요통계	기관별 내역 제공, 유형별 통계는 제공하지 않음	기관별·유형별	기관별 내역 제공, 유형별 통계는 제공하지 않음
공시 주기	분기/ 반기/ 연간	연간	연간
공시 시스템	알리오 시스템	클린아이 시스템	클린아이 시스템

- 지방공기업은 재무정보 공시에서 사업투자, 원가정보, 부채중점관리 항목에서 중앙공공기관 공시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통계분석 항목에서도 중앙공공기관과 달리 유형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지방출자·출연기관 공시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지방공기업은 전 기관이 감사를 받으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만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함
-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일반회계기준에 의한 재무결산이나 감사보고서 대신 국가회계기준이나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해 공익 목적 사업에 맞는 결산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결산 수치가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없이 그대로 클린아이에 공시됨
- 이에 수익 계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무정보 분석을 위한 주석이 없으며 회계오류 발생시 오류수정이 미흡하여 공시자료로서 신뢰성에 미흡한 점이 있음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 및 공시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문제	내용	개선 방향
회계기준 혼재	• 출자출연법은 발생주의 원칙만 두고 세부 기준은 행안부 결산기준에 맡김 • 주식회사형 출자기관, 재단법인형 출연기관, 의료원, 신용보증재단이 서로 다른 개별 회계 관행을 따라 출연금·보조금을 수익으로 분류할지 자본으로 분류할지에 따라 부채비율·수익성 지표가 달라짐	• 출연금·보조금·기본재산의 회계처리를 결산기준에서 통일하고, 공시에 적용 회계기준과 출연금 처리 방식을 표시함
수입구조 미공시	• 출연금 의존형의 핵심 위험인 수입 4개 원천인 **'출연금·보조금·위탁수입·자체수입'** 구성이 표준 항목으로 나오지 않음	• **수입 4개 원천별 금액과 비율을 표준 공시 항목에 넣음**
부채증감 원인추적 제약	• 부채 수치는 있으나 증감 원인을 설명하는 항목이 없음	• 알리오처럼 부채중점관리기관에 장기 부채 추이와 증감 원인 설명을 의무화함

○ **신뢰성과 적시성**

- 중앙 공공기관은 알리오 시스템이 분기별/반기별/연간 공시되는 것에 비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과 같이 클린아이 시스템과 지방재정 365 시스템에 연간 단위로 업데이트됨
- 현행 데이터베이스 정비 일정으로는 정기 국회 및 국정감사, 예산정책 의사결정 지원에 적시성 확보가 안 됨. 재무 원천 데이터의 취합과 정비 일정의 개선이 시급함

[클린아이 시스템의 지방공기업 재무데이터 생성 일정 현황 및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방안
결산		3월	현행 동일
클린아이 공시	지방공기업	6월	4월
	지방출자·출연기관	7월	5월
지방재정365 공시		10월	8월